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KMEC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일시 2025. 5. 14.(수) - 2025. 5. 16.(금)

장소 여수 디오션 호텔

주최 및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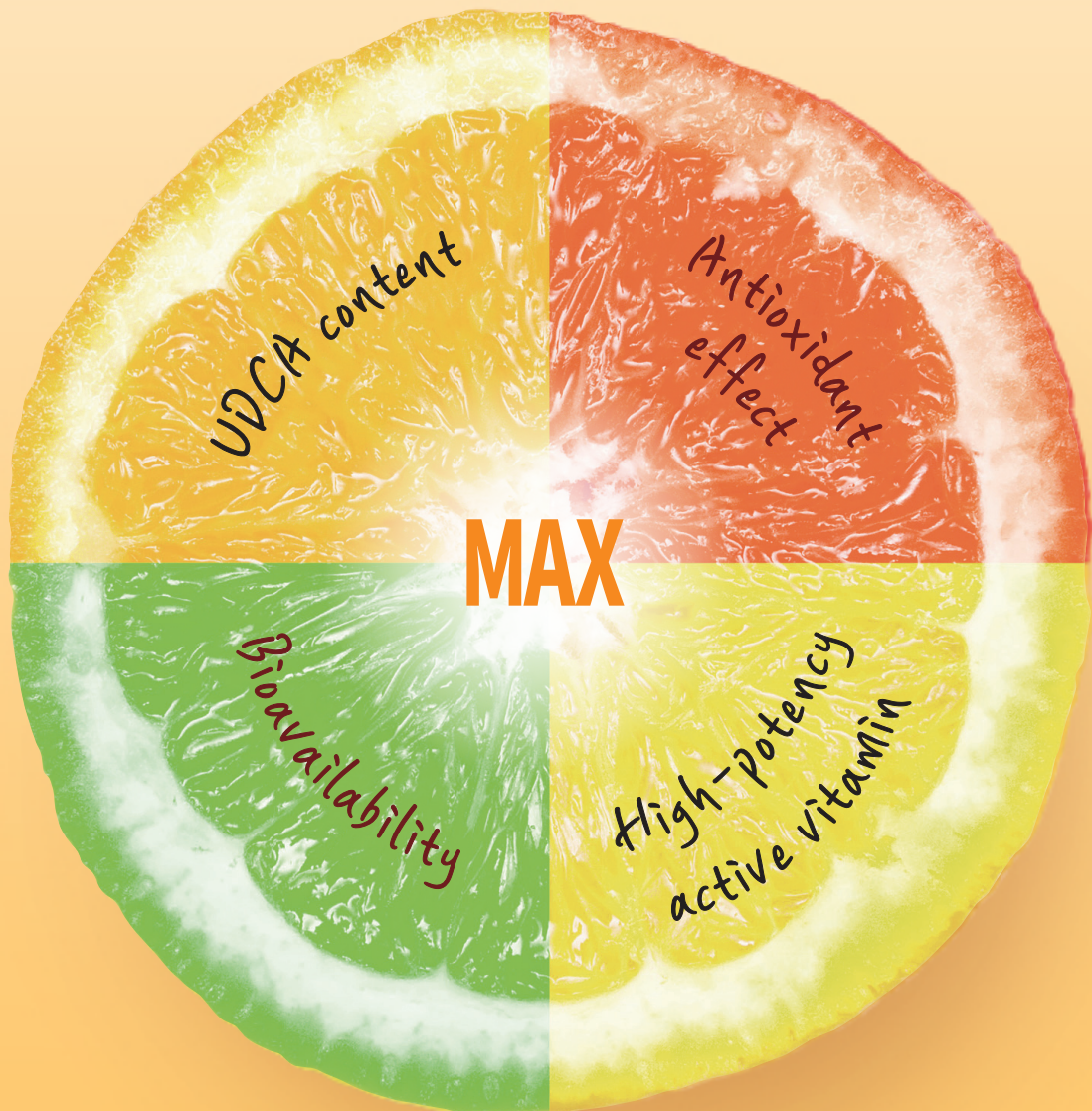


후원



헤파코엔

액티브정



초대의 글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변의 산과 들에는 봄이 한창 피어나고 있는데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정지된 시간처럼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싹과 화사한 봄꽃의 속삭임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긍정의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정 사태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올해도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안타까운 시간만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의학교육학술대회는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미래 의사를 양성하는 주역으로서 교수의 역량과 책무성에 대한 공통 기반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국 현실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연구, 진료, 봉사의 역할은 균형잡기가 쉽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과 위기가 닥쳐오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정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과대학 교수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혼란이 와서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했고, 지금은 학생들과의 유대감에서 인위적인 단절의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의 체계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번 의학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현실을 되돌아보고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중단 없는 여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실력 있는 의사를 키워내는 소명을 소중히 여기고 학생을 사랑하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 여러분의 숭고한 마음과 열정에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더욱 진전된 의학교육의 학문적 교류를 해 주시고, 의학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회원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다학제 간 학술교류와 자신을 힐링하는 세션에서 맛깔나게 작은 행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수라는 무거운 주제를 따라 너무 지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과 추진 동력을 얻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AI의 눈부신 발전을 활용하는 새로운 의학교육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과 건설적인 아이디어 교환을 활발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 교수와 의학교육 동반자들과 여수의 밤바다를 거닐며 아름답고 여유로운 추억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의학교육 학술대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지치고 힘든 의학교육 일상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박훈기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입니다.

먼저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울여주신 박훈기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의학교육학회 임직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83년에 출범한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 영역의 전반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첨단 교육이론과 기법을 폭넓게 공유해오며, 의학교육평가 컨퍼런스, 의학교육 아카데미, 신입교원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학교육학회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은 모두 회원님들과 임원분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의학교육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는 사회 및 의료체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적 논리나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교수님들께서 가장 최전선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양질의 의학교육을 지키며, 의료와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맡고 계신 중요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가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늘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 장 김택우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회 회장 이진우입니다.
한국의학교육학회에서 주최하는 제41차 의학교육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큰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의정사태로 인해 의과대학 교육이 중단되고 많은 의과대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무너진 교육 환경을 수습하고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올해 제41차 의학교육 학술대회의 주제인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의학교육은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미래 의료를 이어갈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의정사태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을 몸으로 직접 겪고 계신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의 주체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시고 지금도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대한의학회는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의 교육관련 단체가 회원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또한 교수님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교수법과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AI)의 도입은 의학교육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의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의 현실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의료와 의학교육 환경에서의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학생 교육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번 의정사태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학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 의과대학교육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는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교수님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대한의학회 회 장 이진우

축사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훈기 한국 의학교육학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교수님들께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 아래, 변화하는 의료와 교육 현장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가능성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기초강연과 정책포럼, 세미나, 자유연제를 통해 교육의 혁신은 물론 교수자의 전문성 확장을 위한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의정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의과대학이 그간 겪어보지 못한 교육적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장님, 보직자들과 의학교육자, 일선 교수님들께서 교육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배움의 흐름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현재 의학교육은 점차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님들의 헌신은 우리 의학교육이 지닌 책임과 가치의 깊이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교육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에 교육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의 교류를 넘어,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교육의 핵심 가치를 되짚고, 교수자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며, 미래를 향한 실천적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이번 논의는 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아울러 인디애나대학교의 Curtis J. Bonk 교수가 'Harnessing Generative AI to Support Learner Engagement in Medical Education'을 주제로 진행하는 기초강연은, 변화하는 교육 기술 환경 속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이번 학술대회는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책임과 비전을 되새기며, 교수자 스스로가 교육의 방향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시 성찰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또한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회와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의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이종태**

축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며, 우수한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회의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는 의료계 전체에 큰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미래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의정 사태로 인해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료 교육과 연구, 진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교수님들께서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마다 학술대회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의학교육과 관련된 최신 지식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또한 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 장 허정식

축사



존경하는 의학교육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학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교수님과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배현주입니다.

먼저,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의학교육학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는 오늘날 의료 환경과 교육 현상이 직면한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외국대 졸업자를 위한 의사 예비시험 제도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와 ‘의사 예비시험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예비시험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국시원은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변화에 발맞추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의미 있는 성찰과 새로운 영감을 안겨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배현주**

한국의학교육학회

제20대 집행부

직책	성명	소속
회장	박훈기	한양의대
부회장	정성수	충남의대
감사	안영준	조선의대
	김도훈	고려의대
총무이사	정은경	전남의대
총무간사	박계영	한양의대
학술이사	이승희	서울의대
학술간사	이윤선	울산의대
	김세진	동아의대
교육이사	강화선	가톨릭의대
교육간사	윤현배	서울의대
	유동미	가톨릭의대
	나승주	차의전원
기획이사	김미영	한림의대
기획간사	임범진	연세의대
정책이사	노혜린	인제의대
정책간사	최효선	조선의대

직책	성명	소속
간행이사	박귀화	가천의대
간행간사	박경혜	연세원주의대
	윤소정	부산의대
정보이사	황지영	동국의대
정보간사	오희진	대구가톨릭의대
대외협력이사	김미란	아주의대
대외협력간사	강석훈	강원의대
출판이사	예병일	연세원주의대
출판간사	서지현	경상의대
연구이사	나상훈	서울의대
연구간사	이소영	충남의대
공공의료이사	김재범	계명의대
무임소(특임)이사	정철웅	고려의대
	김영민	가톨릭의대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학술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
학술이사	이승희	서울의대 의학교육학
학술간사	이윤선	울산의대 응급의학
	김세진	동아의대 의학교육학
학술위원	김영전	원광의대 가정의학
	유지혜	아주의대 의학교육학
	이윤정	서울의대 의학교육학
	이재호	계명의대 해부학
	임윤주	경희의대 내과학
	지영아	성균관대학교 의학교육학
	채유미	단국의대 예방의학

PROGRAM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는 의료와 의학교육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현실과 다양한 역할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도전과 기회를 경험하는지를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조강연에서는 교수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정책포럼, 세미나와 자유연제를 통해 교육 혁신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학문적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 5. 14 (수)

Pre-Conference Workshop (*등록 별도 진행 - 40명 인원 제한)

시간	주제 및 내용/강의자	장소
14:00-17:00	AI 도구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 How to use AI tools as medical teachers “나도 AI 얼리어답터가 될래요” 대표적인 8가지 AI Tools for Medical teachers “무료로도 AI 잘 쓸 수 있어요~ PPT도 만들어 줘요” 2025 New AI Tools Update “이제 나도 AI Tools 사용해 볼래요” Final Summary & Wrap up, Q and A	나상훈 (서울의대), 이소영 (충남의대) 거문도 A
	6년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실제 과정 “우리 학교에 맞는 6년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까요?” 6년제 교육과정 설계의 단계별 실제 전략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계별 교육과정 설계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대학 네트워킹	이승희, 이윤정 (서울의대) 오동도
	새로운 의료인문학 과목 개설 To prepare for the new <Medical Humanities> subject 의료인문학 과목 개설 전략 다양한 수업방법과 교육자료 수업(또는 과목) 구성하기 실습	예병일 (연세원주의대) 거문도 C

DAY 1 | 2025. 5. 15 (목)

사회 정은경 (한국의학교육학회 총무이사)

09:00-09:30	등록				그랜드볼룸	
09:30-10:30	개회사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축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허정식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배현주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시상식	명국의학교육대상	김희수 (희영학술문화재단 이사장)		
10:30-12:30	기조강연 I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발제 1 의료와 의학교육 환경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현실		전우택 (연세의대)			
	발제 2 변화하는 의료와 의학교육 환경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미래		나상훈 (서울의대)			
	패널토론		유승민 (울지의대 학장) 조원호 (부산의대 학장) 김정민 (경북의대) 정철웅 (고려의대)			
12:30-14:00	오찬					메그놀리아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회					벨라스타홀 에메랄드B
14:00-15:30	정책대토론회 I		심포지엄 및 세미나			
	그랜드볼룸		에메랄드A	거문도A	오동도	거문도C
	비상시국 상황에서 의사, 의학교육 그리고 교수		의대교수로 살아간다는 것: 교육적 정체성의 길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논문작성과 심사를 위한 워크숍	의사학(의학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사회: 정은경 (전남의대)		좌장: 김장영 (연세원주의대 학장)	좌장: 이훈재 (인하의대 학장)	박귀화 (가천의대) 윤소정 (부산의대) 박경혜 (연세원주의대)	최은경 (경북의대) 박지영 (인제의대) 정준호 (인하의대) 이규원 (강원의대) 공혜정 (건양의대)
	좌장: 김성근 (가톨릭의대)		발제: 김정란 (충남의대 학장)	발제: 임선주 (부산의대)		
	발제: 노혜린 (인제의대)		패널: 백무준 (순천향의대 학장), 윤보영 (인제의대)	패널: 이근미 (영남의대), 임범진 (연세의대)		
15:30-16:00	Coffee Break					
16:00-17:30	자유연제(1)	자유연제(2)	자유연제(3)	자유연제(4)	자유연제(5)	
	그랜드볼룸	에메랄드A	거문도A	오동도	거문도C	
	의과대학 교수	의학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의과대학 학생평가	의과대학 학생지도와 지원	International Session	
좌장: 허영범 (경희의대 학장)		좌장: 이장훈 (아주의대)	좌장: 이병헌 (경북의대 학장)	좌장: 김영리 (제주의대 학장)	좌장: 강덕희 (이화대의대 학장)	
17:30-18:30	한국의학교육학회 정기총회				그랜드볼룸	

DAY 2 | 2025. 5. 16 (금)

사회 이승희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

09:30-11:00		기조강연 II 좌장: 최재영 (연세의대 학장), 허정식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Harnessing Generative AI to Support Learner Engagement in Medical Education Curtis J. Bonk (Indiana University, USA)			그랜드볼룸	
심포지엄 및 세미나						
		그랜드볼룸	에메랄드A	거문도A	오동도	거문도C
11:00-12:30		International Seminar 사회: 강석훈 (강원의대) 좌장: 편성범 (고려의대 학장), 김미란 (아주의대)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Medical Education: Current Guidelines and Practical Experiences from Japan Akira Yamamoto (Juntendo University, Japan) Transforming Medical Education in the AI Era: Taiwan's Perspectives on Technological Integration Chih-Wei Y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미래를 그리는 의학교육: 혁신의 길, 가능성의 여정 좌장: 안영준 (조선의대 학장) 강: 임걸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패널토론: 권근상 (전북의대 학장), 최석진 (인제의대 학장), 천경희 (건양의대)	뇌과학과 교육학 "사이" 그리고 collaboration 강화선 (가톨릭의대) 임지현 (가톨릭의대)	의과대학 교수의 24시간, 365일은? 김세진 (동아의대) 김영전 (원광의대) 이승희 (서울의대) 채유미 (단국의대)	HSS 교육에서 의료정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발제: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노혜린 (인제의대)
오찬						
12:30-14:00					메그놀리아, 벨라스타홀	
의학교육을 일찍부터 사랑한 분들의 모임						
		정책대토론회 II	자유연제(6)	자유연제(7)	IME	우수 e-poster 발표
		그랜드볼룸	에메랄드A	거문도A	오동도	거문도C
14:00-15:30		전공의교육 정책 현안 좌장: 박중신 (서울의대) 사회: 노혜린 (인제의대) 발제: 서지현 (경상의대), 김영민 (가톨릭의대)	의과대학 학생선발 좌장: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	의과대학 교수학습전략 좌장: 백원기 (계명의대 학장)	IME 좌장: 강윤식 (경상국립의대 학장)	우수 e-포스터 발표 좌장: 이관 (동국의대 학장)
Coffee Break						
유관기관 프로그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학회	국립중앙의료원
16:00-17:30		그랜드볼룸	에메랄드A	거문도A	오동도	거문도C
		외국대 졸업자를 위한 의사 예비 시험 제도 고찰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주요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	AI 시대 치의학교육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필수의료 의사 양성: 성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
17:30-18:00		시상식 (한국의학교육 학술상, KJME 심사위원상, 젊은학자상, AME 졸업장, 우수 연제상)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그랜드볼룸
폐회식						

Refresh & Social Networking			
일자	시간	세미나 A	세미나 B
Day 1 2025. 5. 15 (목)	14:00-15:30	*커리어, 회복과 성장의 교차로 진행: 이소영 (충남의대), 이민정 (서울의대)	*커피 한 잔의 여정: 쉼과 사색의 시간 진행: 김강철 (서울의대)
	15:30-16:00	Coffee Break	
	16:00-17:30	*나만의 색, 나만의 심: 퍼스널 컬러로 시작하는 치유 진행: 김선우 (스토리엔스타일)	대전충청지회 홍보부스
Day 2 2025. 5. 16 (금)	11:00-12:30	*나만의 색, 나만의 심: 퍼스널 컬러로 시작하는 치유 진행: 김선우 (스토리엔스타일)	부산경남지회 홍보부스
	12:30-14:00	오찬	
	14:00-15:30	*나만의 색, 나만의 심: 퍼스널 컬러로 시작하는 치유 진행: 김선우 (스토리엔스타일)	대구경북지회 홍보부스
	15:30-16:00	Coffee Break	
	16:00-17:30	맥그로힐 세미나	엘스비어 세미나

e-poster
전시

*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당 프로그램 포스터의 QR을 통하여 개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어

* * 회복과 성장의 교차로



내 길을 찾아야
학생들 길도 보인다!

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4:00-15:30

세미나 A

사전신청
바로가기



나의
커리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학생들 진로 상담하다가 정작 내 미래가 궁금해졌다면!
- 의학교육자로서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싶다면!
- 나의 커리어, Values & WISHES 검사를 통해 알아봐요!

인원 제한이 있는 워크숍이니 잊지 마시고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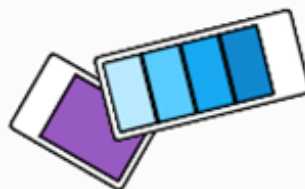
Refresh & Social Networking

나만의 맥, 나만의 웍: 퍼스널 컬러로 시작하는 치유

일 정 2025년 5월 15일 (목), 5월 16일 (금)

신청기간 2025년 3월 7일 ~ 4월 11일

신청방법 QR 코드 접속 후 신청



강사 소개

김선우

- 스타일컨설팅 전문기업 스토리앤스타일 대표 (2016~)
- 스타일 컨설턴트 | C레벨 임원, 기관장, 전문직업인, 정치인, 예술가 등 다수 컨설팅
-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졸업
- 저서 《우리는 메시지를 입는다》, 《처세를 위한 스타일 전략》

과정 소개

내면 성향을 발굴하고 스타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참석자들은 온라인 <문제해결패턴진단> 응답 후 제출 강의장에서 스코어보드 & 유형 결과 리포트 제공

세션 구성

- 1부: 나의 강점을 시각화하는 스타일링
- 2부: 쉽고 빠르게 호감도를 높이는 스타일링

일정 및 장소

일정

Day 1: 5월 15일 (목) 16:00~17:30

Day 2: 5월 16일 (금)
11:00~12:30
14:00~15:30

*각 타임당 정원은 20명

장소: 세미나 A

참가 신청 및 문의

참가 신청: QR 코드 접속 후 신청



문의: 김민 min.kim@snu.ac.kr



커피 한 잔의 여정: 쉽과 사색의 시간



언제, 어디에서?

- 세미나 B # 장소
- 2025년 5월 15일 # 일자
- 14:00 - 15:30 # 시간
- 20명 # 모집인원

☹️ 무엇을?

-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교육의 의미 되새기기 # 커피 한 잔의 여정 (Bean-to-Cup Journey)
- 직접 커피를 내려보며 과정의 중요성 경험하기 # 브루잉 저니 (Brewing Journey)
- 각자의 생각을 우려내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 라운드 테이블 브루잉 (Roundtable Brewing)



"한 잔의 커피처럼 향기로운 의학교육,
함께 맛보지 않으시겠어요?"

👇 참가신청 👇



연자: 김강철(서울의대)



한국의학교육학회 지회 홍보부스



한국의학교육학회 지회 홍보부스에서 뜻깊은 만남과
유익한 정보를 나누세요!

진행 일정

대전·충청 지회 25.05.15.(목) 16:00-17:30

부산·경남 지회 25.05.16.(금) 11:00-12:30

대구·경북 지회 25.05.16.(금) 14:00-15:30

진행 장소

세미나 B

각 지회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교류의 장에 함께 하세요!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유연제 1 (의과대학 교수)

그랜드볼룸

좌장: 허영범 (경희의대 학장)

- | | | |
|------------|--|-----|
| 1-1 | 국내 의과대학 교원의 탈진 현황 및 일과 삶의 균형
김경한, 안준무, 이민정, 이윤정,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 107 |
| 1-2 |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
이동현, 최재정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108 |
| 1-3 | 의학교육 직무 기반의 맞춤형 교수개발 프로그램 설계
임지현 ^{1,2} , 이승희 ¹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¹ , 가톨릭의대 SLICE교수개발센터 ² | 109 |
| 1-4 | 의과대학 교수의 전환 경험과 정체성 형성: 마이크로티칭 참여를 통한 질적 탐색
임윤주,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110 |

자유연제 2 (의학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에메랄드A

좌장: 이장훈 (아주의대)

- | | | |
|------------|--|-----|
| 2-1 | 의학과 예방의학 통합6년제
안준무 ¹ , 이승희, 오주환 ²
¹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 서울의대 의학과 | 113 |
| 2-2 | 의과대학 교육과정 변화관리 모형과 전략 도출 - 서울의대 교육과정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
이윤정 ¹ , 이승희 ¹
¹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 114 |
| 2-3 | Communicating about pain in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s: How medical students elicit pain descriptions and how standardized patients respond
박송희, 김찬웅, 김미경, 권영규, 정다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 116 |

자유연제 3 (의과대학 학생평가) 거문도A 좌장: 이병현 (경북의대 학장)

- 3-1** **의예과 시기에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의 특성 및 성과 추적** 119

이슬이, 이영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3-2** **Perspectives of Medical Students and Developers Regarding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and 3D Printing Technologies** 120

Young Hyun Yun¹, Dong Hoon Shin¹, Hyung Jin Choi^{1,2}
¹Department of Anatomy and Cell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²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 3-3** **임상역량 평가 도구로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121

명선정^{1*}, 허연주¹, 윤나래¹, 신준성¹, 김주휘¹, 김찬웅², 김도훈³, 정서이⁴, 윤예진⁴, 신소연⁴, 공현중⁴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²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³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⁴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과

자유연제 4 (의과대학 학생지도와 지원) 오동도 좌장: 김영리 (제주의대 학장)

- 4-1** **학년과 입학유형에 따른 의과대학 재학생의 학습성과 및 교육환경 인식 비교** 125

김세진^{1,2}, 박태준³, 이장훈⁴, 김장희⁵, 유지혜¹
¹아주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³아주의대 생화학교실, ⁴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⁵아주의대 병리학교실
- 4-2**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커리어패스 - 의과대학생과 초기경력 의사를 위한 WISHES 모형 개발 -** 126

이민정¹, 이승희²
¹경희대학교, ²서울대학교
- 4-3** **서울 소재 의과대학 신입생의 진학 결정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27

현민영, 김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자유연제 5 (International Session)

거문도C

좌장: 강덕희 (이화의대 학장)

- 5-1 MEE-Q (Medical Education Evaluation Questionnaire): Tool Design Study for Evaluating Medical Education in LMICs in Asia Using WFME Standards** 131
 Sangwook Cheon^{1*}, Seoyeon Cho^{1*}, Jimin Choi^{1*}, Junsik Hong^{1*}, Dongyoon Jeong^{1*}, Jiwon Kang^{1*}, Dahye Yoon², Timothy Lau³, Yin Ka Fung³, Hyunmi Park⁴
¹Department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South Korea, ²Faculty of Medicine, School of Primary Care, Population Science and Medical Education, University of Southampton, Southampton, UK, ³Surrey and Sussex Healthcare NHS Trust, Redhill, UK, ⁴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Joint first-authors
- 5-2 A narrative review of social media guidelines for medical doctors: Insights for developing framework in Vietnam** 133
 DANG THI KIM CHI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 5-3 Evaluation of the level of integration and current status of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edical curriculum: A pilot study focusing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course** 134
 Hyojeong Lee¹, Do-Hwan Kim¹, Jinho Shin², Seung Yang³, Jin-Kyu Park², Hoon-Ki Park⁴
¹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³Department of Pediatrics,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⁴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5-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o Assess Medical Students' Awareness of Health-Rel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35
 조담¹, 김민서¹, 이나원¹, 박현미²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 ²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자유연제 6 (의과대학 학생선발)

에메랄드A

좌장: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

- 6-1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 183
 하충원,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6-2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184
 양현경¹, 김강문, 이경룡, 백순근²
¹건국대학교 의과대학 ²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6-3 의과대학생의 입학전형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학업성취, 졸업 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185
 김순구¹, 서보영¹, 이애화^{1,2}, 하지용^{1,3}, 황일선^{1,4}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¹의학교육혁신단, ²의학교육학교실, ³비뇨의학교실, ⁴병리학교실
- 6-4 해외 의과대학의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학생 선발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비교연구** 186
 박소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전공

자유연제 7 (의과대학 교수학습전략) **거문도A** **좌장: 백원기 (계명대 학장)**

7-1	AI 챗봇 기반 모의진료 훈련과 동료 간 역할극의 CPX 성과 비교: 예비연구 이혜윤 ¹ , 김준동 ² , 정아람 ² , 최효재 ³ , 최성열 ² , 김지환 ¹ , 김창업 ¹ <small>¹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이학교실 ²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³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small>	189
7-2	의예과 학생들이 간호학과 협력활동 후 제출한 성찰들에서 나타난 직종간교육 역량요인 텍스트분석 고은 ¹ , 김예원 ¹ , 박장희 ² <small>¹순천향의대 의학과, ²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small>	190
7-3	의사소통 역량 개발을 위한 ChatGPT 프롬프트 분석 연구 지영아 ¹ , 김선영 ² <small>¹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경상국립대학교 교육혁신처</small>	191

IME (IME) **오동도** **좌장: 강윤식 (경상국립의대 학장)**

8-1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지원전략 엄광현 ¹ , 김정민 ² , 김종일 ^{3,4} , 최효이 ⁵ , 이동현 ^{5,6} <small>¹Department of Pharma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wasun, Korea ²Department of Microbi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³Genomic Medicin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⁴Training Center for Innovative Medical Scientist,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Seoul, Korea ⁵Department of Physiology,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ocheon, Korea ⁶CHA Institute for Future Medicine, Medical Center Research Institute, Seongnam, Korea</small>	195
8-2	Symphony of Heartbeats: A Student-Led CPR Initiative Sustaining Professional Identity During the Korean medico-political crisis 조달 ¹ , 박현미 ² <small>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 ²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small>	196
8-3	통합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설계 경험: 연세의대 코어임상실습 과정을 중심으로 김가영 ¹ , 정재은 ¹ , 이상아 ¹ , 조연주 ¹ , 김지혜 ¹ , 강희택 ² , 임범진 ³ , 김영삼 ⁴ <small>¹연세의대 교육파트, ²연세의대 가정의학교실, ³연세의대 병리학교실, ⁴연세의대 내과학교실</small>	197

포스터(우수)

거문도C

좌장: 이관 (동국의대 학장)

PP-01	고충실도 및 가상현실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 혼합 방법 연구 이효정 ¹ , 이장훈 ² , 유지혜 ¹ , 정현주 ² <small>¹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small>	201
PP-02	Exploring Full-Time Research Experiences among Medical Students: Impact and Implications for Medical Education 윤나래, 신준성, 허연주, 김주휘, 윤현배, 명선정 <small>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small>	202
PP-03	의료현장의 영적 돌봄: 문헌 고찰을 통한 실천과 의학교육적 과제 탐색 김강철, 김민, 이나미, 이승희 <small>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small>	203
PP-04	의대생의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주현정 ¹ , 박효진 ² <small>¹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혁신센터, ²한국교육개발원</small>	204
PP-05	의대 증원과 관련된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의사 이미지 구유진 ¹ , 장경주 ^{1,2} , 이재호 ^{1,2,3} , 하정숙 ^{1,4} , 배재훈 ^{1,5} <small>계명대학교 의과대학 ¹의료인문학교실, ²학생지원센터, ³해부학교실, ⁴진단검사의학교실, ⁵생리학교실</small>	205
PP-06	국내 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연구 분석 박혜진 ¹ , 김유라 ² <small>¹울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의료인문학교실</small>	206
PP-07	의과대학 군위탁교육 현황 분석 김윤정 ¹ , 김가영 ¹ , 김혜원 ² , 임법진 ³ <small>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팀 교육파트, ²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³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small>	207
PP-0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의 수행능력 및 진로 변화 분석 정한나 ¹ , 이은혜 ² , 정선재 ³ , 최용선 ⁴ <small>¹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응인세브란스병원 입원외학과, ³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⁴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small>	208
PP-09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현민영, 박경현, 이슬이, 정한나 <small>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small>	209

포스터 세미나B (E-poster Zone)

- P-01 Cross-Country Comparison of Basic Medical Curricula in Uzbekistan, Tanzania, and Ethiopia** 212
 Nafisa Rayimova Nozim Kizi, Kim Suyoun, Lee Young-Mee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P-02 리빙랩 수업에서 Reflection Report의 교육적 의미 분석: 학생 경험을 통한 공감 능력 형성 기제 탐색** 213
 김민¹, 최미영², 이은정², 유은일², 김희정², 권용진³, 이로미⁴, 이승희¹, 손호준⁵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³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⁴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P-03 의료인문학 교육의 위기와 가능성: 미래 교수자 양성과 디지털 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214
 이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 P-04 감염병 상황에서의 중증외상 처치 능력 강화를 위한 VR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215
 김미라¹, 이수경², 유지혜³, 이미진⁴, 정현주⁵
¹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²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육센터, ³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⁴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⁵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 P-05 예비 의료인을 위한 장애인건강권 교육 성과** 216
 오희진¹, 박종혁², 김소영²
¹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²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P-06 Patient-Centered Medical Education through John Dewey's Empirical Naturalism** 217
 Oh, Heejin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School of Medicine, Daegu Catholic University
- P-07 의학교육 졸업시험 문항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효과: 호치민시의약대학 졸업시험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219
 정한나^{1,2}, 강유림², Lê Khắc Bảo⁶, Đoàn Thị Thu Hoa⁶, 김영삼^{1,2}, 유태현³, 최진영^{2,4}, 이수빈⁵, 안신기^{1,2,5}, Hoàng Minh⁶, Lương Tuấn Trí⁶
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²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동공의학교육원, ³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⁴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⁵연세대학교 제중원보건개발원, ⁶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 Chi Minh City
- P-08 학생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한 강의평가 시행 경험** 220
 권효진, 박장희, 육권인, 류세민, 유숙원, 유윤종, 임선화, 강석훈
 강원의대
- P-09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일차의료 실습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교육 요구도 분석** 221
 김송림¹, 민열하², 임준³, 윤소정⁴, 박귀화⁵
¹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²강원대학교 간호학과, ³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⁴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⁵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 P-10 교육전담간호사의 비전 실현을 위한 역량 개발: 혼합연구방법의 적용** 222
 안준무¹, 이윤정¹, 권희경²
¹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간호교육센터
- P-11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일개 의과대학 교육 운영 경험 탐색** 223
 박영순¹, 박시운², 이상엽^{1,3}, 이용원^{1,4}, 한기준⁴, 구본대⁵
¹가톨릭관동대의 의학교육학교실, ²재활의학교실, ³병리학교실, ⁴내과학교실, ⁵신경과학교실
- P-12 디베이트 기반 Critical Thinking 수업 운영 경험** 224
 박혜진¹, 한승호^{1,2}, 유승민^{1,3}
¹울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생리학교실, ³미생물학교실

P-13	특성화선택과정 실습 변화와 학생 관심 분야 한은정 ¹ , 용동은 ² <small>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파트, ²진단검사의학교실</small>	225
P-14	Scoping review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in medical education Kyung Hyun Park, Hanna Jung <small>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small>	226
P-15	의료 인공지능 시대, 의학교육의 역할 재정립: 의과대학생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방관옥 ¹ , 박소연 ² , 김경숙 ³ <small>¹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인하대학교부속병원, ³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small>	227
P-16	의과대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꿈을 찾는 의대생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고아라 ¹ , 권복규 ² , 정소미 ³ <small>¹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 ²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³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small>	228
P-17	임상 AI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정소미 ¹ , 김승정 ² , 고아라 ³ <small>¹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 ²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³이화의대 환경의학교실</small>	229
P-18	의과대학생의 TBL 수업 운영의 체계성에 대한 인식과 능동적 수업 참여의 관계에서 TBL 참여 횟수의 조절효과 정소미 ¹ , 김승정 ² , 이경은 ³ , 고아라 ⁴ <small>¹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 ²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³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⁴이화의대 환경의학교실</small>	230
P-19	의과대학생 대상 'AI 연구 멘토링' 운영 사례 연구 정소미 ¹ , 안소현 ² , 김승정 ³ , 고아라 ⁴ <small>¹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 ²이화의대 의과학연구소, ³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⁴이화의대 환경의학교실</small>	231
P-2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구축 사례: 설계, 운영, 활용 정한나 ¹ , 이은혜 ² , 강은애 ³ , 정선재 ⁴ , 최용선 ⁵ <small>¹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외과, ³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⁴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⁵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small>	232
P-21	임상단계 의과대학생의 변화 추이 분석: 임상의학종합평가, 임상수행평가, 발달시험 간 종단적 관계를 중심으로 강유림 ¹ , 김혜원 ^{1,2} <small>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동곡의학교육원, ²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small>	233
P-22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효과 및 졸업성과 분석 이경민 ¹ , 장경주 ¹ , 배재훈 ¹ , 이현수 ² , 이재호 ¹ <small>¹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²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small>	234
P-23	Medicine in the Korean War, according to the accounts from US latter-day Saints veterans Jacob Sangwoon Bae <small>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small>	235
P-24	학습자로서의 의과대학 교수 - 일개 의과대학 교수개발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임지현, 유동미, 김선, 임지향, 최문형, 최창진, 김수영, 강화선 <small>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small>	236
P-25	의료인문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개발 및 운영 계획 류동희, 오희진, 김지연, 이건호, 임재찬, 송권호, 배진영 <small>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small>	237
P-26	의학교육의 교수개발의 현황과 과제, 발전 전략에 대하여 이동현 <small>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small>	239

P-27	아시아 국가 중심 임상교수의 교수 정체성 연구 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 이효정 ¹ , 이장훈 ² , 김미란 ³ , 유지혜 ¹ <small>¹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³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small>	240
P-28	인적자원개발관점에서 본 의학교육학교실의 역할과 책임 김근호, 강예지 <small>인하대학교 의과대학</small>	241
P-29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의대교수 및 전문의들의 내적동기 탐구 김강문 ¹ , 양현경 ¹ , 심선희 ² <small>¹건국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²은평성모병원 소아응급센터</small>	242
P-30	한국의학교육학회지 원저에 참여한 연구자 네트워크 - 2015~2024년 이동욱 <small>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small>	243
P-3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 경험 분석: 수업, 임상실습, 연구 참여 및 교외 활동을 중심으로 나승주 <small>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small>	244
P-32	한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재학생, 졸업생 인식도 조사 김경한, 이민정, 이승희 <small>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small>	245
P-33	교육 개선을 위한 핵심역량 요구분석 신형석, 김재훈 <small>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학교실</small>	246
P-34	다학제적 전문가간 팀 티칭과 팀 학습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도상훈련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 천경희 ¹ , 정선영 ² , 박영순 ³ , 김재연 ⁴ , 이소진 ⁴ , 최성애 ⁵ , 이승진 ⁶ , 여채원 ⁶ <small>¹건양대의 의학교육학교실, ²건양대학교 간호학과, ³가톨릭관동대의 의학교육학교실, ⁴건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 ⁵호원대학교 간호학과, ⁶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small>	247
P-35	TBL에서의 동료평가 피드백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채수진 <small>울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small>	248
P-36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대한 탐구 기반 학습이 학생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소영 ¹ , 문재영 ² , 김정란 ³ , 이주희 ^{2,4} , 이윤정 ⁴ <small>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³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⁴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small>	249
P-37	교육 혼란 속에서 지속된 일개 의과대학 질관리 사례를 통한 교육회복탄력성 탐색 이소영 ^{1,2} , 설지영 ³ , 정성수 ⁴ , 김진현 ⁴ , 나기량 ⁴ , 김수일 ⁵ , 이영 ⁶ , 강준원 ⁷ , 김형석 ⁸ , 이주희 ^{4,9} , 김주연 ⁹ , 송지선 ⁹ , 조현주 ² <small>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 ³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⁴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⁵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⁶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⁷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⁸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small>	250
P-38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중환자 진료 VR 시뮬레이션 개발 및 적용: 고위험 산모 시나리오 기반 사례 김세진 ^{1,2} , 이수경 ³ , 김미라 ⁴ , 김미란 ⁵ , 유지혜 ¹ , 정현주 ⁶ <small>¹아주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³아주의대 임상교육센터, ⁴아주의대 의학교육실, ⁵아주의대 산부인과학교실, ⁶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small>	251

P-39	의료 리더십 역량 프레임워크(MLCF)에 기반한 리더십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252
	임지현 ^{1,2} , 최효선 ³ , 강화선 ^{1,4} , 김은기 ⁵ , 이동현 ^{6,7} ¹ SLICE center for faculty development,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²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³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wangju, Korea, ⁴ Department of Medical Life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⁵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⁶ Department of Physiology,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ocheon, Korea, and ⁷ CHA Institute for Future Medicine, Medical Center Research Institute, Seongnam, Korea	
P-40	리더십 교육 연구동향 분석과 의과대학 리더십 교육의 전략	253
	최효선 ¹ , 이동현 ² ¹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²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P-41	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5년간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기반 교육의 질 관리 활동 성과와 성찰	254
	천경희 ¹ , 이영진 ² , 이태희 ³ , 윤정민 ⁴ , 이정림 ⁵ , 구관우 ⁶ , 권택근 ⁷ , 이정아 ⁸ , 정수진 ⁹ ¹ 건양대의 의학교육학교실, ² 재활의학과, ³ 소화기내과, ⁴ 소아청소년과, ⁵ 미생물학교실, ⁶ 심장혈관흉부외과, ⁷ 심장내과, ⁸ 행정실, ⁹ 의학교육지원센터	
P-42	WFME 의학교육 기준과 변혁적 교육 담론의 접점 탐색: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관점을 중심으로	256
	김강철,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P-43	신경계 기초-임상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국내외 의과대학 교육과정 비교	257
	곽서희, 부승연 ¹ , 송민섭 ¹ , 송재연 ¹ , 유임주 ² , 이영미 ³ , 김수연 ³ , 한규만 ⁴ , 노지훈 ⁵ 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²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³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⁴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⁵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P-44	전공의 교육에서 선천성 소아심장기형 3차원 병변 모델의 교육적 효과성 평가	258
	김선주 ¹ , 곽재건 ² , 이승희 ¹ 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의학교육학교실, ²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흉부외과	
P-45	의료시스템과학(HSS) 틀을 활용한 '인문사회의학' 학습성과 개발 연구	259
	이수지 ¹ , 김선경 ² , 이혜윤 ³ , 임선주 ⁴ ¹ 부산대학교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²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³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P-46	Development of a Team-Based Learning (TBL) Module for Integrating Basic and Clinical Medical Education: A Preventive Medicine Case Based on the Clinical Presentation of Chest Pain	260
	김미지 ^{1,2} , 황진용 ^{2,3,4,5} , 강윤식 ^{1,2,5} , 정백근 ^{1,2} , 박기수 ^{1,2} , 지영미 ⁶ , 김장락 ¹ ¹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경상국립대학교 의과학연구원, ³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⁵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⁶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P-47	역량기반 인문사회의학 캡스톤 프로젝트 교과목 개발	261
	이영준 ¹ , 이일학 ² , 한은정 ³ 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학교실, ³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	
P-48	내러티브 기반 의료인문학 교육의 적용: 임상 실습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262
	장경주 ^{1,2} , 이가람 ⁴ , 이재호 ^{1,2,3}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¹ 의료인문학학교실, ² 학생지원센터, ³ 해부학교실, ⁴ 영남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P-49	국내 의과대학 학부과정에서의 리더십 교육 질적 연구	263
	정율원 ¹ , 고수완 ¹ , 이영희 ² , 채유미 ¹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P-50	메디컬 리더십의 역량, 교육 시기, 및 방법 고찰	264
	임춘학 ¹ , 최유진 ² , 임여진 ³ 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²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담췌외과학교실, ³ 동인재교육원	

P-51	Required Training Experiences for Competency-Based Emergency Medicine Residency: A Delphi Consensus Kyung Hye Park ^{1,2} Young-Min Kim ^{2,3,4} <small>¹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²Quality Improvement in Residency Training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Seoul, Korea ³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small>	265
P-52	성찰적 학생 포트폴리오 평가의 신뢰성 분석: 교수 간 평가 경향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채수진 ¹ , 권효진 ² <small>¹울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small>	266
P-53	라오스 국립치과대학 치의학교육환경에 대한 학습자인식 중단연구 강은희 ¹ , 김미엘 ² , 김조은 ³ , 권호범 ⁴ , 임정준 ¹ <small>¹서울대학교 치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³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영상치의학교실, ⁴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small>	267
P-54	대전, 세종, 충청남도(DSC) 지역에 종사하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경로 및 진로 선택 요인 이소영 ¹ , 김정린 ² <small>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small>	268
P-55	국내 의과대학 학생상담 조직 운영 현황 분석 이애화, 노재희, 김재범 <small>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small>	269
P-56	2024학년도 의정사태 기간 중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활동 참여 실태 신준성 ¹ , 윤나래 ¹ , 허연주 ¹ , 윤현배 ^{1,2} , 명선정 ¹ <small>¹서울의대 의학교육실, ²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small>	270
P-57	장기 학업 중단 상황에서 의과대학 동아리의 긍정적 기능 김수연 ¹ , 박소정 ² , 이영희 ³ , 이영미 ¹ <small>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³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본부</small>	271
P-58	의과대학 대입전형 개선에 대한 교수 인식 분석 하충원, 이승희 <small>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small>	272
P-59	진료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 가상환자 프로그램 개발 한예진, 남재원, 이근미 <small>영남대학교 의과대학</small>	273
P-60	동료 성찰 포트폴리오 수업 프로그램 개발 강은희, 박신영 <small>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small>	274
P-61	의료 인력 정책의 동적 프레이밍 패턴: 뉴스 미디어 담론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권영규 ¹ , 정다운 ² , 박송희 ³ , 김미경 ⁴ , 김찬웅 ^{1,2} <small>¹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²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³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⁴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small>	275
P-62	의대생의 시스템 사고 및 다학제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조기 병원 노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박귀화 ¹ , 임준 ² , 경선영 ³ , 강승희 ⁴ , 윤소정 ⁵ <small>¹가천대학교 의과대학, ²인하대학교 의과대학, ³가천대학교 의과대학, ⁴부경대학교 평생교육 및 상담학과, ⁵부산대학교 의과대학</small>	276
P-63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결하는 생성형 AI 활용 수업 최효이, 정미현, 이동현 <small>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small>	277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그랜드볼룸

기조강연 I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좌장 | 이종태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연자 | 전우택 (연세의대)

나상훈 (서울의대)

패널 | 유승민 (을지의대 학장)

조원호 (부산의대 학장)

김정민 (경북의대)

정철웅 (고려의대)

기조강연 I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이 종 태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인제대학교	의학사	1979. 3-1985. 2	예방의학
인제대학교	의학석사	1986. 3-1988. 2	예방의학
인제대학교	의학박사	1988. 3-1991. 2	예방의학

경력 사항

1989. 03-2024. 0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수
2015. 08-2019. 07	인제대학교 의과대학/학장
2015. 08-2019. 07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교육위원장
2018. 05-2023. 09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LIC교육과정개발컨소시엄 위원장
2020. 09-2024. 07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정책연구소장
2020. 09-2023. 12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학생포트폴리오컨소시엄 위원장
2024. 03-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명예교수
2024. 08-현재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기조강연 I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박 훈 기

한양의대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1. 3-1987. 2	의학
서울대학교보건의대학원	석사	1989. 3-1993. 2	보건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1996. 3-1999. 2	예방의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Fellowship	2001. 8-2002. 7	Medical Education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석사	2002. 8-2003. 8	Sports Medicine

경력 사항

2020-2024	한양대학교 의학교육진흥원장
2017-2024	대한가정의학회 고시이사
2009-현재	의사시험위원회, 의사실기시험위원회 위원, 의사시험위원장
2018-2024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 정책이사, 부회장
2024-현재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2025-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기조강연 I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유 승 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4-1990	의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박사	1990-1996	의학(미생물학)

경력 사항

- 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 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 현 대한바이러스학회 회장
- 현 KAMC 의과대학협회 기획조정이사
- 현 한국 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기조강연 I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조원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부산대학교	학사	1990. 3-1996. 2	의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7. 3-1999. 2	의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4. 3-2006. 2	신경외과학

경력 사항

2014. 7-2015. 5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건립추진본부장 및 센터장
2017. 3-2019. 2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아미부원장
2020. 10-2025. 2	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 및 감마나이프센터장
2023. 3-2025. 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2024. 3-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이사 (특임이사)
2024. 11-현재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 부회장 (차기 회장)
2025. 3-현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기조강연 I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김정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5. 3-1991. 2	의학
경북대학교	의학석사	1991. 3-1993. 2	미생물학
경북대학교	의학박사	1993. 3-1996. 2	미생물학

경력 사항

1996. 3-2005. 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부교수
2005. 3-현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01. 7-2003. 2	미국 듀크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2014. 8-2024. 7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학장, 교무부학장
2023. 9 -현재	경북대학교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학부과정 지원사업 연구책임자

기조강연 I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정철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92. 3-1998. 2	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2001. 3-2003. 2	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2006. 9-2011. 2	의학

경력 사항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학장 2023. 10-
- 한국의학교육학회이사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문의원, 학술위원회간사
- 대한신체장이식외과연구회이사, 고시수련위원장
- 대한이식학회이사

기조강연 I

의료와 의학교육 환경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현실

전우택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79-1985	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1986-1988	정신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1988-1994	정신의학

경력 사항

1994-2005	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2005-현재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2014-2019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2016-2019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2020-2022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MEMO

의료와 의학교육 환경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현실

연세의대
전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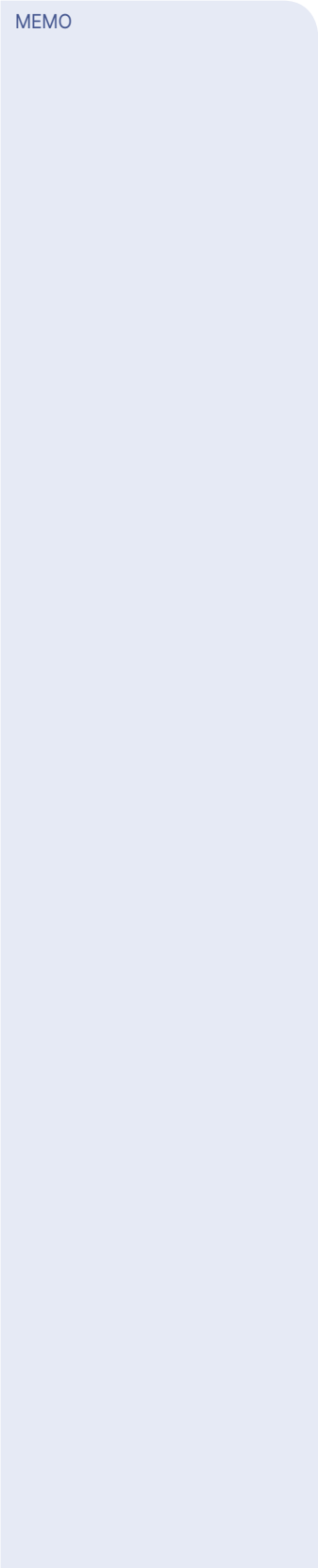
“그만 둘까?”

(원심력)

- 보상, 업무 부담, 삶의 질, 가족 문제,
- 자율성, 성과 인정의 부족, 역할 갈등

“그래도 그냥 할까?”

(구심력)



한국 의대 교수들의 원심력

- 과도한 진료 업무
- 진료, 연구, 교육의 균형이 무너짐
- 학생, 전공의와의 의미 있는 만남의 실종
- 정부의 행태 상 의료의 미래가 암담함
- 대학병원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회의
- 열악한 근무환경
- 지방과 수도권권의 차이
- Burn Out

외국 의대교수들의 원심력

- 낮은 전문성 발전 기회 및 승진 기회의 제한
- 급여 및 재정적 보상에 대한 불만
- 개인 및 가족적 사유
- 조직문화와 리더십에 대한 불만
- 업무 환경의 열악
- 워라벨
- Burn Out
- 우울증
- 업무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교수 1명이 떠나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떠나는 것이다.**

MEMO

Academia 로서의 의대 교수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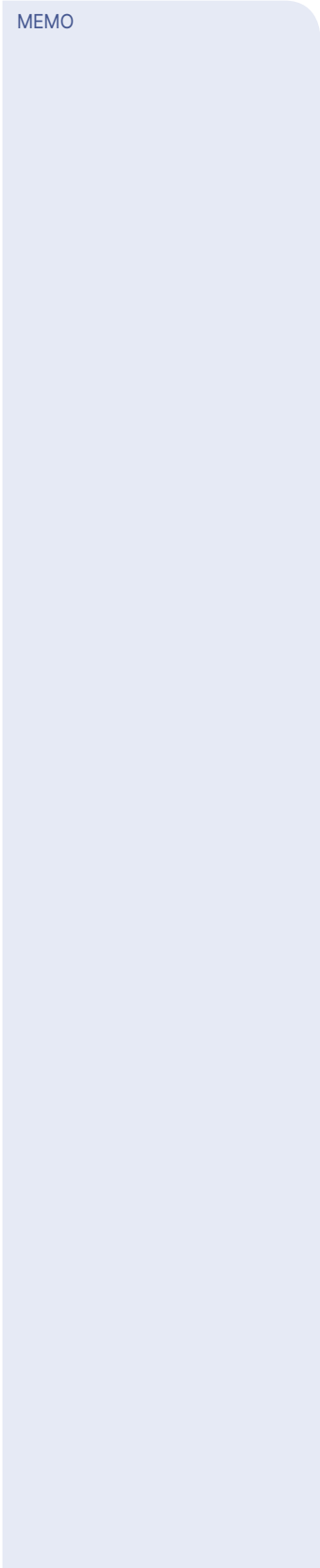
- 의대 교육, 레지던트 수련, 대학원 박사 과정의 축적된 경험
- 해외 연수 경험
- 연구 수행 경험과 know-how 및 학술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 경험
- 교육 참여의 경험과 know-how
- 현재 학생들 과의 관계 / 졸업생들 과의 관계
- 현재 대학원생들 및 Lab 연구원들의 논문 지도 및 관계
- Lab 연구원들의 논문 지도 및 관계
- 국내, 해외 연구자들 과의 네트워크
- 행정 및 리더십 경험, 부서 및 기관 안에서 가졌던 상징성과 의미
- 사회적 네트워크

어떻게 가장 우수한 인재가
Academia 안으로
들어오고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레지던트, 대학원생, fellow, Junior, Senior 교수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 I. 개인
- II. 부서
- III. 기관
- IV. 의료계, 국가 차원



MEMO

**바다 전체를 꿀일 수는 없다
선택하고 집중하고 포기하라**

Ethan Rasiel

I. 개인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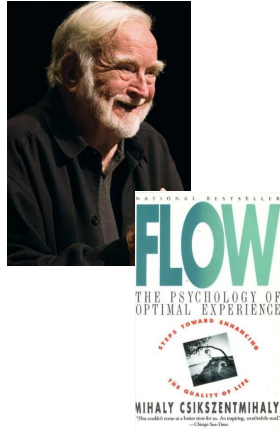
1. 자신의 몰입 대상 확인과 개발

나는 언제
내가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가?

나는 언제 무엇에
몰입하게 되는가?

몰입 (immersion, flow) (M. Csikszentmihalyi)

- 자의식이 사라질 만큼 어느 것에 심취되는 것
- 머리 속의 생각과 목표, 행동 등 모든 정신활동이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
- 시간이 흐르는 것을 완전히 잊어 버릴 수 있게 해주며 무아지경의 경지에 빠진 채로 자신의 정신역량을 대상에 100%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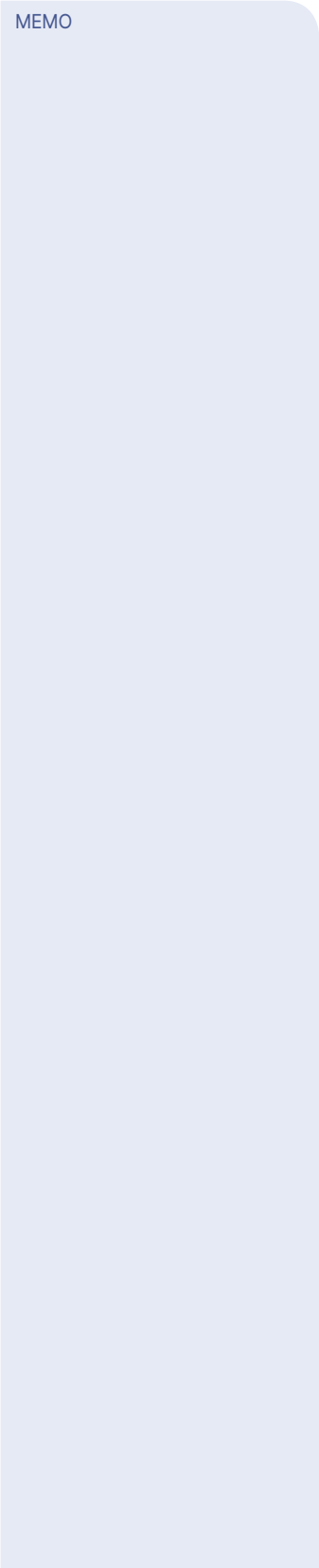


MEMO

내가 몰입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의대 교수는 자기 활동에
몰입할 수 있을까?

교육 및 강의 / 연구 / 환자 진료 / 리더로서의 활동



재미있고 신난다면.....

- 호기심, 상상력, 도전에 의한 “게임 의식” 필요
- 정교수 승진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수
- 그러면서 자신만의 Big Story 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

→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필요하다.

2. 새로운 의대 교수의 정체성 수립 (책임성)

* 의대 교수의 정체성?

- 의학 전문가 (Academic Expert)
- 임상 의사 (Clinician)
- 연구자 (Researcher)
- 교육자 (Educator)
- 멘토 및 지도교수 (Mentor and Advisor)
- 지식 확산자 (Knowledge Disseminator)
- 행정가 (Administrator)
- 사회적 리더 (Social Lea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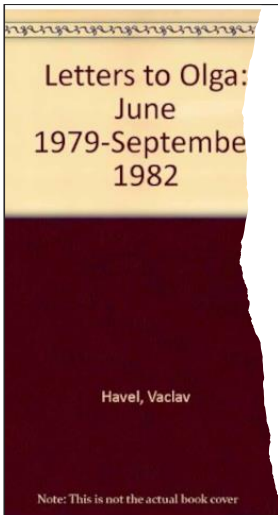
의대 교수의 정체성 ?

- 기득권자 ? vs 혁신가 ?
- 시장점유율만 이야기하는 기업은 결국 새로운 혁신 기업에 의하여 퇴출된다.
- 연구와 교육에 뛰어드는 사람은 의사들 중에도 “이단아”들이다.
- “의학적 무지를 주제로 하는 연구 및 교육과정” 운영자로서의 의대교수

MEMO

신대륙을 찾는데 기존 지도를 사용할 수는 없다.

Gary Ham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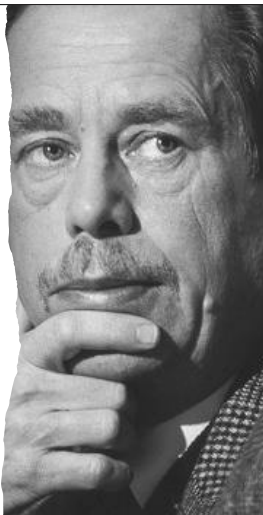
Letters to Olga:
June
1979-September
1982

Havel, Vacla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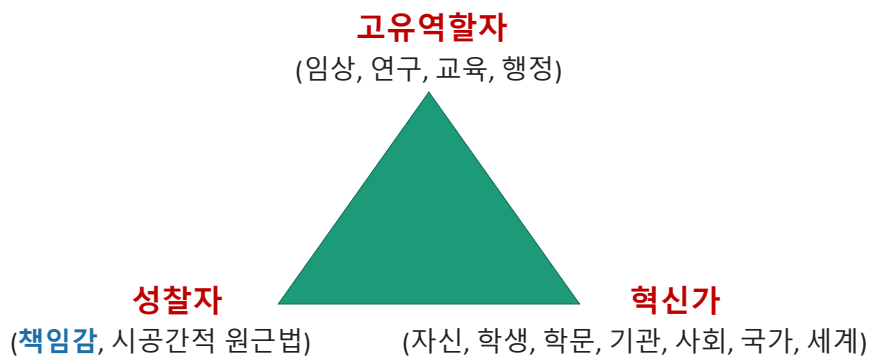
Note: This is not the actual book cover


“책임감은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러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Vaclav Havel <letters to Olga>)



책임감과 혁신 의식으로서의 의대 교수 정체성






WALDEN:
or
Life in the Woods

Henry David Thoreau

**다른 북소리에 행진하는
사람되기**

“If a man does not keep pace
with his companions,
perhaps it is because he hears a
different drummer”

(David Thoreau. <Walden>)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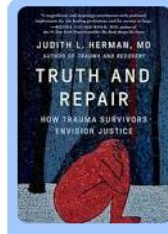
II. 부서 차원

**우리가 존재하는 의대 공간은
우리가 계속 있고 싶은 공간인가?**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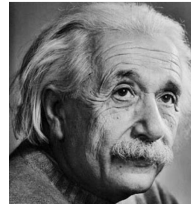
“트라우마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말라고 말한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을 목격한 뒤에는
 최선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곁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Judice Herman, Truth and Repair)



“나는 종종 내 삶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동료들의
 수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고민에 빠진다.
 나는 그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1932년 <나의 신조>



결정적 순간에 교수직에 있게 만드는 힘

• 37,511 명을 대상 설문
 (JAMA. 2023, 12)

- 지지적 리더십
- 동료들의 지지
- 개인-조직간 가치의 일치

JAMA Network **Open.**

Original Investigation | Occupational Health

Well-Being Parameters and Intention to Leave Current Institution Among Academic Physicians

Jennifer A. Light, MD, Nicoletta Goulans, PhD, Jennifer I. Berlin, MD, Steven B. Bird, MD, Charal M. L. R. Brazau, MD, Susannah G. Rowe, MD, MPH, Miriam T. Stewart, MD, Mckey T. Trickett, MD, PhD

Abstract

IMPORTANCE: Physician turnover interrupts care delivery and creates health care system financial burden.

OBJECTIVE: To describe the prevalence of burnout, professional fulfillment, and intention to leave (ITL) among physicians at academic-affiliated health care systems and identify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associated with ITL.

DESIGN, SETTING, AND PARTICIPANTS: This cross-sectional study administered a survey to 37 511 attending-level medical specialists at 15 academic medical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Healthcare Professional Well-Being Academic Consortium.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19 to July 2021.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from May 2022 to March 2023.

Key Points

Question: What proportion of academic physicians intend to leave their current institution within the next 2 years,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leave?

Findings: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of 37 511 academic physicians, approximately one-third reported moderate or greater intention to leave. Burnout, lack of professional fulfillment, and othe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in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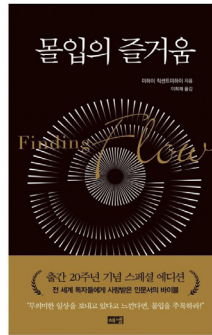
MEMO

1. 동료와의 소속감 및 팀의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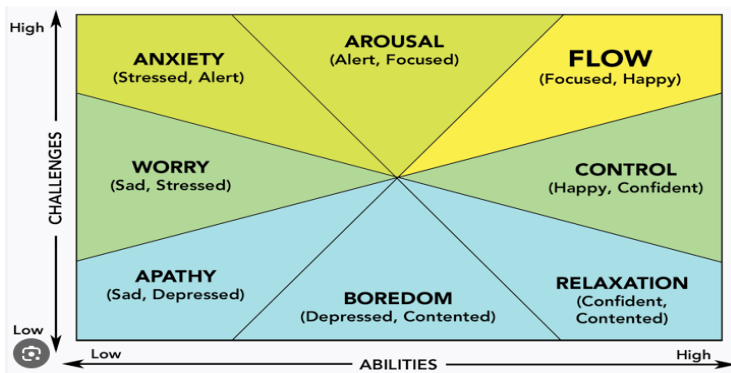
- “우리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는 의식
- “나는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인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다” 는 의식
- 그런 부서가 되도록 협력하는 부서 내 조직문화의 구축
- 부서의 책임자는 그것을 위한 “응원단장”이 되어야 한다.

몰입의 조건

- 1. **목표**가 있을 것
- 2. **피드백**이 있을 것
- 3. 과제와 역량이 **균형**을 이룰 것



(척센트미하이 <몰입의 즐거움>)



13 Strategies to get in Flow-Based On The Latest Research – Steven Kotler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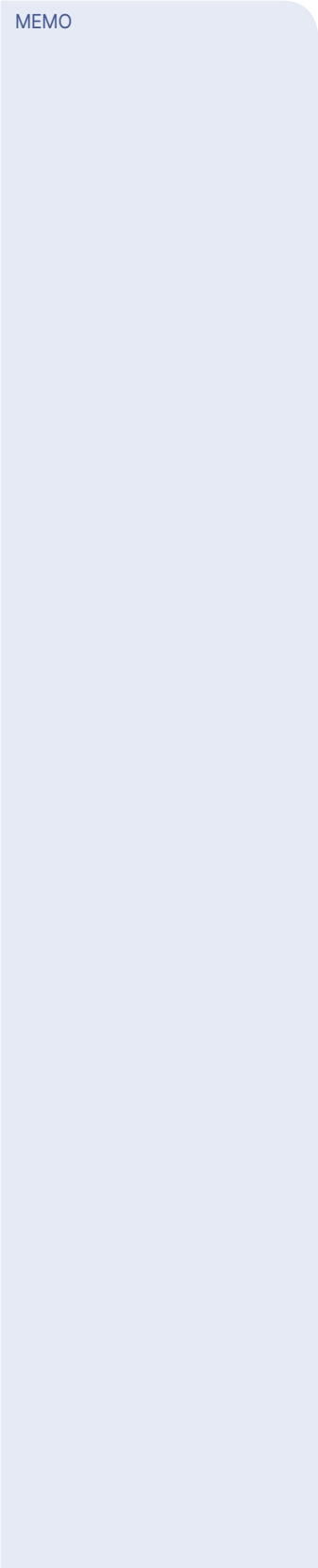
몰입 : 역량과 과업 난이도

역량 *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 하게 해
난이도 ***	
역량 ***	심심함과 지루함, 주의 산만함
난이도 *	
역량 *	배움과 시행착오의 과정. 몰입 안됨
난이도 *	
역량 ***	몰입에 성공하고, 높은 결과물을 보여
난이도 ***	

2. 체계적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학은 본질적으로 역량과 난이도가 충돌하는 도전적 공간이다.
 - 대학은 교수들의 지적 자극과 역량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 대학은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각 영역에서의 과제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이것에서 실패하면 교수가 대학을 떠나든지, 대학이 정체된다.

III. 기관 차원



결정적 순간에 교수직에 있게 만드는 힘

• 37,511 명을 대상 설문
 (JAMA. 2023, 12)

- 지지적 리더십
- 동료들의 지지
- **개인-조직간 가치의 일치**



내가 소속된 의과대학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기관인가?

1. 기관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과 공유함

- “개인과 기관의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함” 이라는 의식이 가지는 힘
- 기관의 정신과 가치가 명확히 가시적으로 표방 되어야 한다.
- 그 가치를 보고 교수(학생)가 그 기관으로 오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 교수들의 전체 프로그램이 중요함 (**Big Story**가 공유되는 자리)
- 자원 배분(예산, 시간)의 우선순위가 그 기관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교수 한 명이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첫 시작이 된다**

2. 인사 원칙과 경력 개발 지원

- 미국과 한국의 군 장성 승진 기준의 차이
- 주요 행정보직자의 준비 과정으로서의 경력 개발 지원
- 연구, 교육, 대외활동의 경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 어디에고 있는 혁신적인 젊은 평교수들이 발굴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 의학교육 전문가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헌신이 필요
행정책임자가 한 순간에 자기 생각만으로 쉽게 뒤집지 않아야

IV. 의료계, 국가 차원

MEMO

통합적인 진지한 논의와 행동

- 현재의 문제는 교수 개인이나 각 대학 단위의 문제가 아니다.
- 전체 의료계, 의학계 Academia 의 공동 논의와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 환자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큰 그림 제시가 필요하다.
- 그 진지한 노력 과정이 가장 의미 있는 차세대 교육 과정이 된다.

마무리 지으며

“그래도 현실은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데 ?”

The aerodynamic body of
bumblebees is not fit to
fly, but it's good that the
bumblebee doesn't know
about it.



APIS MELLIFICA

기조강연 I

변화하는 의료와 의학교육 환경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미래

나 상 훈

서울의대 순환기내과/의학교육연수원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90-1996	의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2004-2009	임상약리학

경력 사항

1996	서울의대 졸업
2000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전문의
2005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
2005-2009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심장내과 조교수
2009-2018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순환기내과 조교수-부교수
2018-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순환기내과 부교수

20세기 초, 플렉스너 보고서(Flexner Report, 1910)는 의학교육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근대적 의료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 특히 2000년, Ronald Harden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의과대학 교수의 다양한 역할을 총 12가지 역할(12 roles of the medical teacher)로 정리하였고, 이를 6개의 핵심 영역(six core areas)으로 체계화하였다. 6개의 핵심 영역(six core areas)과 12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Information provider : Lecturer, Clinical or Practical teacher (교실과 임상 환경에서의 정보 제공자), (2) Role model: On-the-job, Teaching (실제 업무 현장과 교육에서의 역할 모델), (3) Facilitator: Mentor, Learning facilitator (멘토와 학습 촉진자), (4) Assessor; Student assessor, Curriculum evaluator (학생 평가자와 교육과정 평가자), (5) Planner; Curriculum planner, Course organizer (교육과정 계획자, 교과과정 조성자), (6) Resource developer; Study guide producer, Resource material creator (교육 지침 생산자, 교육 자료 개발자). 이 구조는 교수자의 다양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후 약 20년간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있었고 이에 Ronald Harden은 2018년 기존의 6가지 핵심 영역(12가지 역할)을 통합하여 보다 현대적인 틀로 재구성한 8가지 역할(8 roles of the medical teacher)을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교수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 교육철학의 통합을 반영한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8가지 역할에는 교실 및 임상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코칭하는 '정보 제공자 및 코치(Information provider and coach)',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촉진자이며 멘토(Facilitator and Mentor)', 교육과정과 개발과 적용을 하는 책임지는 '교육과정 계획자(Curriculum Developer and Implementer)', 학습성적을 전문적으로 평가 하고 진단하는 평가자(Assessor and Diagnostician)', 학생과 동료에게 모범이 되는 '역할 모델(Role model)', 교육 과정 전반을 조정하고 리드하는 리더 (Manager and Leader),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학자 및 연구자(Scholar and Reasercher), 윤리와 전문성을 항상 연마하는 전문가(Professional)가 있다.

12가지 역할 (6가지 영역)과 통합되고 재조정된 8가지 역할은 그림1과 같이 도식화 할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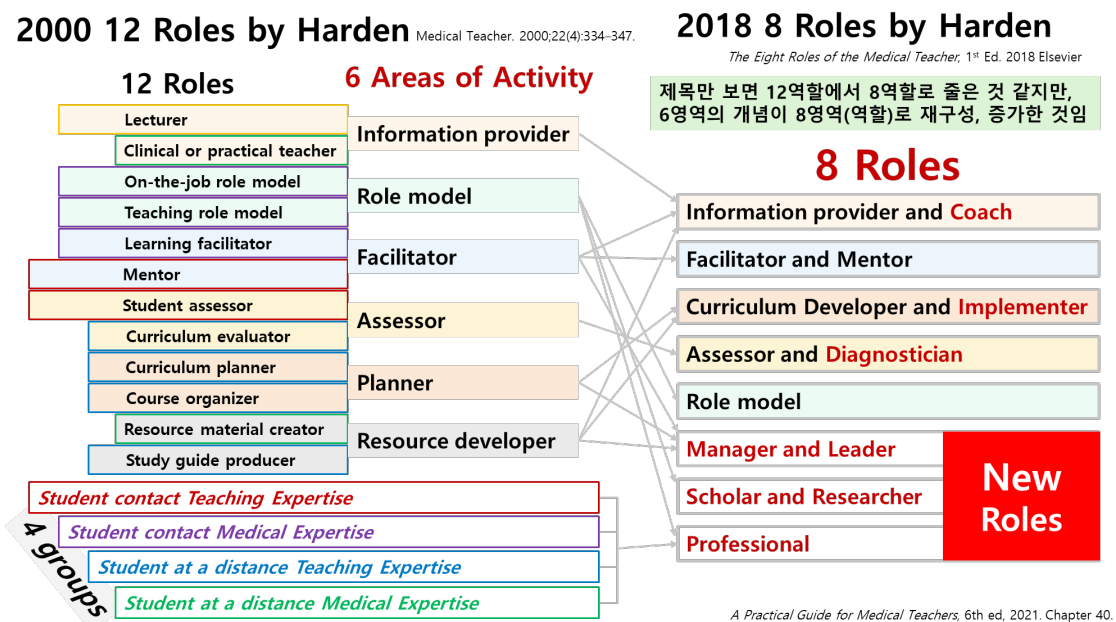


그림 1. Ronald Harden의 2000년 12가지 역할(6가지 영역)과 2018년 8가지 역할의 비교

이와 같은 교수 역할의 변화는 교육과정 개발, 임상교육, 학생평가, 교수역량 개발 등 의학교육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재정의를도 불구하고, 최근 COVID-19 팬데믹(2020~2023), Health Systems Science(HSS)의 등장, Programmatic Assessment의 확산,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정 갈등 등은 의과대학 교수가 직면한 현실적 도전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의학교육 환경에서는 교수의 역할이 단순한 강의자나 연구자에 머무르지않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시(AI literacy)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가를 설계하며, 학제 간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변화의 설계자이자 건강시스템의 리더이자 전문가인 Role model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전문직의 교육자로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유연한 전문가(flexible expert)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발제에서는 Harden의 12 Roles와 8 Roles를 중심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의 미래상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의료와 의학교육의 어떤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가?
기존 의대교수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다가오는 10년, 우리는 어떤 교수의 역할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논의가 청중 여러분과 함께 의과대학 교수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의 의료와 의학교육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MEMO

MEMO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그랜드볼룸

정책대토론회 I

비상시국 상황에서 의사, 의학교육 그리고 교수

사회 | 정은경 (전남의대)

좌장 | 김성근 (가톨릭의대)

연자 | 노혜린 (인제의대)

정책대토론회 I

비상시국 상황에서 의사, 의학교육 그리고 교수

김성근

가톨릭의대

학력 정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91-1997	의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2000-2006	외과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2006-2011	외과학

경력 사항

2005. 5-	가톨릭의대 외과학교실 위장관외과 전임의,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21. 8-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PI실장
2024. 4-	가톨릭의대 외과학교실 위장관외과 학과장
2017-	대한외과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 회장
202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교육위원회 위원
2025-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정책대토론회 I

비상시국 상황에서 의사, 의학교육 그리고 교수

노혜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987. 3-1989.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의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의학/외과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의학/외과학

경력 사항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전공의/간담체외과 전임의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의학교육학교실		2000. 3-2011. 8
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인문사회의학교실		2011. 9-
현) 한국의학교육학회 정책이사		
현) 사회과학과 의학교육 연구회 회장		

발제 1: 계엄, 의사, 의학교육 그리고 교수

비상시국이란 전쟁, 사변, 재해 따위로 국가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한 시국을 말한다. 발제자는 최근 비상시국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계엄과 관련하여 의사, 의학교육 그리고 교수의 역할에 대해 발제해보고자 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며 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전공의를 비롯하여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작년의 계엄령과 포고령이 반헌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정책 대토론회 1에서는 네 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계엄을 비롯한 비상 국가폭력 사태에서 의료인이 겪었던 경험을 돌아보고자 한다. 이때 의사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했는가? 둘째, 대한민국 계엄 역사를 돌아보고 이번 12.3 계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 사회적 문제까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셋째, 의료인 처단이라는 포고령이 내린 비상시국 상황에서 지식인인 의대 교수는 교수답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의 교수는 잘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었는가? 넷째, 계엄이 해제되었고 대통령이 탄핵되었어도 의료계엄 상황은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계엄과 관련한 교수의 활동은 어떠하였나?

이번 발제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과연 교수는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인가? 정부의 지시에 복종하는 하부 피고용인인가? 아니면 의학 전문직으로서 전문 지식인인가? 의정갈등이 심각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교수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교수개발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 답변이 대토론회에서 나오기를 기대한다.

발제 2: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 전공의 없는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지원 사업’을 병원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책 대토론회2에서는 이러한 수련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중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 사업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의학교육자 관점에서 짚어 보고, 전공의교육을 위한 조직 구성과 필수 인력의 역할 및 업무를 역량바탕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전공의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임상교육자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교육전문성 개발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즉, 바람직한 전공의교육을 위해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 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전공의교육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에메랄드A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대교수로 살아간다는 것: 교육적 정체성의 길

좌장 | 김장영 (연세원주의대 학장)

연자 | 김정란 (충남의대 학장)

패널 | 백무준 (순천향의대 학장)

윤보영 (인제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대교수로 살아간다는 것: 교육적 정체성의 길

김장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사	1988. 03-1994. 02	의학
연세대학교	석사	2002. 03-2004. 08	의학/내과
연세대학교	박사	2004. 09-2007. 02	의학/순환기

경력 사항

1994. 3-1999. 2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턴, 전공의
2002. 5-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구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11. 9-2013. 6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환교수
2021. 3-2023. 2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기획조정실장
2025. 2-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대교수로 살아간다는 것: 교육적 정체성의 길

백 무 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순천향대학교	학사	1988	의학
충남대학교	석사	1999	생리학
순천향대학교	박사	2003	외과학

경력 사항

2024-현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장
2018-2023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부원장
2022-2024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2023-2024	대한대장항문학회 부회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대교수로 살아간다는 것: 교육적 정체성의 길

윤보영

인제의대

학력 정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91. 03-1997. 02	의학
인제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2000. 03-2002. 02	내과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2004. 09-2009. 02	내과학

경력 사항

2013. 08-2015. 01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Georgia, College of Education
2022. 03-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위원
2022. 09-2024. 08	한국의학교육학회 총무이사
2024. 08-현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사무총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과대학 교수 정체성의 완성 과 흔들림

김정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87. 3-1993. 2	의학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7. 3-1999. 2	의학/정신과학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9. 3-2002. 2	의학/정신과학

경력 사항

2002. 6-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12. 5-2013. 4	Duke Medical Center, Visiting Professor
2021. 12-2023. 11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2023. 12-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2017. 3-현재	세종광역치매센터, 센터장

교수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의과대학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정 전문 영역을 가르치고 자신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게 된다. 자신의 특정 전문 영역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의학에서는, 특히 임상 영역에서는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대부분 임상 분야 전문의이면서 교수이다.

교수 임용 초기의 대부분 의과대학 교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의로서 완벽함과 완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생에게 지식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교수 정체성은 의과대학생의 선배에 가깝다.

임용 후 10년 정도에 교수들은 연구 영역이 안정화되고 임상 분야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의학적 경험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과 관계 설정 등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교수 정체성은 말 그대로, 유능한 교수이다.

정년 퇴임을 10년 이내로 남겨놓은 의과대학 교수는 비로서 자유로운 정체성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와 전문 영역에 대한 겸손과 균형적 시각, 그리고 인생의 철학이 통합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교수 정체성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의 정체성의 획득은 우리 삶의 단계처럼 단계별로 직면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그 과정에서 내적 흔들림을 경험하고 조금씩 성숙하면서 인생을 완성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거문도A

심포지엄 및 세미나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좌장 | 이훈재 (인하의대 학장)

연자 | 임선주 (부산의대)

패널 | 이근미 (영남의대)

임범진 (연세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이 훈 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학력 정보

인하대학교	의학사	1987~1993	의학
서울대학교	보건학석사	1995~1998	보건학
한림대학교	의학박사	2000~2003	의학

경력 사항

- 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 현,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 위원
- 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 현,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이근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84. 3-1990. 2	의학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3-1995	의학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7-2001	의학과

경력 사항

2020. 2-현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과장
2025. 2-현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2025. 1-현재	한국 의학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 대외협력이사
2016. 3-현재	(재)한국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인증기준위원
2022. 1-현재	대구·경북 임상수행평가컨소시엄 위원장
2023. 3-현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2023. 12-현재	대한비만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2024. 3-현재	대한가정의학회 고시이사
2023. 9-현재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임 범 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학사	1993.3-1999.2	의학
연세대학교	석사	2000.9-2002.8	의학
연세대학교	박사	2002.9-2008.8	의학

경력 사항

2007-2009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전임강사
200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22-2024	연세의대 기본의학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2023-2024	연세의대 동곡의학교육원 교육개발센터장
2024-	연세의대 동곡교육중점교수
2024-	연세의대 교육부학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임 선 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95. 3-2001. 2	의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2002. 3-2004. 2	의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2006. 3-2009. 2	소아청소년과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수료	2009. 3-2013. 2	교육학
미국 일리노이 의과대학	펠로우십	2017. 7-2019. 7	의학교육학

경력 사항

2006. 2	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학 전문의 취득
현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현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장
2013. 2-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 문항심의위원, 전문위원
2013-2016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서면·방문평가위원
2024-현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문위원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부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임선주

목차

- Part 1. 의학교육의 목적으로서 가르침의 의미
- Part 2. 교수인 우리는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 Part 3.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문제 제기

- 우리는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 우리는 왜 대학에 남아 학생을 가르치는가?

MEMO

Part 1.

의학교육의 목적으로서 가르침의 의미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 의학의 발전을 위해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의사
- “교육은 인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다.” — R.S. Peters
 - **의학교육은 환자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실력 있는 의사를 기르는 일**
- 교수의 역할: 학생이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 의료시스템과 공동체를 지켜낼 다음 세대의 책임감 있는 전문가
- “교육은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다.”— Hannah Arendt
 - **의학교육은 의료라는 자산을 지켜갈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
- 교수의 역할: 학생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자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의 발전을 위해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승하고 혁신할 차세대 연구자와 임상가
- “교육은 인간이 지식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도록 돕는 것이다.”— Paulo Freire
 - **의학교육은 과거를 계승함과 동시에, 의료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활동**
- 교수의 역할: 학생에게 지식 뿐만 아니라 창의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

Part 2.

교수인 우리는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MEMO

교수로서 교육의 어려움

- 진료와 연구에 대한 부담
- 새로운 교수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부담
- 가르침이 곧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의 회의감
- 항상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반성해야 하는 고된 여정
- 때로는 '왜 이 길을 택했는가' 다시 묻게 되는 순간들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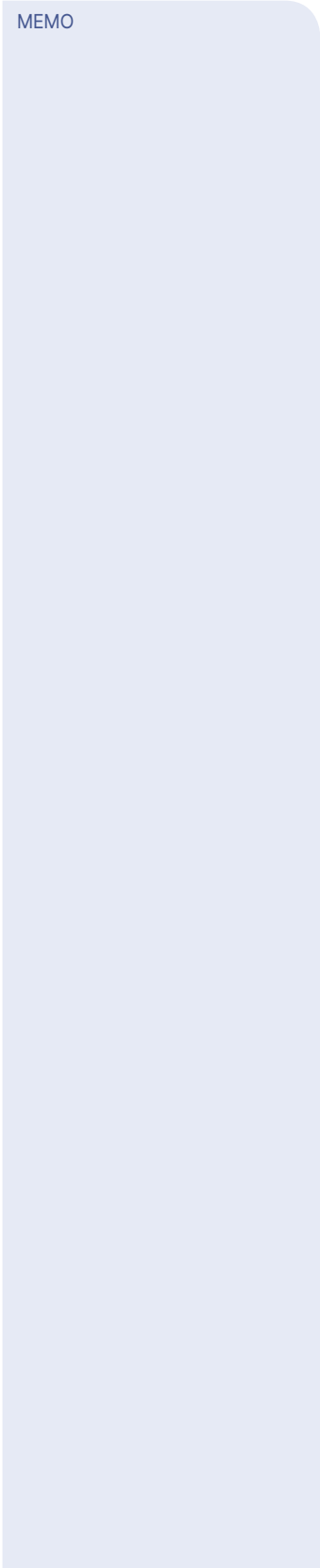
교육의 즐거움과 보람

- 학생의 성장을 목격하는 기쁨
- 학생의 질문과 시선에서 나를 돌아보게 됨
- 나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가르치지만
- 나 또한 학생과 함께 '성장한다'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교육의 즐거움과 보람

-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함께 탐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John Dewey
 -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
- 교수의 역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동반자



MEMO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교육은 관계다

- 교육은 학생과의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짐
- “교육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Martin Buber
 - **교수와 학생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관계**
- 교수의 역할: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배움도 이루어짐

Part 3.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무너진 신뢰 속에서

- 학생과 전공의들이 떠났던 시간
- 교수들은 제도의 일부로 비쳤고
-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과 한계를 느끼게 됨

MEMO

그래도 교육은 계속된다.

-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권위나 위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성장 가능한 존재로 믿기 때문에

- 당부, 훈계, 기대없이
- 지지하고 믿는 것
-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Jakob Fromm
 - 의학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속도로 자라날 것을 신뢰하는 일
- 교수의 역할: 학생을 성장 가능성의 존재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

왜 학생을 가르치는가? 의학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가르치는 이유	설명	관련 인용	의학교육의 본질	교수의 역할
실력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의사	“교육은 인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다.” - R.S. 피터스 (R.S. Peters)	환자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실력 있는 의사를 기르는 일	학생이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
후계자 양성을 위해	- 의료시스템과 공동체를 지켜낼 다음 세대의 책임감 있는 전문가 - ‘나 하나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 함께 일할 후배와 동료를 길러내는 책임 - 교육은 나의 전문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식	“교육은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다.” - 헤나 아렌트 (Hannah Arendt)	의료라는 자산을 지켜갈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	학생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자
의학의 발전을 위해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승하고 혁신할 차세대 연구자와 임상가 -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수가 아니라, 창의성의 불씨를 키우는 일	“교육은 인간이 지식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도록 돕는 것이다.” - 파울로 프레이리 (Paulo Freire)	의학교육은 과거를 계승함과 동시에, 의료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활동	학생에게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
교육의 즐거움과 보람	- 학생의 성장을 목격하는 기쁨 - 학생의 질문과 시선에서 나를 돌아보게 됨 - 나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가르치지만 나 또한 함께 성장함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함께 탐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 존 듀이 (John Dewey)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동반자
교육은 관계다	- 교수와 학생 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본질을 강조 -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상호 성장이 핵심	“교육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 마틴 부버 (Martin Buber)	교수와 학생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관계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배움도 이루어짐
성장 가능한 존재로 믿기 때문에	- 당부, 훈계, 기대 없이 - 지지하고 믿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 야코브 프롬 (Jakob Fromm)	학생이 자신의 속도로 자라날 것을 신뢰하는 일	학생을 성장 가능성의 존재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오동도

심포지엄 및 세미나

논문작성과 심사를 위한 워크숍

연자 | 박귀화 (가천의대)

윤소정 (부산의대)

박경혜 (연세원주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KJME(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논문 투고와 윤리

박귀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중앙대학교 박사 2006.3-2012.2 교육학/교육심리

경력 사항

2004. 3-2010. 2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
2010. 3-현재	가천대학교 교수
2010. 3-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위원회 위원
2011. 3-2017. 8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간사
2017. 9-2022. 8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간사
2022. 9-현재	한국의학교육학회 간행간사

본 발표는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KJME)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의학교육 연구자들을 위한 실천적 지침과, 투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들을 다룬다. KJME는 국내 대표적인 의학교육 전문 학술지로서, 1989년 창간되어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 발간되고 있다. 현재 SCOPUS, MEDLINE/PubMed, PubMed Central 등 주요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으며, 보건의료 전문직 교육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주제—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평가, 교육 정책 및 관리 등—를 다룬다.

KJME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및 학술지 투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IRB 승인 여부, 유사도 검사 (iThenticate), ORCID 기입, 익명성 유지, 제출 형식 준수 등은 데스크 리뷰 단계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자 자격(authorship) 기준, 중복출판 및 이차출판과 같은 주요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투고자는 최신 저자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출판 이후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corrigendum 또는 erratum을 통해 논문을 공식적으로 정정함으로써 학술적 정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본 발표를 통해 참가자들이 KJME의 투고 및 심사 체계를 이해하고, 연구윤리의 관점에서 투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신뢰받는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2025년도 의편협 동계논문작성 워크숍 자료집. 서울: KAMJE.

심포지엄 및 세미나

논문심사와 리비전

윤 소 정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부산대학교 박사 2022. 3-2006. 2 교육심리

경력 사항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분원장
한국의학교육학회 부편집위원장

논문심사와 리비전 시간에는 논문 심사와 리비전(수정) 과정의 중요성과 실제적 절차를 다룹니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자는 저널 가이드라인 준수, 기밀 유지, 논문의 각 섹션에 대한 체계적 평가, 적절한 통계 분석 검토, 그리고 명확하고 전문적인 피드백 제공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리비전 과정에서 감사의 표현과 함께 문장별로 피드백에 응답하고, 수정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는 "Reviewer-friendly"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통적 동료심사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심사의 일관성 부족, 심사자의 편향, 기간 지연, 질적 편차, 투명성 부족, 심사자 과부하 등이 지적되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AI 기반 리뷰 시스템에 대한 전망도 소개됩니다. 논문 심사와 리비전은 연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저자와 심사자의 협력 과정입니다.

심포지엄 및 세미나

논문 작성과 심사에서 AI 사용의 윤리적 고려사항

박 경 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사	2003년 졸업	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7년 취득	응급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2012년 취득	응급의학

경력 사항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008년 전문의 취득)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 (~2009년 2월)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기금전임강사 (~2011년 8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 (~2017년 2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17년 3월~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육부학장
한국의학교육학회지 편집간사, 대한응급의학회 윤리위원, 수련질향상위원회 부위원장, CEEM 간행위원, 대한의료 커뮤니케이션학회지 심사위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러 학문 분야의 논문에서 AI 사용을 밝히고 있다. ChatGPT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이며, 주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장 수정이나 영문법 수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연구와 논문 출판과 심사에서는 윤리적 절차와 진실성이 중요하므로, AI 사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권장된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는 커버 레터와 제출되는 논문 원고에서 적절한 부분에 AI 사용을 밝힐 것을 권유하고 있고, 출판윤리위원회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도 원고 초안 작성, 원고의 내용을 표나 그림으로 만들 때, 결과 분석 작업 등에 대해서 초록이나 방법, acknowledgement에 밝히도록 권유하고 있다. 현재 의학교육 분야 저널은 Medic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BMC Medical Education 등에는 저자 가이드라인에서 따로 AI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학회지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에서는 따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ICMJE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ICMJE, COPE, 여러 의학교육학술지의 저자 가이드라인을 요약해보면 AI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커버레터와 제출된 원고의 적절한 부분에 AI 사용 여부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밝힌다.

작성에 도움을 받았는지(문법, 영어 교정 등), 초안을 성성할 때 사용하였는지 (이때는 특정 프롬프트 표나 삽화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텍스트를 공개)를 Acknowledgement에 밝힌다. 영어 철자 확인 같은 흔한 것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림 생성 여부는 방법 (가능하면 초록에서도)에서 밝힌다.

특정 저널에서는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금지하고 있다.

편집이나 자동 내용 생성은 금지하고 있다.

어느 AI 도구를 사용했는지 밝힌다.

Chatbot을 저자나 참고문헌으로 넣을 수 없다.

심사를 의뢰받았을 시에는 논문을 AI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거문도C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사학(의학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연자 | 최은경 (경북의대)

박지영 (인제의대)

정준호 (인하의대)

이규원 (강원의대)

공혜정 (건양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사학(의학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최은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97. 3-2004. 2	의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석사	2006. 3-2008. 2	의사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박사	2008. 3-2011. 8	인문의학

경력 사항

2012. 8-2018. 4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연구교수
2018. 5-2020. 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선임연구원
2020. 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대한의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의료윤리학회 교육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정보이사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사학(의학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박지영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학력 정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2002.3-2008.2	의학
서울대학교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현 과학학과)	이학석사	2009.3-2011.8	과학사(세부전공: 의학사)
서울대학교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현 과학학과)	이학박사	2012.3-2019.8	과학사(세부전공: 의학사)

경력 사항

2008. 3-2009. 2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인턴 수련
2017. 3-2019. 8	연세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기초전공의 조교
2019. 9-2020. 4	경희대학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2020. 5-2020. 7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선임연구원
2020. 9-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사학(의학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정준호

인하대학교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박사	2016-2020	인문의학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석사	2007-2008	Medical Parasitology
University of Bath	학사	2004-2007	Molecular Biology

경력 사항

2024. 03-현재	인하대학교 인하융합연구원 연구중점교수 (의학교육 및 의료인문학교실)
2021. 09-2024. 02.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
2013. 04-2014. 05	(사)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사무장 (KOICA 열대질환사업 담당)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사학(의학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 규 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학력 정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이학사)	2000. 3~2005. 8	생명과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졸업(이학석사)	2005. 8~2007. 8	기능유전체학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2008. 3~2011. 2	의과학(약리학교실)
서울대학교	졸업(의학박사)	2015. 3~2017. 2	의사학(인문의학교실)

경력 사항

2018. 5~2019. 3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연구원
2019. 3~2019. 6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시간강사
2020. 11~2025.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객원조교수
2025. 3~현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조교수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사학(의학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공혜정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학력 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사	1988-1992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석사	1992-1995	역사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MA	1996-2011	역사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2013-2016	의학사, 인문의학

경력 사항

2016. 08-2019. 02	고려대학교 CORE사업단 연구교수
2019. 02-2025. 03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특임조교수
2025. 04-현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특임부교수

의사학(의학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2025.05.15. 제41회 의학교육학술대회 워크숍 세션

최은경, 경북의대, 의학사 및 의료인문학
박지영, 인제의대, 의학사 및 의료인문학
정준호, 인하의대, 의학사 및 의료인문학
이규원, 강원대의대, 의학사 및 의료인문학
공혜정, 진양의대, 의학사 및 의료인문학

MEMO

워크숍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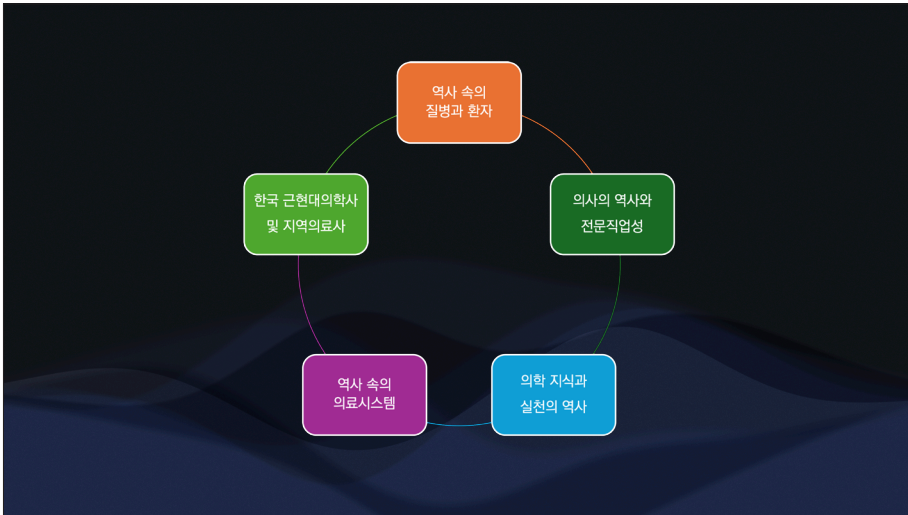
시간		
14:00-14:30	의사학 학습성과 소개 및 워크숍 안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최은경
14:30-14:40	조 분배 및 아이스브레이킹	퍼실리테이터
14:40-15:10	의사학 수업계획서 설계해 보기	퍼실리테이터
15:10-15:30	의사학 수업계획서 피드백	퍼실리테이터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집

- 대한의사학회에서 2021년 교육위원회 설치,
- 2023년 교육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로서 학습성과 개발 위원회를 둠
-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 개발을 시작
- 2025년 2월 마무리
- <https://www.medhist.or.kr/notice/?id=197&mode=view&page=1> 에서 다운 가능함
- 목적: 의사학을 교육할 때 일종의 안내자 역할



MEMO



[영역 1]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최종학습성과	질병과 장애가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다. 생로병사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면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p>질병과 장애 인식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고통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역사적 낙인과 차별을 인지하고 의사로서 바람직하게 대응 할 수 있다.</p> <p>생로병사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 대응의 주체에 따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료에 적용할 수 있다.</p> <p>역사 속에서 질병과 건강에 관여하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를 이해하고, 의학 기술의 발전, 질병 부담 간의 상호작용과 그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p> <p>질병 유행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환자, 생체, 병원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p>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최종학습성과

“질병과 장애가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다. 생로병사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면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각각의 사회는 고유한 질병과 장애의 경험을 가진다는 점을 이해
- 질병과 장애의 역사적 궤적이 현재의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실행학습목표(1)

“질병과 장애 인식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고통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역사적 낙인과 차별을 인지하고 의사로서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질병 경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이해
-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고통에 공감

예: 페스트, 결핵, 콜레라, HIV/AIDS,...

MEMO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실행학습목표(2)

“생로병사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 대응의 주체에 따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료에 적용할 수 있다.”

- 생로병사에 대한 관점이 역사적으로, 또한 다양한 문화권과 사회 속에서 유동적이며 다양하게 존재해 왔음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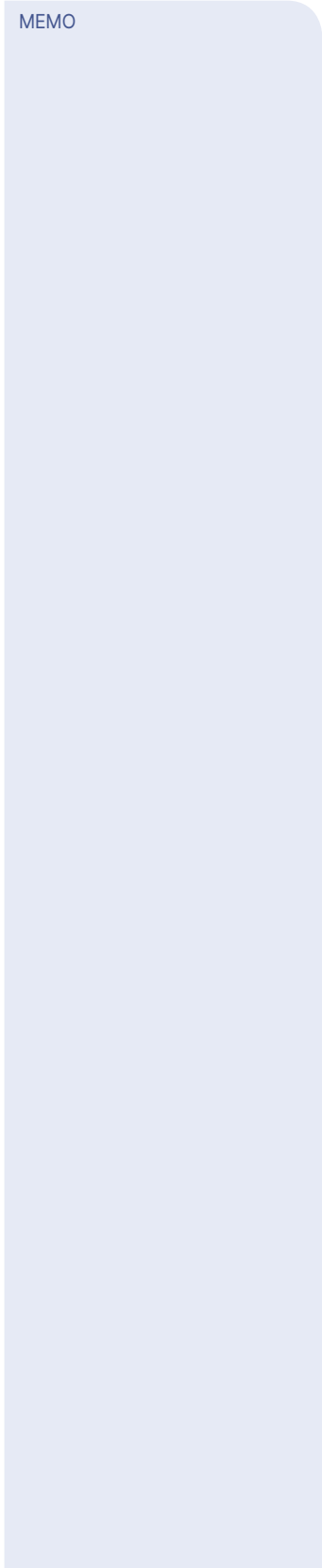
예: 병 개념의 변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실행학습목표(3)

“역사 속에서 질병과 건강에 관여하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를 이해하고, 의학 기술의 발전, 질병 부담 간의 상호작용과 그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 근현대 질병 부담의 변천과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거시적으로 살펴

예: 결핵의 감소, 항생제 저항성,...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실행학습목표(4)

“질병 유행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환자, 생태, 병원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생태적 조건의 변화와 질병 유행 양상의 변화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조망
- 예: 신종전염병, 페스트,...

[영역 2]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최종학습성과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발현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면허제도의 성립 과정을 통해 의사, 국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의사-사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 온 다양한 역할을 이해한다.
	의사와 다른 직종의 치유자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가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최종학습성과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발현할 수 있다.”

-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성장해 온 역사적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의사와 사회, 의사와 타 보건의료 직종 사이의 관계를 이해
- 전문직업성을 보호·개발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사회적 책무 도출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실행학습목표(1)

“면허제도의 성립 과정을 통해 의사, 국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면허 제도 획득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진료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수행하게 된 사회적 책무를 이해

MEMO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실행학습목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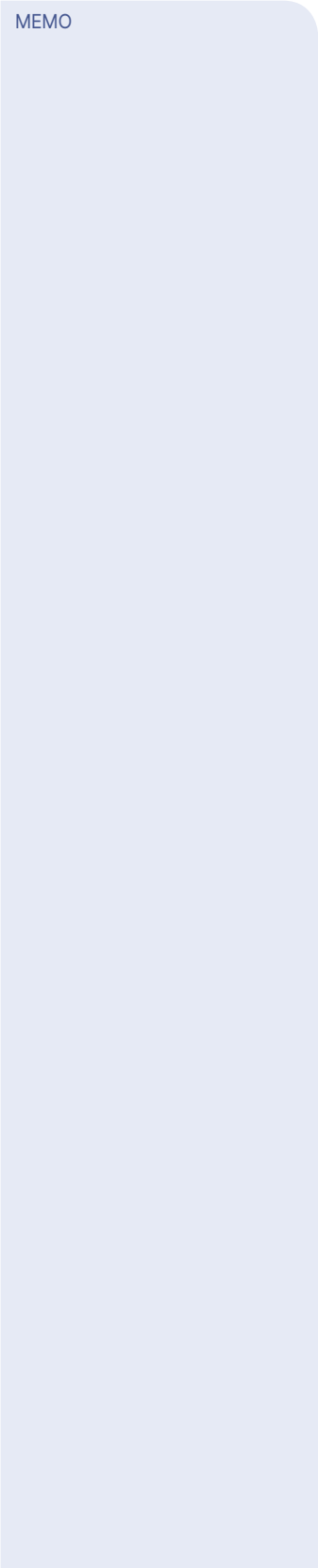
“의사-사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 온 다양한 역할을 이해한다.”

- 근대 이래 의사가 주도해 온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살펴으로써 의사 과학자, 지역사회 보건의 리더, 보건의료 활동가 등 의사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실행학습목표(3)

“의사와 다른 직종의 치유자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가변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의사가 다른 직종 치유자들과 과거부터 맺어 온 상호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호관계 구성



[영역 3]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최종학습성과	의학 지식과 기술이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 변화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학 지식과 기술의 변동을 가능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역사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의학 지식에 내재된 신체관과 질병 관의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해부병리학적 질병관과 생리학적 질병관의 형성 과정, 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의학 지식의 역사적 발전과 그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생의학(biomedicine)의 사회적 특징과 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진료 도구 및 의과학 기술의 등장과 발전의 역사·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최종학습성과

“의학 지식과 기술이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 변화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학 지식과 기술의 변동을 가능할 수 있다.”

- 새로운 의학 지식의 발견과 발전이 당연한 내재적 과정이 라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과 교류하면서 구성되었음을 이해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실행학습목표(1)

“역사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의학 지식에 내재된 신체관과 질병관의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해부병리학적 질병관과 생리학적 질병관의 형성 과정, 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신체관과 질병관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 질서의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학습
- 예: 마음-신체 이원론, 다양한 질병관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실행학습목표(2)

“의학 지식의 역사적 발전과 그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의과학 지식 발전의 전기가 된 사건들과 그 역사 사회적 배경을 이해
- 예: 르네상스 해부학, 파리의 임상의학, 실험실의학,...

MEMO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실행학습목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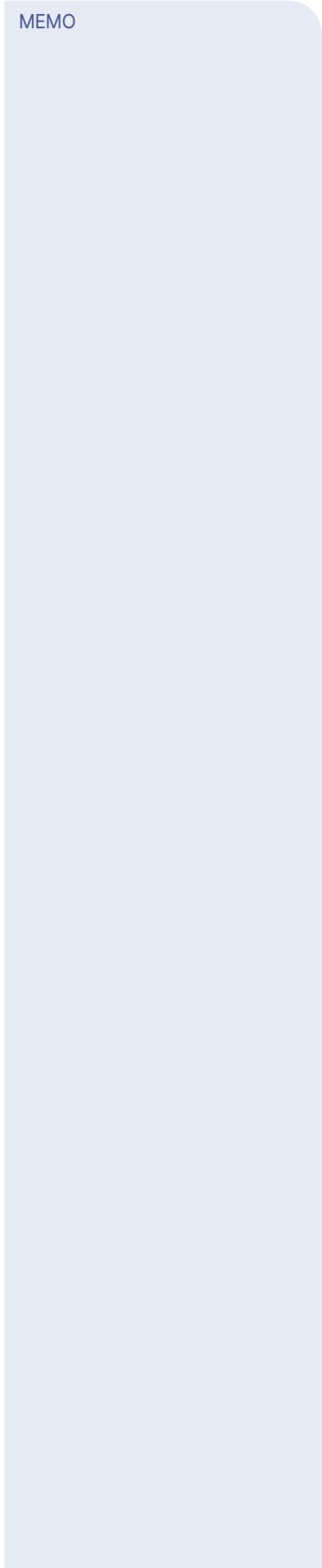
“생의학(biomedicine)의 사회적 특징과 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현대의학은 생의학- 건강 현상은 물리적/생화학적 단위와 정의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음
- 건강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과의 경합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실행학습목표(4)

“진료 도구 및 의과학 기술의 등장과 발전의 역사·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청진기, 백신 등 새로운 진료 도구가 당대 의료를 어떻게 바꾸었고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 예: 청진기, 백신,...



[영역 4]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최종학습성과	병원과 의료제도 등 보건의료 체계를 둘러싼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체계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의료기관, 의료 제공 및 이용 양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의약품 관리, 공중보건, 의료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복지 제도의 역사적 등장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의학 연구 및 교육 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사회, 국가, 시장,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최종학습성과

“병원과 의료제도 등 보건의료 체계를 둘러싼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체계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 보건의료를 둘러싼 각종 기관과 제도의 역사 속에서 의료와 사회가 맺어온 불가분의 관계와 그 결정 요인을 이해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실행학습목표(1)

“의료기관, 의료 제공 및 이용 양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각 의료 기관이 환자를 비롯한 일반 인구의 의료 수요를 어떻게 충족해 왔는지를 습득
- 예: 병원, 약국, 종교기관...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실행학습목표(2)

“의약품 관리, 공중보건, 의료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복지 제도의 역사적 등장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현대 사회에서 정부(국가)가 보건의료 영역에 갖는 중요성을 인지, 다양한 보건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습득

MEMO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실행학습목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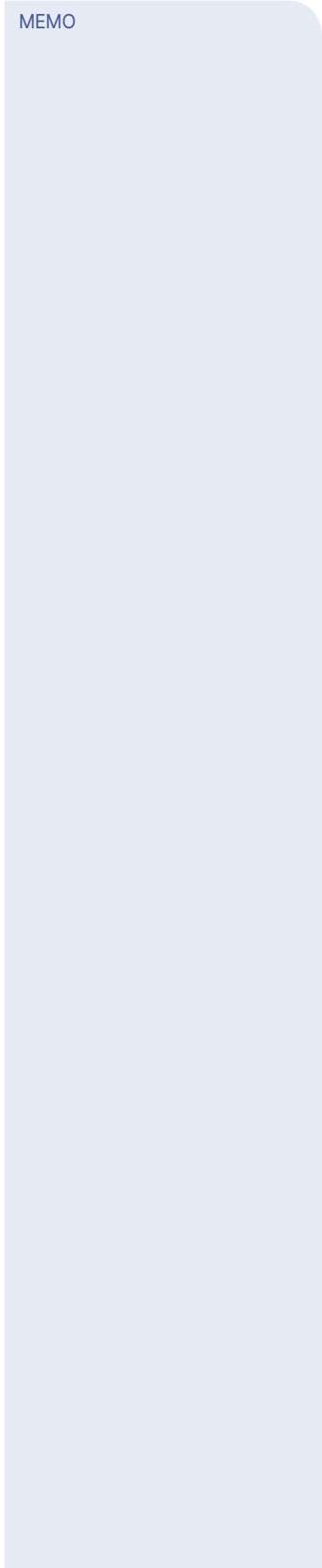
“의학 연구 및 의학교육 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 오늘날 의학 연구와 교육은 정부, 정책담당자, 재단 및 연구기금, 교육자, 의료인, 환자 등 수많은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복합체
- 의학 연구와 교육이 제도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모되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사회적 산물임을 이해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실행학습목표(4)

“사회, 국가, 시장,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오늘날 의료인들이 환자의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고려하게 된 연유를 사회, 국가 및 시장,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학습함
- 전통적인 의료인의 정체성과 달라진 점을 이해



[영역 5] 한국 근현대 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최종학습성과	한국 의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한국 전통 사회의 의료를 이해하고, 특징과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서양의학 도입 과정을 이해하고, 특징과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가 한국 의학에 남긴 상흔과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의료의 변화를 이해하고, 해결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건강 및 의료 이용 양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해결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교육 및 의료기관의 역사를 이해하고,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 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최종학습성과

“한국 의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 한국 의료의 변화-시대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의료 및 복지 제도, 의학 지식 생산 및 교육 제도, 질병 발생 양상, 의료 이용 양상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종합적으로 학습

한국 근현대 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실행학습목표(1)

“한국 전통 사회의 의료를 이해하고, 특징과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 전통 의료의 유산 위에 성립된 한국 의료의 성격을 이해
- 전통 의료 역시 나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근대 의료의 형성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실행학습목표(2)

“서양의학 도입 과정을 이해하고, 특징과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 서양의학의 도입을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해
- 서양의학의 도입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전통 의학 역시 나름의 근대성을 획득하였음을 이해

MEMO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실행학습목표(3)

“일제강점기가 한국 의학에 남긴 상흔과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 식민성과 근대성이 남긴 유산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식민성과 근대성의 두 측면이 교차하여 창출한 복합적인 현실을 이해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실행학습목표(4)

“해방 이후 한국 의료의 변화를 이해하고, 해결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현대 한국 의료는 현대 한국 특유의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서 식민지의 유산을 발판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

한국 근현대 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 실행학습목표(5)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건강 및 의료 이용 양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해결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지역과 집단에 따른 의료 수요와 서비스 형성 및 변화 과정을 고찰
-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대에도 의료 이용의 접근성은 여전히 지역과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

한국 근현대 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 실행학습목표(6)

“자신이 속한 교육 및 의료기관의 역사를 이해하고,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이 소속된 교육 및 의료기관의 지난날과 오늘날을 한국 현대 의료의 흐름, 더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 위치시켜,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찰

워크숍 진행

- 각 조별 ‘의학의 역사’ 1차시 수업 개발(30분)
 - 주제는 조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
 - 자료집 워크시트 만들기
- 조별 결과물 공유 및 피드백(20분)

MEMO



MEMO

의사학 교육워크숍 워크시트 “의사학(의학의 역사)-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수업시기				
수업제목				
수업성과				
형성평가	시행 시기			
	방법			
	항목 수			
참고문헌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소요시간 (분)	주요내용	교수-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전개				
정리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그랜드볼룸

자유연제(1) 의과대학 교수

좌장 | 허영범 (경희의대 학장)

자유연제(1)

의과대학 교수

허영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3. 3-1989. 2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석사	1989. 3-1991. 2	해부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1991. 3-1994. 2	해부학

경력 사항

2015. 10-2019. 10	대한해부학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17. 03-2023. 01	KAMC 의학교육평가사업단 실행위원장
2019. 03-2023. 05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21. 10-2022. 10	대한해부학회 회장
2022. 3. 1-현재	의학한림원 의학교육위원회 위원(간사)
2022. 12-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자유연제 1-1

국내 의과대학 교원의 탈진 현황 및 일과 삶의 균형

김경한, 안준무, 이민정, 이윤정,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목적: 전국 의과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탈진과 일과 삶의 균형, 직무 만족도 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 환경, 업무 만족도, 탈진척도(SIBM, MBI-MP), 일과 삶 균형 척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총 62명의 의과대학 교원이 응답하였다. 교원 1인당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8.2 ± 17.5 시간이며, SIBM 척도 평균은 2.8 ± 1.2 점, MBI 평균 척도는 2.4-3.6점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불균형 정도는 54.1%-71.8% 수준이었으며, 직무 만족도는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다. 업무 만족도는 성별, 미성년 자녀유무, 대학 설립 주체, 학생 수, 임상진료 유무, 보직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탈진 정도는 임상 진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근무시간과 탈진 정도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다. ($r=0.259 \sim 0.290$) 탈진 정도와 일과 삶의 불균형 정도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415 \sim 0.743$) 반면에 탈진 정도와 직무 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r=-0.298 \sim -0.512$)

결론: 의과대학 교원은 근무시간이 많고, 탈진 정도도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며, 업무 만족도도 높지 않았다. 의과대학 교원의 탈진은 학생 교육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교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자유연제 1-2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

이동현, 최재정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목적: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 진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캠퍼스 안팎에서 업무와 활동을 통해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수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문헌을 통해 규명하고, 이 시대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탐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최근까지 교수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발표된 문헌을 Pubmed, KCI, RISS에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한 언론 기사를 빅카인즈에서 조사하여 내용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FGI를 통해 교수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변화와 부각되는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였다.

결과: 이전 문헌에서는 주로 교육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 연구자 등 교수의 역할과 역량을 규정하였다. 기사에서도 연구, 교육, 서비스 등이 주요한 연관 단어였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역량, 연구 및 전문가 역량, 교육자 역량, 리더와 봉사 역량, 진료역량과 이에 대한 세부 역량을 도출하였고, 그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결론: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은 고전적인 역할에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가고 있고 점차 그 폭이 넓어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역량의 구체적인 규명과 개발이 시급하다.

자유연제 1-3

의학교육 직무 기반의 맞춤형 교수개발 프로그램 설계

임지현^{1,2}, 이승희¹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¹, 가톨릭의대 SLICE교수개발센터²

목적: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자로서 다양한 역할이 가지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을 잘하기 위한 준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FGI와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고 Dacum기법을 활용하여 직무를 분석하였다. 교육 직무에 대해 정의하고, 주요 직무와 세부 직무로 구분하였으며, 각 직무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수개발 전문가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결과: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직무는 강의와 실습을 포함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를 지도하고 평가하며, 롤모델을 제시하면서 의학전문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주요 직무는 의과대학생 수업, 대학원생 교육, 인턴/전공의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상담과 지도, 선발, 교수개발, 교육행정, 외부 교육활동으로 분류하였고, 세부 직무는 33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별 대상을 targetting하여 교수개발 프로그램 주제를 선별하였으며, 11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직무는 의과대학 교수가 수행해야 하는 교육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제안된 프로그램은 각 의과대학이 교수개발을 시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학교육에서 교수개발은 중요하지만, 의과대학 교수가 의과대학 시스템과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 자발적인 동기를 갖기는 쉽지 않다. 성인학습 이론에서도 동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실질적인 동기가 부여된다면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하고 교육 효과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교수가 꼭 해야 하는 교육 직무를 중심으로 최적의 시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자발적인 참여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유연제 1-4

의과대학 교수의 전환 경험과 정체성 형성: 마이크로티칭 참여를 통한 질적 탐색

임윤주,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의과대학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임 및 경력 의과대학 교수자들은 임상이나 연구에 기반한 기존 정체성에서 교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하는 도전적인 전환기를 경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탐색하고, 교수자 개인의 성찰과 공동체 참여 경험이 정체성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내 의과대학에서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에 참여한 임용 3년 이내의 교수자 10명을 대상으로 서술형 주관식 설문조사와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CIPP 모델과 Mezirow의 성찰적 학습 이론, 그리고 Lave & Wenger의 참여 중심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참여 동기, 시연 경험, 피드백 수용, 교수자로서의 인식 변화, 향후 성장 방향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서술형 응답은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주제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의미 있는 문장 단위에 초기 코드를 생성하고, 유사한 코드들을 통합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 참여자들은 마이크로티칭 시연을 통해 자신의 교수법을 돌아보며 교수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경험하였다.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자신의 강점과 개선점을 인식하고 교육자로서의 시각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동료 교수자들과의 상호작용은 실천 공동체 내에서의 소속감과 상호 학습의 의미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분석 수치는 4월 중 추가될 예정이다.

결론: 마이크로티칭은 신임 교수자에게 교수법 습득을 넘어, 정체성 성찰과 교육자로서의 자기 이해를 확장시키는 교육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성찰과 공동체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교수자로서의 성장과 자율적 동기 형성이 촉진됨을 시사한다. 신임 교수자를 위한 교수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교수법 훈련뿐 아니라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참여자 수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교수자의 전공과 연차 등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에메랄드A

자유연제(2) 의학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좌장 | 이장훈 (아주의대)

자유연제(2)

의학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이 장 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학력 정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91. 3-1997. 2	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1999. 9-2001. 8	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2001. 9-2007. 2	의학

경력 사항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주임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신생아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주산의학회 편집위원장

자유연제 2-1

의학과 예방의학 통합6년제

안준무¹, 이승희¹, 오주환²¹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의대 의학과

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의학교육체계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대 의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 및 글로벌 수준에서 증가하는 의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 6년제 의학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교육과정은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학생들이 보건의로 시스템의 체계적 이해를 통해 공중보건 발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과 예방의학 교육의 중요성 및 기존 교육과정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획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교육목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핵심 역량, 그리고 교수법을 도출하였다. 셋째,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예방의학 주임교수를 대상으로 FGD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회의와 최종 확정 워크숍을 통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교육과정 모델을 확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 학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시그니처 교과목을 명시한 가이드북을 개발하였다.

결과: 연구의 결과로, 예방의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목표는 건강과 질병의 결정요인 분석 및 평가 역량, 보건의로 시스템 이해 및 활용 능력, 지역사회 및 지구환경 보건 이슈 이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활동 평가와 개선 능력을 설정하였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각 학년별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교과목 배치를 시행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나선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습 내용을 점진적으로 심화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으며, 각 학년의 핵심 학습 목표를 구현하는 대표적 교과목으로 '시그니처 과목'을 지정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방의학 중심의 통합 6년제 의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예방의학 관련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공중보건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이 교육과정이 예방의학 분야의 교육 표준 모델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외 여러 의료 교육 기관에 보급 및 적용됨으로써 예방의학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강화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연제 2-2

**의과대학 교육과정 변화관리 모형과 전략 도출
 - 서울의대 교육과정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

이윤정¹, 이승희¹

¹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지속 가능한 개편을 위해, 변화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특성에 적합한 변화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과정 개편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변화관리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문헌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변화관리 모형(Lewin, McKinsey 7S, Kotter, ADKAR, Burke-Litwin)을 비교 분석여 공통 개념을 도출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01년과 2016년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 6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변화에 특화된 LEAP (Listen, Engage, Act, Preserve)모형을 개발하였고, 내부 전문가 두 차례의 검토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결과: LEAP 모형의 네 단계(Listen, Engage, Act, Preserve)를 기준으로 2001년과 201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략적 차이가 개편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Listen & Plan 단계에서는 2001년 개편이 외부 교육모델(PBL, SPICES 등) 도입에 집중한 반면, 2016년 개편은 국내외 사례 분석, 학습성과 평가, 설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였다.

Engage & Expand 단계에서는 2001년 개편이 교수 중심의 제한된 참여와 하향식 리더십에 의존한 반면, 2016년 개편은 학부모, 졸업생,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고, 분산형 리더십 모델을 통해 실무위원회와 리더십 팀이 공동 책임을 수행하였다. 자원 배분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Act & Apply 단계에서는 2001년 PBL과 선택과목 도입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교수의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조직 내 저항으로 인해 개편이 좌절되었다. 반면, 2016년에는 의학 연구 및 TBL을 중심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학생과 교수의 긍정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정규 교과목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교수 개발 워크숍, 외부 강사 초빙 등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되었다.

Preserve & Sustain 단계에서는 2001년 개편이 제도적 정착에 이르지 못한 반면, 2016년 개편은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피드백 회의와 내부 평가가 수행되었고, 교육 성과는 교내외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다. 다만 장기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결론 : 본 연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의 변화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LEAP 모형은 기존 변화관리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여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교육과정 개편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LEAP 모형은 특히 청취 및 계획 단계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다른 기관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개편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교육과정의 성과를 평가한다. 참여 및 확장 단계에서는 워크숍과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리더십 팀을 구성하며, 개편 목표에 맞춘 자원을 확보한다. 실행 및 적용 단계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하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수와 학생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유지 및 지속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개편 사례를 전체 조직과 공유하고,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유지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01년과 2016년 교육과정 개편의 비교 분석을 통해 LEAP 모형이 일관된 변화를 추진하고 평가하며 강화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로는 LEAP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 사례를 후향적으로 연구하여 모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보완점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LEAP 모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LEAP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기본 의학교육(Basic Medical Education, BME), 졸업 후 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 지속의학교육(Continuous Medical Education, CME)까지 확장하여 연구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모형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각 단계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개편의 장기적 효과를 추적하여 실제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편 과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 학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LEAP 모형의 타당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과정 개편의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을 위한 근거 기반의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연제 2-3

Communicating about pain in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s: How medical students elicit pain descriptions and how standardized patients respond

박송희, 김찬웅, 김미경, 권영규, 정다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 Pain is a subjective, internal experience that can be difficult to articulate. Medical providers may need to acknowledge this difficulty when discussing pain with patients, while working toward a shared understanding of patients' experiences. Despite the complexity of pain communication, no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how medical students (MSs) and standardized patients (SPs) communicate about pain in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s.

대상 및 방법 : This study uses the qualitative method of conversation analysis to examine how MSs elicit pain descriptions and how SPs respond in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s. It draws on 272 video-recorded simulated consultations conducted at a university in Korea, involving 136 MSs and 10 SPs. The recording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to identify the interactional practices used by MSs and SPs in eliciting and providing pain descriptions, respectively.

결과 : In 166 of the 272 cases (61%), MSs offered examples of pain descriptions when eliciting one from SPs. MSs presented the examples as non-exhaustive, offering guidance while inviting SPs to formulate their own version. In the remaining 106 cases (39%), MSs did not provide examples, inviting SPs to describe pain in their own terms. In these cases, MSs still oriented to the potential difficulty of articulating pain – often through formulations invoking possibility (e.g., “Is it possible to...”) or ability (e.g., “Can you...”). Although SPs followed a predetermined description specified in their scenario, they employed interactional practices that displayed ‘thinking’ or searching for what to say.

결론 : MSs display sensitivity to the difficulty of articulating pain while encouraging respondents to formulate their own descriptions. SPs also enact this difficulty in their responses, despite using a scripted description. These findings show how participants construct and orient to the complexity of verbalizing pain in simulated consultations. Medical educators should consider this complexity when teaching MSs strategies for eliciting pain descriptions and training SPs to produce realistic responses.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거문도A

자유연제(3) 의과대학 학생평가

좌장 | 이병헌 (경북의대 학장)

자유연제(3)

의과대학 학생평가

이 병 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학력 정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3-1989	의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1989-1991	생화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1991-1995	생화학

경력 사항

2024. 8-현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2021. 6-현재	경북대학교 중앙 가소성 연구센터(MRC), 센터장
2019. 9-2020.8	한국세포생물학회, 회장
2018. 10-2021.9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기초의학 책임전문위원(CRB)
2003. 8-현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조교수/부교수/교수

자유연제 3-1

의예과 시기에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의 특성 및 성과 추적

이슬이, 이영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의예과 과정에서 부전공의 이수 여부에 따라 학생의 성격, 학습,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사립 의과대학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의예과로 입학한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기에 자기효능감,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자기조절학습, 자기주도학습을 측정하는 설문을 작성하였고, 의학과 2학년 말에 기초의학종합평가에 응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의예과 기간 동안 부전공을 위한 학점 이수를 완료한 학생과 의예과 기간 동안 부전공을 시도하였지만 중간에 포기하였거나 부전공을 시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전공을 위한 학점을 미이수한 학생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이 된 학생 중 114명(38.0%)은 부전공을 위한 학점 이수를 완료하였으며, 186명(62.0%)은 중도 포기 혹은 시도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의예과 입학 시점에서 부전공 학점 이수 완료 집단은 성격적 특성에서는 자기효능감, 자존감, 스트레스에 대한 과제중심적 대처에서 점수가 높았고, 학업적 특성 중 자기조절학습에서 내재적 동기, 시연, 조직화, 비판적사고, 초인지, 시간과 학습환경 관리, 노력조절, 또래학습, 도움구하기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자기주도학습에서도 미이수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의학과 진입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 부전공 학점 이수 완료 집단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중 외재적 동기, 학습 및 수행 자기효능감, 초인지, 시간과 학습환경 관리, 노력조절에서 각각 점수가 높았고, 자기주도학습에서도 미이수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의학과 2학년말에 응시한 기초의학종합평가에서 부전공 학점 이수 완료 집단은 미이수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결론: 의예과 과정에서 관심 있는 학과를 선택하고 부전공을 위한 필요 학점의 이수를 완료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의예과에 입학하는 시기에 다수의 성격적, 학습적 영역에서 더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특성은 의학과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며, 의학과 2학년 말의 학업성취도에서도 일관되었다. 결과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배경으로 하여 높은 학습동기와 다양한 학습방법에 익숙한 학생들이 의예과 기간 동안 부전공 이수를 성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부전공 제도가 학생들의 학습 경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자유연제 3-2

Perspectives of Medical Students and Developers Regarding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and 3D Printing Technologies

Young Hyun Yun¹, Dong Hoon Shin¹, Hyung Jin Choi^{1,2}

¹Department of Anatomy and Cell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²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목적 : Emerging technologies like virtual reality (VR), augmented reality (AR), mixed reality (MR), and 3D printing (3DP) have transformative potential in education and healthcare. However, their integration and routine use remain limite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gaps between users' and developers' perspectives on satisfaction, future use, and challenges of these technologies in medical education.

대상 및 방법 : A retrospectiv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a 4-hour elective course spanning 4 weeks. Participants included 15 first-year medical students and 26 software and content developers. Pre- and post-surveys assessed satisfaction, anticipated future use, and challenges.

결과 : Students reported higher satisfaction than developers across VR, AR, and 3DP,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overall satisfaction (VR and AR: $P < .001$; 3DP: $P = .002$), esthetics (VR: $P < .001$; AR: vividness, $P = .006$; design, $P < .001$; 3DP: vividness, $P = .001$; design, $P = .002$), and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VR: $P = .04$; continuous use, $P = .02$). In VR,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realism ($P = .006$). Developers anticipated MR for medical education and surgical planning, while students saw VR for education, 3DP for surgical planning, and AR for collaborative planning. Developers noted strengths in VR, AR, and MR, but highlighted hardware limitations, while 3DP's customization was an advantage, and cost was a disadvantage.

결론 : This study reveals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pectives between medical students and developers, underscoring the need for tailored integration of 3D technologies in education and healthcare to align with the needs of both groups.

자유연제 3-3

임상역량 평가 도구로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명선정^{1*}, 허연주¹, 윤나래¹, 신준성¹, 김주휘¹, 김찬웅², 김도훈³, 정서이⁴, 윤예진⁴, 신소연⁴, 공현중⁴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²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³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⁴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과

목적: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이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역량 평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제 임상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임상역량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표준화되고 확장 가능한 평가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문헌고찰과 의료교육 전문가들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 메타버스 기술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량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 상황을 반영한 가상환자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으며,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병력청취 모듈을 구현하였다. 또한, 가상환경에서 기본적인 신체 진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 모듈을 제작하였다.

결과: LLM 기반의 병력청취 시뮬레이션은 학습자의 질문에 따라 가상환자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즉각 반응하며, 실제 환자와 유사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기존의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평가 방식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황달이 동반된 복수가 있는 복통 환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임상 상황을 메타버스 기반 환경에서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체 진찰에 있어서는, 시진과 청진 수준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구현이 가능했으나, 촉진 및 타진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촉각 피드백의 실감형 재현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시뮬레이션은 통제된 환경에서 학습자의 수행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 메타버스 플랫폼은 LLM과의 통합을 통해 인지적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 있어 확장 가능하고 표준화된 임상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 현재는 촉각 피드백의 한계로 인해 신체진찰 구현에 제약이 있으나, 몰입형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제약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플랫폼의 교육적 효과와 실질적 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후속 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할 예정이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오동도

자유연제(4)

의과대학 학생지도와 지원

좌장 | 김영리 (제주의대 학장)

자유연제(4)

의과대학 학생지도와 지원

김영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90. 3-1996. 2	의학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1997. 3-1999. 2	진단검사의학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1999. 9-2002. 8	진단검사의학과

경력 사항

2002. 3-2003. 2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강사
2015. 7-8	Canada Toronto General Hospital (단기 연수)
2014. 3-2016. 10	제주대학교병원 IRB 위원장
2021. 2-2024. 1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2022. 2-2024. 2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장

자유연제 4-1

학년과 입학유형에 따른 의과대학 재학생의 학습성과 및 교육환경 인식 비교

김세진^{1,2}, 박태준³, 이장훈⁴, 김장희⁵, 유지혜¹¹아주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³아주의대 생화학교실, ⁴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⁵아주의대 병리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의 학습성과와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학년(Phase)과 입학유형(수시/정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6년제 교육과정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설계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1~6학년 총 257명에게 학습성과와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하였다. 학습성과는 의학지식 및 문제해결능력, 임상술기, 의사소통, 윤리성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은 DREEM(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학년은 Phase 1(1, 2학년), Phase 2(3, 4학년), Phase 3(5, 6학년)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시기별로 비교하였고, 입학유형(수시/정시)에 따른 차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후, phase별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학습성과는 모든 영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사소통과 윤리성은 초기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입학유형 간 비교에서는 전체 학습성과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hase 3에서 수시입학생의 의학지식 및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정시입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DREEM)은 총점과 모든 영역에서 phase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hase 1에서 모든 영역의 인식 점수가 가장 높고, Phase 2에서 가장 낮았으며, Phase 3은 Phase 1보다는 낮지만 Phase 2보다는 회복된 수준이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의 응답이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경향이 있었다. 입학 전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수시입학생이 정시입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업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hase 2에서 수시입학생의 교수 인식 및 사회적 자아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의과대학 재학생의 학습성과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며, 입학유형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시입학생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에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시입학생은 Phase 2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인식을 보이는 바, 이 시기에 정시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입학유형 내 세부 전형을 구분하고, 종단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장기적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유연제 4-2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커리어패스 - 의과대학생과 초기경력 의사를 위한 WISHES 모형 개발 -

이민정¹, 이승희²

¹경희대학교, ²서울대학교

목적: 의료인의 커리어패스는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은 이러한 커리어패스 설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 경력 시기의 의료인은 수련과 삶의 전환기가 맞물리며 경력 설계의 기회가 제한되고,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의학교육(BME)부터 졸업후의학교육(GME)까지 연계된 커리어패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이론적·실무적 기틀을 마련하고 정책과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순차적 탐색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의과대학생과 초기경력 의사 1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통해 커리어패스 선택과 지속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주제를 기반으로 WISHES 모형을 설계하고,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양적도구를 개발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과 초기경력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형의 확산을 위해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커리어패스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질적·양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모형의 구성요소와 영역 간 관계를 해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의 지속 가능한 커리어패스를 설명하기 위해 WISHES 모형을 제안하고, 구인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은 직장 환경(Workplace), 외부 영향(Influenc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건강한 삶(Health), 역량 강화(Empowermen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26~0.809로 양호하였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은 평균 5.85, 신뢰도 0.809로 가장 높았다. Influence와 Workplace 간 상관계수는 0.428($p < 0.001$), Empowerment와 Self-efficacy는 0.575($p < 0.001$)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WISHES 모형은 의료인의 커리어 설계와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이론적 틀임을 입증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과 초기경력 의사를 위한 커리어패스와 자기관리 지원을 위해 WISHES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모형은 기존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며, 직장환경, 사회적 영향, 전문성 개발, 건강한 삶 등 경력 지속에 중요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커리어패스 평가 도구"를 통해 모형의 실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 개인과 의료인력 양성기관은 의료인력의 커리어패스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의 커리어패스 설계와 기관 내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자유연제 4-3

서울 소재 의과대학 신입생의 진학 결정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현민영, 김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소재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진학 결정 시기 및 졸업 후 고려하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학 시기별로 영향을 받은 사람 및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고,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의과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의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588명(M: 397, F: 191)이다. 진학 결정 요인의 경우, 진학 결정 시기인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를 기준으로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데 영향을 받은 사람 및 경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고자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진로 결정 요인의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희망 진로(대학기초교수, 대학임상교수, 개원의, 봉직의, 공무원, 언론인, 기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임상교수를 참조 범주로 설정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진학 결정 시기에 따른 진학 결정 요인으로 '자기 신념 및 가치', '의료 관련 봉사 경험', '비의료 관련 봉사 경험', '질병·사고 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진학을 결정한 학생일수록 다른 시기에 비하여 자기 신념, 의료·비의료 봉사 경험, 질병·사고 경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진로 선택 비율의 경우, 대학임상교수 53.4%, 개원의 15.3%, 봉직의 14.3%, 대학기초교수 12.1%, 기타 3.1%, 공무원 1.5%, 언론인 0.3%로 나타났다. 진로 결정 요인에 따른 희망 진로 선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기초교수를 희망 진로로 선택한 학생들은 '높은 수입 보장', '리더십 발휘 여부'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원의를 희망 진로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입 보장',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의과대학 신입생의 진학 결정은 진학을 결정한 시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며,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은 실제 희망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의과대학 신입생의 진학 동기와 진로 선택 요인을 이해하고 향후 추이를 추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과대학 진로지도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상담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1 | 2025. 5. 15 (목)

거문도C

자유연제(5)

International Session

좌장 | 강덕희 (이화의대 학장)

자유연제(5)

International Session

강덕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력 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1992. 03-1995. 02	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1990. 03-1992. 02	의학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1982. 03-1988. 02	의학

경력 사항

주요 경력

2025. 02-현재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장
2018-2019	UC Irvine 교환교수
2008-현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주요 수상내역

이화의대학술상, 대한신장학회 학술상, 연강의학상, 기초의학상, 여의사회 학술상, 젊은 의학자상(대한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분취의학상, Young Investigator Award

주요 연구실적

NEJM, Nature Review Nephrology, KI, JASN을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Impact factor 합이 513.5

자유연제 5-1

MEE-Q (Medical Education Evaluation Questionnaire): Tool Design Study for Evaluating Medical Education in LMICs in Asia Using WFME Standards

Sangwook Cheon^{1*}, Seoyeon Cho^{1*}, Jimin Choi^{1*}, Junsik Hong^{1*}, Dongyoon Jeong^{1*}, Jiwon Kang^{1*}, Dahye Yoon², Timothy Lau³, Yin Ka Fung³, Hyunmi Park⁴

¹Department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South Korea,

² Faculty of Medicine, School of Primary Care, Population Science and Medical Education, University of Southampton, Southampton, UK, ³Surrey and Sussex Healthcare NHS Trust, Redhill, UK,

⁴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Joint first-authors.

목적 : Growing cross-border mobility among medical students, particularly within Asia, highlights the need to better understand how medical education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aligns with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s. Medical education programmes in these countries may face challenges including limited resources, variable regulatory oversight, and limited alignment with global quality assurance frameworks—areas underexplor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We aimed to develop a contextually relevant questionnaire, informed by existing research and aligned with th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Basic Medical Education Standards, to support future evaluation efforts.

대상 및 방법 : Twenty-three LMICs were identified using the UN Geoscheme for Asia and GDP-based classifi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English-language literature was conducted across PubMed, EMBASE, ERIC, Scopus, and Web of Science, focusing on medical education in the selected countries over the past 20 years. These findings informed the multi-step development of the Medical Education Evaluation Questionnaire (MEE-Q). WFME checklist items requiring degree-based responses were converted to Likert-scale items; open-ended prompts were adapted into multiple-choice questions grounded in the literature. Region-specific items (e.g., mandatory public healthcare service after graduation) were added to enhance contextual relevance. All decisions were made through expert consensus. The first pretest (n=8 Korean medical students) improved clarity and response timing. A second pretest (n=6 students from target countries) led to further refinements and improved usability. Ethical approval was granted (KUIRB-2024-0466-01).

결과 : MEE-Q comprises 57 items across nine domains, including institutional information, mission and values, curriculum, assessment, student and academic staff, educational resources, quality assurance, governance, and contextual considerations.

결론 : This study presents the initial phase in the development of MEE-Q, a structured and contextually-informed tool designed to support future evaluation of medical education programmes in Asian LMICs. It lays the groundwork for subsequent validation and implementation within the broader research project.

자유연제 5-2

A narrative review of social media guidelines for medical doctors: Insights for developing framework in Vietnam

DANG THI KIM CHI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Background: The use of social media among doctors at all levels is increasing. However, many of them have encountered problems with inappropriate social media posts that may compromise patient's confidentiality, blur professional boundaries and other issues with professional behaviors.

objectives: We aimed to identify and synthesize governing guidelines on social media use for medical doctors and provide insights into developing a framework in Vietnam.

Method: We electronically searched web sources with relevant terms (government and professional websites) for guidelines on social media use. A qualitative nar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key themes.

Results: Seven guidelines published by medical governing bodies in different countries and one statement by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ere found and analyzed. Five key themes were identified across all of the guidance documents, as follows: patient confidentiality, privacy and dignity; professional boundary,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public trust; practitioner's privacy; health advocacy; and information appropriateness.

Conclusion: Although individual guidelines emphasize different aspects of digital professionalism, they collectively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key areas, including maintaining a professional online presence,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patients on social media, risk mitigation, and leveraging social media for public health advocacy. However, these guidelines provide a limited exploration of the potential uses of social media in healthcare education and practice. These perspectives serve as useful references for developing a comprehensive digital professionalism on social media framework for doctor in Vietnam.

자유연제 5-3

Evaluation of the level of integration and current status of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edical curriculum: A pilot study focusing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course

Hyojeong Lee¹, Do-Hwan Kim¹, Jinho Shin², Seung Yang³,
 Jin-Kyu Park², Hoon-Ki Park⁴

¹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³Department of Pediatrics,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⁴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목적 : The integrated curriculum aims to help students construct clinically meaningful knowledge. A systematic evaluation of content interconnection is necessary to assess its effectiveness. As curriculum autonomy has expanded following academic system reform, reviewing and refining each college's integrated curriculum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pilot study aimed to evaluate the level of integration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cardiovascular system block to prepare basic data for future curriculum evaluation and improvement.

대상 및 방법 : We analyzed the cardiovascular system block delivered over four weeks (March 4–28, 2025) at Hanyang University. The course included 68 sessions (109 hours), which were conducted by 29 faculty members, and nine second-year students participated. The level of integration was assessed using three items scored on a 4-point scale. Score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Isolation (below 5), Initial (5 to under 8), Intermediate (8 to under 11), and Mature (11 to 12). Students completed a survey after each session.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and a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the course and qualitatively analyzed.

결과 : The overall integration score of the cardiovascular system block was 8.60 (level of intermediate). The majority of sessions received an intermediate rating (n=48), followed by an initial rating (n=16) and a mature rating (n=1). No sessions received an isolation rating. Problem-based learning (PBL) and case-based teaching (CBT) had high integration scores (10.52 and 10.57). Students reported lower perceived integration when content or clinical cases were too detailed, rare, or broad.

결론 : The block showed moderate integration, but deeper content-level nesting—defined as the structural embedding of concepts across sessions—was limited. Deep learning methods, like PBL and CBT, augmented integration. Reorganizing session order and using common clinical cases may enhance integration. For enhancing the overall integrated curriculum, future studies will compare faculty and student perspectives and explore integration in other system blocks.

자유연제 5-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o Assess Medical Students' Awareness of Health-Rel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조담¹, 김민서¹, 이나원¹, 박현미²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 ²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 2015) address critical global challenges such as poverty, inequality, climate change, and health. As future healthcare professionals, medical students play a key role in advancing these goal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health and wellbeing. Assessing their awareness of the SDGs is therefore essential for integr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medical education and preparing students for the responsibilities of global citizenship and intersectoral collaboration.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assess medical students' awareness of health-related SDGs. The instrument is intende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a larger cross-national study comparing medical students in Europe and East Asia.

대상 및 방법 : A systematic approach was adopted for instrument development, grounded in the UN SDG framework and aligned with the WHO's Global Reference List of 100 Core Health Indicators (2018). From the 169 SDG targets, 32 health-related targets were selected and categorised into four domains: Health Status, Risk Factors, Service Coverage, and Health Systems. A total of 31 items were generated, each framed as "I am aware of the goal to...", and rat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Construct definition and item generation were guided by theoretical mapping. Content validity was established through expert review, and item clarity was refined through iterative peer feedback.

결과 : The resulting instrument is a theory-informed and content-validated tool for assessing awareness of health-related SDGs among medical students. Preliminary review suggests good feasibility in terms of clarity and usability. A pilot study is underway to evaluate construct validity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supported by KMO and Bartlett's tests, and to asses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결론 : This study presents a validated questionnaire aligned with global health and education frameworks. It offers a foundational tool for assessing SDG awareness in medical education and will inform a forthcoming cross-national study.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그랜드볼룸

기조강연 II

좌장 | **최재영** (연세의대 학장)

허정식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연자 | **Curtis J. Bonk** (Indiana University, USA)

기조강연 II

Harnessing Generative AI to Support Learner Engagement in Medical Education

최재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86-1992	의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1999-2003	의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2003-2005	의학

경력 사항

2024. 8-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2024. 9-2026. 3	의료원건설사업단 의과대학신축추진본부 본부장
2024. 9-현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연구이사 및 포상위원회 위원
2023. 1-2024	대한이과학회 회장
2023. 4-현재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임상분야 CRB
2022. 10-현재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2020. 9-2024. 8	연세의료원 의과학연구처장
2020. 3-2021. 2	연세의대 이비인후과학 교실 주임교수
2018. 9-2020. 8	연세의대 학생부학장
2016. 9-2018 8	연세의대 교학부학장
2012-2015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기조강연 II

Harnessing Generative AI to Support Learner Engagement in Medical Education

허정식

제주외대/한국대학교육평가원

학력 정보

경희대학교	의학사	1986. 3-1992. 2	의학사
경희대학교	의학석사	1994. 9-1996. 8	의학석사
경희대학교	의학박사	2001. 3-2003. 2	의학박사

경력 사항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및 의학대학장 역임
- 한국대학교육평가원 기준위원장 역임
- 한국대학교육평가원 원장(현)

기조강연 II

Harnessing Generative AI to Support Learner Engagement in Medical Education

Curtis J. Bonk

Instructional Systems Technology Program Learning, Design, and Adult Education Department, Indiana University

Educational Inform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Educational Psychology	Ph.D.	1989	Educational Techn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S.	1987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Whitewater	B.A.	1981	Accounting. (3.83 G.P.A. Magna Cum Laude)

Career Information

- 1992-present Professor, Dept. of Instructional Systems Technology (IST), SoE, Indiana University.
 - Coordinator, Certificate in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2022-present).
 - Adjunct Faculty Member: IU Luddy School of Informatics, Computing, and Engineering, 2002-present.
 - Associate Faculty Member: IU Cognitive Science Program, 1992-present.
 - Affiliate Faculty: Center for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U, 2014-present.
 - Affiliate Faculty Member: Southeast Asian Studies Center, Indiana U., 2014-present.
 - Faculty Associate, Center for Int'l Ed, Devel & Research (CIEDR), IU, 2015-2020.
- 1999-present Founder and President, CourseShare, LLC, Bloomington, Indiana.
- 2003-2010 Founder and President, SurveyShare, Inc., Bloomington, Indiana.

For the three years, with every turn of the page someone seems to be shouting AI, AI, AI and still more AI. For many medical educators, this has meant drastically rethinking their traditional instructional ideas and approaches for learner engagement, collaboration, and interactivity. However, far too many others have yet to recognize or admit to the pedagogical possibilities and necessities. Perhaps they may need a little prompting or prompt assistance. Or perhaps they just need understandable models, examples, and frameworks to guide them. In response, in this session, Curt Bonk will reveal dozens of the ways medical educators are already employing Generative AI in their instruction to better engage learners. For many of these examples, he will detail how they relate to his powerful Read, Reflect, Display, and Do (i.e., R2D2) model for addressing the diverse learners of this planet as well as his TEC-VARIETY framework for online motivation; the latter of which he will make available two free and open books for the participants. With these frameworks in hand, medical instructors can feel more confident in utilizing AI to foster learner curiosity, autonomy, interactivity, engagement, feedback, meaningful learning, and much more. Participants will also have the tools and resources to address and hopefull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Generative AI tools such as ChatGPT. Attend this session and begin contemplating your next steps into the fast-expanding world of AI in education.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그랜드볼룸

심포지엄 및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사회 | 강석훈 (강원의대)

좌장 | 편성범 (고려의대 학장)

김미란 (아주의대)

연자 | Akira Yamamoto (Juntendo University, Japan)

Chih-Wei Y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심포지엄 및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편성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5. 03~1991. 0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1995. 03~1997. 02	재활의학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1997.03~1999.02	재활의학과

경력 사항

2023-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2019-202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장 및 주임교수
2010-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2006-201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부교수
2002-2006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임강사 및 조교수
2018-2019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재활의학과 교환교수
2009-2010	미국 Boston University, Harold Goodglass Aphasia Research Center 교환교수

심포지엄 및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김미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박사)	2006. 02	생물학(발생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석사)	1998. 08	의학(산부인과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학사)	1994. 02	의학

경력 사항

- (현)한국의학교육학회 대외협력팀 이사
- (현)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상임이사
- (현)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학교육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 (전)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위원회 이사
- (전)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의학교육실장, 임상교육센터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Medical Education: Current Guidelines and Practical Experiences from Japan

Akira Yamamoto

Juntendo University

Educational Information

Kyoto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MD	1989-1994	
Ph.D. course, Kyot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PhD	2001-2004	Radiology

Career Information

1995-1997	Residency, Department of Radiology, Kyoto City Hospital
1998-2000	Staff-member, Department of Radiology, Kyoto City Hospital
2005-2005. 9	Clinical fellow, Department of Diagnostic Imaging and Nuclear Medicine, Kyoto University Hospital
2005. 10-2006. 9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Radiology, Johns Hopkins University
2006. 10-2008. 9	Staff-member, Department of Radiology, Kyoto City Hospital
2007. 10-2018.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iagnostic Imaging, Kyoto University Hospital
2018. 4-2020. 5	Assistant Professor, Comprehensive Clinical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Kyoto University Hospital
2020. 6-2024. 3	Lecturer, Medical Education Center, Kyoto University
2024. 4-Present	Professor, Juntendo Universit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rapidly become an influential component in medical education, offering innovative opportunities for enhancing student learning and clinical training. This presentation summarizes recent findings from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Education Committee of the Japan Society for Medical Education (JSME), highlighting the status of generative AI adoption across 82 medical schools in Japan. A detailed review of institutional guidelines published online revealed significant variability in how generative AI use is communicated to students and faculty, reflecting diverse attitudes and practices regarding its educational application.

Furthermore, we share practical insights from a university in Japan, where students and educators collaboratively developed and utilized a generative AI-powered learning support system. This initiative illustrates both the feasibility and potential benefits of involving learners directly in the creation of AI-enhanced educational tools, fostering deeper engagement and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s.

Additionally, the session explores the innovative application of generative AI to medical interview train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simulated patient scenarios. This system, designed to enhance clinical communication skills, demonstrates the promising role of AI in creating realistic, adaptive, and accessible medical training resources.

Collectively, these experiences underscore critical considerations and successful practices in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medical curricula, offering valuable guidance for medical educators and administrators aiming to leverage AI technology effectively in healthcare training.

심포지엄 및 세미나

Transforming Medical Education in the AI Era: Taiwan's Perspectives on Technological Integration

Chih-Wei Y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Taiwan

Educational Information

National Taiwan University	Ph.D.	Sept. 2011	Jun. 2018	Institute of Epidemiology & Preventive Medicine
National Taiwan University	M.D.	Sept. 1995	June 2001	Medicine

Career Information

July 2023-Now	Vice Director,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Aug 2022-Now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Bioethics College of Medicine, National Taiwan University
Aug 2019-2022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Bioethics College of Medicine, National Taiwan University
May 2011	Co-Chair, 2011 Asia-Pacific Meeting on Simulation for Healthcare Dec
2009-Nov 2010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July
2006-Now	Attending Physician,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July 2006-Now	Attending Physician,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In the rapidly evolving landscape of healthcare, AI-incorporated practice models are redefining how care is delivered—shifting from physician-only decision-making to collaborative intelligence between humans and technologies. This transformation challenges medical education to go beyond traditional training, urging a reconfiguration of curricula to reflect the integration of AI in real-world clinical workflows. While the core principles of medical professionalism remain essential,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epare learners for healthcare environments where AI supports diagnostics, prognostics, and patient management. Future physicians must understand not only the science of medicine, but also how to practice effectively within technology-augmented systems.

A critical pillar in this transformation is the development of AI literacy alongside clinical expertise. Beyond simple familiarity, future physicians must be empowered to understand, evaluate, and ethically apply AI tools within their practice. This includes interpreting algorithmic outputs, recognizing potential biases, and making informed decisions. Medical education must cultivate this critical literacy to ensure AI enhances rather than replaces clinical reasoning, preserving the humanistic values that lie at the heart of medicine.

Moreover,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science remains essential for optimizing how learners engage with both traditional and AI/technology-driven content. Evidence-based educational strategies—such as adaptive learning, TPACK model, and simulation-based training—can be greatly enhanced through AI/technology applications. When aligned with sound pedagogical theory, these innovations can support more personalized, efficient, and impactful learning experiences.

In this context, many medical schools in Taiwan are exploring innovative ways to integrate AI and emerging technologies into medical education. Notably,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NTUCM) and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NTUH) have launched initiatives across all levels of training—from AI literacy in undergraduate education and structured programs for residents to faculty development for teaching and assessing technology-enhanced clinical practice. This comprehensive approach underscores Taiwan's commitment to cultiva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equipped for an AI-driven future.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에메랄드A

심포지엄 및 세미나

미래를 그리는 의학교육: 혁신의 길, 가능성의 여정

좌장 | 안영준 (조선의대 학장)

연자 | 임걸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패널 | 권근상 (전북의대 학장)

최석진 (인제의대 학장)

천경희 (건양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미래를 그리는 의학교육: 혁신의 길, 가능성의 여정

안 영 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91년	의학
조선대학교	석사	1999년	의학
조선대학교	박사	2002년	의학
조선대학교	박사수료	2008년	교육학

경력 사항

- (전) 조선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수련
- (전)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펠로우(소아중환자)
- (전) 한국 의학교육학회 기획이사, 정보이사
- (전) 한국 보건의료원 의사위원회 위원
- (현) 한국 의학교육학회 감사
- (현) 전국 의과대학 e-러닝 컨소시엄 감사
- (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미래를 그리는 의학교육: 혁신의 길, 가능성의 여정

권근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전북대학교	의학사	1988-1994	의학사
전북대학교	의학석사	1996-1998	예방의학전공
전북대학교	의학박사	1998-2003	예방의학전공

경력 사항

2024. 02- 현재	학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2022. 02-2024. 01.	교무부학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2004-현재	교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15), 부교수(10), 조교수(06), 전임강사(04)
2007-2024. 01.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전북대학교병원
2016-2019	이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심포지엄 및 세미나

미래를 그리는 의학교육: 혁신의 길, 가능성의 여정

최 석 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인제대학교	학사	1980.3~1986.02	의학
인제대학교	석사	1995.02	의학
고신대학교	박사	2002.2	의학

경력 사항

2003. 9. 01-2009. 8. 31	인제의과대학 학생부학장
2015. 8. 01-2019. 7.31	인제의과대학 교무부학장
2012. 3. 1-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주임 교수
2019. 8. 1-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2021. 9-현재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교육이사
2024.4 현재	인제대학교 대학교육혁신처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미래를 그리는 의학교육: 혁신의 길, 가능성의 여정

천 경 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산업 및 조직심리학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심리학

경력 사항

- 현) 건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부교수, 질관리실장
- 현)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 상임이사
- 현) 사회과학과 의학교육연구회 교육이사
- 전)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간사, 대외협력간사

심포지엄 및 세미나

미래를 그리는 의학교육: 혁신의 길, 가능성의 여정

임걸

건국대 교육공학과

학력 정보

Columbia University	교육학박사	2005-2009	Instructional Technology & Media
고려대학교	문학석사	1997-1999	교육방법
고려대학교	문학사	1993-1997	교육학

경력 사항

- (현) 에듀테크 스타트업 (주)랄라 CEO
- (현) 한국교육공학회 부회장
- (현) 건국대학교 에듀테크소프트랩 사업단장
- (전) 건국대학교 교육공학연구소장
- (전) 삼성/SK 자문교수

급격히 진화하는 첨단 과학기술은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본 주제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첨단기술이 의학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담대하게 조망하고, 그 가능성과 전망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탐색한다. 첫째, Spatial Computing의 진화를 통해 AR/VR/XR 기반 실감형 미디어가 의학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Head-Mounted Display(HMD)의 기술 현황과 사용자 경험(usability) 이슈를 진단하고, 향후 교육환경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둘째, Agentic AI기반의 자율적·상호작용적 학습환경이 지닌 교육적 혁신성을 탐색한다. 그 사례로, Social Simulacra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모델을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Robotic AI의 적용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통해 물리적 AI 에이전트가 교수-학습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Digital Human 등의 가상 에이전트를 활용한 교육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넷째, Sovereign AI관점에서 의학교육 콘텐츠와 학습데이터의 주권적 활용 및 유통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다섯째, Learning Experience Platform(LXP)기반의 맞춤형 교육 환경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 설계와 의과대학 교수자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종합적으로, 제 기술과 환경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의 일상을 의과대학 교수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며, 미래 의학교육의 실질적 비전을 모색한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거문고A

심포지엄 및 세미나

뇌과학과 교육학 “사이” 그리고 collaboration

연자 | 강화선 (가톨릭의대)

임지현 (가톨릭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뇌과학과 교육학 “사이” 그리고 Collaboration - 학습의 메커니즘을 다시 묻다

강 화 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1981. 3. 1-1985. 2. 28	생물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1985. 3. 1-1987. 8. 31	발생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1989. 3. 1-1996. 2. 28	발생학
Johns Hopki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Neuroscience	Research Fellow	1999. 3. 1-2000. 2.28	뇌신경과학

경력 사항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교수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제2 교육부학장
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LICE교수개발센터장
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겸무교수
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주임교수(2021. 8-2024. 2. 29)
6. 의학교육 연수;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12. 6-2013. 5)

심포지엄 및 세미나

**뇌과학과 교육학 “사이” 그리고 Collaboration
 - 학습의 메커니즘을 다시 묻다**

임지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LICE교수개발센터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수료)	2019. 3-현재	의학교육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2015. 9-2017. 8	교육공학
숙명여자대학교	학사	2009. 3-2014. 2	교육학, 인재개발학, 수학

경력 사항

2023. 3-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LICE 교수개발센터
2014. 2-2023.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2012. 6-2013. 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L&D본부

의학교육은 점점 더 협업적이고 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행, 교수역량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과학 전공자와 교육학자 간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시도를 통해 의학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함께 확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서로의 학문적 언어와 관점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실질적 협력(collaboration)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본 심포지엄은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인간의 학습 과정'을 뇌과학과 교육학의 관점에서 함께 조망함으로써, 학문 간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Jared Cooney Horvath의 『Stop Talking, Start Influencing』에서 제시된 뇌 기반 학습의 통찰을 중심으로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듣기와 읽기 - 청각 정보와 시각적 텍스트를 처리하는 뇌의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듣기와 듣기', '읽기와 듣기'의 관계를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보기와 듣기 - 시각 자료와 음성 정보가 통합될 때 발생하는 인지적 작용을 탐색하고, 멀티모달(Multi Modal,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채널의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는 것) 설계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공간과 기억 - 학습 내용은 뇌 속에서 공간적 맥락과 연결되어 저장된다. 장소 기억과 컨텍스트 학습의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리뷰와 회상 - 복습은 반복이 아닌 회상의 과정이어야 한다. 능동적 재인출(active recall)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수설계와 학습자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 심포지엄은 의학교육을 실천하는 전문가들의 학습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합적 사고와 실천이 가능한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오동도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과대학 교수의 24시간, 365일은?

연자 | 김세진 (동아의대)

김영전 (원광의대)

이승희 (서울의대)

채유미 (단국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과대학 교수의 24시간, 365일은?

김 세 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사(B.A.)	2002-2008	교육학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B.B.A.)	2002-2008	경영학(복수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M.Ed.)	2008-2010	평생교육
The Univ. of Georgia	박사(Ph.D.)	2013-2018	Learning, Design, & Technology

경력 사항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 (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위원회 간사
-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
- (전) Research and Innovation in Learning (RAIL), The Univ. of Georgia, Researcher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과대학 교수의 24시간, 365일은?

김 영 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박사	-2015. 8	교육학(교육공학) 박사
전북대학교	석사	-2009. 2	교육학 석사
전북대학교	학사	-2006. 2	의학 학사

경력 사항

2015-현재	원광대학교병원 가정의학 교수
2017-현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교실 교수
2019-현재	의학교육평가원 제도위원
2019-현재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위원, 학술위원
2021-현재	의학교육논단 편집위원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과대학 교수의 24시간, 365일은?

이 승 희

서울의대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교육학/아동학사	1984.3~1988.2	교육학/아동학
연세대학교	교육학석사	1988.3~1990.2	교육학
연세대학교	교육학박사(교육경제학)	1999.9~2002.8	교육학

경력 사항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기획·질향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개발원	기획실장
서울대학교 창의혁신의학교육센터	부센터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	학습진로담당교수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과대학 교수의 24시간, 365일은?

채유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단국대병원 예방의학과

학력 정보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의학사	1992-1998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예방의학	1999-2001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예방의학	2006-2009

경력 사항

- 전) KAMC 교육문화원 교육위원회 위원
- 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질향상위원회 위원
- 현) 한국의학교육학회 일반이사
- 현)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위원회 위원
- 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획·질향상위원회 위원

목적: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육, 연구, 진료 등 다양한 직무를 병행하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업무량 과중성 및 그에 따른 시간 투입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수 업적 평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교수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교수 업적 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279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와 심층적인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수들이 교육, 연구, 진료 등 각 업무 영역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교수들의 직무 만족도, 탈진 정도와 같은 심리·정서적 지표들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FGD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수들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와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질적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의학 교수는 주로 강의 준비와 평가, 학생 지도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 시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임상 교수의 경우 진료 업무와 동시에 병동, 외래, 수술장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병행하며, 교육자로서 역할 모델 기능을 강조하였다. 반면 의학교육 전담 교수들은 교육과정 설계, 교수법 개선 및 워크숍 운영, 학생 멘토링 등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 지원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제한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교수 업적 평가는 연구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수들이 교육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결론: 의과대학 교수들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와 탈진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교육 활동 수행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지만, 현재의 교수 업적 평가 시스템은 연구 실적 위주로 편향되어 있어 교수들의 교육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 활동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교육 중심의 교수 업적 평가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교수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개선, 인적 지원 확대, 그리고 교수 평가 기준의 재정립 등 환경적,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거문도C

심포지엄 및 세미나

HSS 교육에서 의료정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좌장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연자 |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노혜린 (인제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HSS 교육에서 의료정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안 덕 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학력 정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벨기에 루벡 대학(EU Fellowship)

미국 UCLA 의학교육 전문가 과정 연수:

ECFMG International Fellow on Medical Education

호주 교과부 후원 호주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연수:

Australian Endeavour Award

의학사 1972~1978

석사 1993~2005

석사 2007~2008

1988~1999

의학

불어불문학과

생명윤리

의학교육

경력 사항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성형외과 전공의, 임상강사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전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 회장

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전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2011년 1월-2012년 12월)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료정책연구원의 젊은의사 의료정책 아카데미 의미와 경험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5.8 보건학 박사

경력 사항

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부장

현 보건의료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현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등

전 한국의료법학회 연구원

전 국정과제 보건의료분야 평가위원

2024년 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1·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의과대학생은 물론 의사사회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 국민이 원하는 의료의 모습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보건의료정책이란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대한예방의학회, 2017 등).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정책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소득과 의식 수준 향상에 따라 요구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으며, 수많은 이해당사자, 보건의료 부문별 연결고리로 인해 구조적으로도 다양한 특성이 있다(김계현, 2019). 의사, 의료인 단체 등은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이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은 높지 않았고, 의학교육과정에서 정책 교육의 비중 역시 그리 크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연구원 설립 이래 의과대학생은 물론,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장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왔는데, 이전부터 이어진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의 이론과 현안들을 교육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월~2월 사이 '젊은 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이하 젊은의사 의료정책 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하였다. 이는 기존의 학교 단위 교육이 아닌 의료인 단체가 주관하는 열린 의료정책 교육과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본 세션에서는 의료정책연구원의 '젊은의사 의료정책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교육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며, 향후 효과적인 의료정책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심포지엄 및 세미나

의료정책 교육 및 장애물 극복 전략

노혜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987.3~1989.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의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의학/외과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의학/외과학

경력 사항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전공의/간담체외과 전임의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의학교육학교실		2000. 3-2011. 8
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인문사회의학교실		2011. 9-
현) 한국의학교육학회 정책이사		
현) 사회과학과 의학교육 연구회 회장		

그동안 의료정책은 암묵적으로 예방의학 또는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해왔다. 그러나, 이번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의료정책이 충분히 가르쳐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교육에 대한 니즈는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대생부터 전공의, 의사, 교수, 보직자 등 모든 직역은 의사양성을 포함한 의료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개선안을 찾고 제안함으로써, 실제로 의료시스템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교육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을 함에 있어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 것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교육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는 세 가지 의제를 공유하며 논의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영국 등 서구권의 의학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정책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서구권의 의학교육을 무비판적으로 들여와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둘째, 의료정책 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 역사와 현황을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맥락을 고려하여 서구권 의학교육을 변형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실행안이 있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 의료정책 교육의 장애물은 무엇이며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번 세션의 참가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시각이 다양한 현장 맥락을 반영하여 공유되고 이를 통해 모두를 아우르는 의료정책 교육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그랜드볼룸

정책대토론회 II 전공의교육 정책 현안

사회 | 노혜린 (인제의대)

좌장 | 박중신 (서울의대)

연자 | 서지현 (경상의대)

김영민 (가톨릭의대)

심포지엄 및 세미나

전공의교육 정책 현안

박 중 신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산부인과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산부인과학

경력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 대한의학회 부회장
-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학회 부회장
- (전)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전)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 (전)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과장
- (전)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심포지엄 및 세미나

전공의교육 정책 현안

서지현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학력 정보

경상대학교	학사	1991.03-1997.02	의학과
경상대학교	석사	1999.03-2001.02	소아청소년과
경상대학교	박사	2001.03-2003.02	소아소화기학

경력 사항

2008-2022. 03	한국의학교육학회 부산경남지회 위원, 현재 부회장
2022-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 시험위원회 위원
2015-2019. 09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수련이사
2019-현재	대한 소아소화기영양학회 보험이사
2022. 03-현재	한국의학교육인증평가원 평생교육위원회 위원
2023-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교육수련위원회 위원

심포지엄 및 세미나

전공의교육 정책 현안

김영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87.3-1994.2	의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9.3-2001.2	응급의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1.3-2005.2	응급의학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대학원	석사	2021.9-2023.8	의과학교육

경력 사항

2009. 3-2010. 8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WISER센터	소생의학/Simulation Fellow
2013. 9-2023. 8	가톨릭대학교 START의학시뮬레이션센터	센터장
2014. 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겸무교수
2016. 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
2021. 9-2022. 8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제1교육부학장
2023. 9-2023. 12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MERIT의학교육연구센터	Visiting Scholar

발제 1: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정부의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요구사항이 발표되었다. 특히 필수의료로 분류한 8개 과에 해당하는 개선안에 대해 참여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러 방면의 논의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책 대토론회 3의 첫 번째 발제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성인학습자, 노동자, 면허를 가진 전문의료인 등 전공의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선 방안으로 제안된 "지도전문의 또는 지도의사와 전공의의 1:1 밀착지도"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정리하고, 일하면서 학습(Work-based learning)에 있어 지도의사 또는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교육의 실행 및 평가 준비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전공의의 진료범위, 전공의 교육 기간, 숙식 문제를 비롯한 복지 등의 준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수련 환경 개선이 전공의교육에 적절한 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발제 2: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 전공의 없는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지원 사업'을 병원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책 대토론회2에서는 이러한 수련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중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 사업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의학교육자 관점에서 짚어 보고, 전공의교육을 위한 조직 구성과 필수 인력의 역할 및 업무를 역량바탕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전공의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임상교육자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교육전문성 개발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즉, 바람직한 전공의교육을 위해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전공의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에메랄드A

자유연제(6) 의과대학 학생선발

좌장 |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

자유연제(6)

의과대학 학생선발

류 세 민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고려대	학사	1998	의대
고려대	박사	2007	흉부외과학

경력 사항

2005-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17-2019	강원대 의과대학 부학장
2019-2021	강원대학교 병원 기획조정실장
2023-현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자유연제 6-1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

하충원,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수도권 중심의 고등교육 집중, 지방인재 유출 심화 등을 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5년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특히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역으로 불균형 해소와 지역 정주 의사 인력 양성이란 정부의 정책 목표와 함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도입과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방법으로 Cooper 등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연구 자료를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에 따라 규범적, 구조적, 기술적, 구성적 차원에서 정책의 특징 및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결과: 분석 결과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주요 성과로 1) 도입 목적에 대한 정당성 인정, 2) 지역인재의 출신 지역 이탈을 완화, 3) 지방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 4) 단계적 운영으로 제도의 수용성 증대 등이 도출되었다. 반면 1) 전형의 구체적인 목표 부재, 2) 일반전형과의 차별성 부재 3) 지역별 교육환경 및 의료환경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4) 전형 운영 효과에 대한 실증적 통계 자료 부재 등이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한 개선 방안으로는 1)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운영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2) 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전형 설계 및 운영, 3) 지역별 교육 환경을 고려하고,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자료 추가 허용, 4) 지역 정주 의사 인력으로서의 진로 유인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제도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정부의 교육 정책과 보건 의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부터 여러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대학, 지역사회,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자유연제 6-2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양현경¹, 김강문¹, 이경룡¹, 백순근²

¹건국대학교 의과대학, ²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목적: 국내 일개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를 위해, 국내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한 논문을 분석 연구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 연구물들에서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통계치들을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MA (Comprehensive Meta-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판 편파 분석, 민감도 분석, 효과 크기 검증, 동질성 검증, 조절 변인의 조절효과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전형 요소와 의과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변인인 입학전형 요소의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의 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의과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입학전형보다 입학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전형으로 선발되었는지보다 MEET, 전적대학 GPA, 영어성적, 인터뷰 등 입학 성적이 의과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측함을 시사한다.

결론: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국내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물들을 종합·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관관계의 크기에 대한 조절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의과대학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자유연제 6-3

의과대학생의 입학전형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학업성취, 졸업 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김순구¹, 서보영¹, 이해화^{1,2}, 하지용^{1,3}, 황일선^{1,4}계명대학교 의과대학 ¹의학교육혁신단, ²의학교육학교실, ³비뇨의학교실, ⁴병리학교실

목적: 의과대학생의 성별, 출신지역, 입학전형 등 다양한 변인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학업성취도, 진로에 영향을 미치며, 동일한 입학전형이라도 개인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변인을 바탕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성이 정신건강, 학업성취도, 진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K의과대학 신입생 31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성별, 입학전형, 지역인재여부, 재수경험 등을 기준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절성은 AIC, BIC, Entropy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이후 집단별 정신건강, 졸업성적, 유급경험, 자퇴, 진로 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잠재계층분석 결과 잠재계층의 수는 3개로 선택하였다. 그룹1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높은 집단, 그룹2는 정시·재수 비율이 높은 남학생 집단, 그룹3은 타지역 출신 비율이 높은 여학생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에 따라 정신건강에서는 인터넷중독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룹2가 가장 높았고, 그룹3이 가장 낮았다($p < .001$). 졸업성적은 그룹3이 가장 높았으며, 그룹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유급경험은 그룹2가 가장 많았고, 그룹1이 가장 적었다($p < .05$). 졸업 후 출신 대학의 교육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그룹1이 가장 높았으며, 그룹3이 가장 낮았다($p < .05$). 집단에 따라 자퇴비율과 자퇴사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그룹1이 그룹3보다 학업성취도가 낮았지만, 유급경험 비율도 가장 낮았다. 반면에 그룹2는 인터넷중독 점수가 가장 높고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았으며, 유급경험 비율은 가장 높았다. 이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 반면, 재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등으로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져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재수생을 위한 학업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그룹1에서 대학 소재지 및 출신 대학의 교육병원에서 인턴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은 지역인재전형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료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유연제 6-4

해외 의과대학의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학생 선발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비교연구

박소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전공

목적: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지역 의사 양성 교육정책 수립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의과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생 선발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미국과 일본 의과대학의 학생 선발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하고, 교육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문헌연구와 비교교육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은 미국과 일본의 각 5개 의과대학이다. 학생 선발제도의 비교 준거는 선발 규모, 지원 자격, 선발 평가 도구와 준거, 선발에 따른 의무 이행 조건, 선발 학생에 대한 지원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준거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기간, 제공 대상과 시기, 목표, 교육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체제이다. 교육정책 차용 모형에 기반하여 미국과 일본 간의 비교로부터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첫째, 미국은 기관의 자율적인 제도를 통해 지역 출신 학생을, 일본은 국가 정책인 지역정원제도를 통해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다. 둘째, 미국은 의료취약지역과 일차의료 분야의 실제적 경험을, 일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역 중사 의향을 가진 학생들 간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큰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 준거와 도구를 활용하나, 선발 후의 무이행 조건과 선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상이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넷째, 미국과 일본은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을 교육자원으로 투입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담당 조직의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결론: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학생 선발과 교육 간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구조가 수립되어야 하며, 학생 선발과 교육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학생 선발제도를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거문도A

자유연제(7)

의과대학 교수학습전략

좌장 | 백원기 (계명의대 학장)

자유연제(7)

의과대학 교수학습전략

백 원 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4. 3-1990. 2	의학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1990. 3-1992. 2	미생물학전공
계명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1992. 3-1995. 2	미생물학전공

경력 사항

2003. 3-2005. 2	Harvard Medical School Dana-Farber Cancer Institute, Visiting Scientist
2015. 3-2017. 2	계명대학교 암연구소 소장
2022. 12-2025. 2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연구처 처장
2016-	대한암학회 이사
2025. 2-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자유연제 7-1

AI 챗봇 기반 모의진료 훈련과 동료 간 역할극의 CPX 성과 비교: 예비연구

이혜윤¹, 김준동², 정아람², 최효재³, 최성열², 김지환¹, 김창업¹¹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연구소, ²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³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목적: AI 챗봇 기반 모의진료 훈련이 임상수행평가(CPX)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동료 역할극과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국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진입 예정자 19명을 모집하였다. 사전학습자료를 1주일 전에 배부한 후, 사전학습정도 평가 결과에 따라 층화 무작위 배정하였다.

양 군 모두 동일하게 30분간 신체진찰을 연습한 후, 챗봇 또는 동료역할극 훈련을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챗봇군(9명)은 AI 챗봇을 활용해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며 모의진료를 수행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임상표현당 2개씩 총 4개의 사례가 제공되었으나, 2명은 각 임상표현당 1개 사례만 연습하였다. 역할극군(10명)은 임상표현 2개(어지럼증, 견비통)에 대한 사례 4개를 바탕으로 2인 1조로 교대하며 의사-환자 역할을 수행하고, 각 사례 후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한의과대학 교수 1인이 튜터로 참여하였다.

두 임상표현에 대한 실제환자 기반 CPX를 시행하였으며,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 환자-의사관계 4개 영역을 checklist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의 목적에 따라 관찰된 경향과 실질적 차이를 기술통계로 보고하였다.

결과: 어지럼증 시나리오에서 챗봇군은 병력청취(66.2 vs. 74.4), 신체진찰(18.8 vs. 31.5), 환자의사관계(63.2 vs. 64.2) 점수가 낮았고, 환자교육(32.5 vs. 22.2) 점수는 더 높았다. 견비통 시나리오에서 챗봇군은 병력청취(54.5 vs 58.6) 점수가 낮았고, 신체진찰(53.1 vs 50.0), 환자의사관계(84.7 vs 78.4), 환자교육(85.0 vs 66.7) 점수는 더 높았다.

결론: 챗봇은 적은 인적 자원으로도 특정 영역에서 유사한 교육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환자교육 등 사례 특이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보다 초점 있는 질문 연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시험이 실제환자 대면 형식이었기에 역할극군이 다소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챗봇 훈련 시 시간 또는 질문 수를 제한하는 구조화된 연습 방식이 효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챗봇 기반 학습은 자기주도적 임상추론 훈련의 한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지닌다.

자유연제 7-2

의예과 학생들이 간호학과 협력활동 후 제출한 성찰들에서 나타난 직종간 교육 역량요인 텍스트분석

고은¹, 김예원¹, 박장희²

¹순천향의대 의학과, ²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많은 국가들이 의료 인력 간의 팀워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으로 전문직 간 교육(Inter professional education, IPE)을 시행하고 있다. IPE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관들은 핵심 IPE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예과학생들이 수업 중 간호학과 학생들과 공동으로 시행한 조별활동 후 제출한 성찰에서 나타난 IPE 핵심역량을 텍스트분석 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의예과 2학년 99명은 리더십과 의사소통수업을 2023년 1학기에 시행했고, 이 중 4개 활동을 간호학과 70명과 함께 조별활동을 하였다. 조별활동은 1) 병원조직, 의사와 간호사직무에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한 특별강의, 2)의사소통기술인 ISBAR에 대한 교육과 병원 의사소통 영상제작, 3)병원시뮬레이션게임(FNER), 4) 미래 병원설립을 위한 미션, 비전, 핵심전략 수립 등이다. 의예과 학생 99명은 활동 후 소감문을 제출하여 총 376개의 소감문을 확보했다. 이 중 불성실 20개를 제외하여 356개를 텍스트분석했다. 자연어 처리 기법인 Bag of Words 모델을 사용하는 Voyant Tools를 이용하여 질적 데이터의 양적 분석을 했다. 가장 빈번한 단어와 단어 간 상관관계는 워드 클라우드와 연어 그래프(collocation graphs)로 표시하였고, 성찰에서 IPE 핵심 역량 간 상대적 단어 분포는 만다라 다이어그램(Mandala diagram)으로 나타냈다. 직종간협력지침(the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ve Practice, IPCP)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values and ethics", "roles and responsibilities", "communication", "teams and teamwork"이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성찰을 텍스트분석했다.

결과: 모든 성찰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는 순서대로 "병원", "의료", "의사소통"이었다. 전체 성찰에서 확인된 IPE 핵심 역량 관련 키워드는 "의사소통" 653회(47.7%), "팀과 팀워크" 309회(22.6%), "역할과 책임" 277회(20.2%), "가치와 윤리" 130회(9.4%) 순이었다. 특별 강의와 병원 설립 계획수립이라는 두 가지 IPE 활동에서 IPE 핵심 역량의 모든 키워드가 나타났다. IPE는 의사 역할과 전문적 정체성 발전을 촉진했으며, 동시에 협력 활동을 통해 다른 전문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결론: IPE 활동에 대한 성찰의 텍스트 분석은 IPE 역량요인들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수업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의사로서 역할과 책임, 가치와 윤리와 같은 역량도 더욱 증진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유연제 7-3

의사소통 역량 개발을 위한 ChatGPT 프롬프트 분석 연구

지영아¹, 김선영²¹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경상국립대학교 교육혁신처

목적: 본 연구는 의료커뮤니케이션에서 롤플레이 실습을 도와주는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설계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의료커뮤니케이션 실습에 참여한 10개 그룹 78명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그룹별로 시나리오에 따른 롤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는 GPT를 학습시키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프롬프트와 GPT 응답이 도출되었고, GPT와의 대화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프롬프트와 GPT 응답의 구조, 내용, 표현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프롬프트의 설계요소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결과: 롤플레이의 구성요소이자 특징인 역할 및 역할 전환, 상호작용성, 시나리오 구성 방식 등에 따라 일반적인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GPT를 시나리오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로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의 내용, 형식과 함께 반복적인 교정 프롬프트의 필요성 및 유형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커뮤니케이션 실습에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프롬프트의 구조와 표현 방식에 따라 AI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의료진 교육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롤플레이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생성형 AI를 개발, 운영하고, 학습결과를 확인함으로써 AI 기반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오동도

IME

좌장 | 강윤식 (경상국립의대 학장)

IME

IME

강운식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5. 03. 02-1991. 02. 25	의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1995. 03. 02-1997. 02. 25	예방의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1997. 03. 03-2000. 08. 25	예방의학

경력 사항

2000. 9-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교수
2008. 3-2009. 6	Visiting Scholar, Center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Public Health
2018. 1-현재	경상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2023. 2-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IME-1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지원전략

엄광현¹, 김정민², 김종일^{3,4}, 최효이⁵, 이동현^{5,6}

¹Department of Pharma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wasun, Korea

²Department of Microbi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³Genomic Medicin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⁴Training Center for Innovative Medical Scientist,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Seoul, Korea

⁵Department of Physiology,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ocheon, Korea

⁶CHA Institute for Future Medicine, Medical Center Research Institute, Seongnam, Korea

목적: 최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빠른 선순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사과학자 교육 시스템, 지원사업, 전략적 접근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바탕으로 의사과학자 교육체계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및 방법: 2024년까지 출간된 논문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검색 가능한 모든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한 전문가 FGI와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하여 교육체계와 지원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과: 의과대학 내에서 학생 연구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의사-과학자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의사-과학자 역할 모델에 노출되고 교과과정 학생 연구 프로그램, 교수진의 멘토링,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해외 연구소 단기 연구 방문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비전과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은 의학 연구 교육 프로그램 또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학생들이 연구 주제 발굴, 연구 발표,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필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의학-석사 통합 프로그램 또는 의학, 석사, 박사 통합 과정을 아우르는 의사-과학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공통적이고 체계적인 졸업후 교육과 의사과학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결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세심히 조율되고 포괄적인 교육체계와 지원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가 글로벌 차원에서 의학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ME-2

Symphony of Heartbeats: A Student-Led CPR Initiative Sustaining Professional Identity During the Korean medico-political crisis

조담¹, 박현미²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 ²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 The 2024 Korean medical crisis led the majority of medical students away from structured educational activities and clinical environments. This study explores how Symphony of Heartbeats, a student-l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education initiative, enabled students to sustain their professional identity and contribute meaningfully to society during this disruption.

대상 및 방법 : Founded in 2023 at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ymphony of Heartbeats is South Korea's first student-run volunteer organisation to provide certified CPR training to the public. 15 members (preclinical year 1 n=6 & year 2 n=9) completed two instructor programmes (CPR/AED General Advancement Course, CPR/AED General Instructor Course)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From February to December 2024, the club delivered CPR training at four institutions, reaching over 130 participants.

결과 : The initiative not only disseminated life-saving skills but also supported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through authentic, community-based experiences. Teaching CPR required student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emergency care and take on educator roles. Guided by situated learning theory, students participated meaningfully in a health-promoting community. The project also aligned with self-determination theory, satisfying three key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through the planning and delivery of independently organised training sessions; Competence through gaining certification and mastering CPR instruction and; Relatedness through engagement with peers and diverse community members during outreach. Additionally, the learning process reflected Kolb's experiential learning cycle by teaching CPR to diverse audiences (concrete experience); discussing and evaluating the teaching sessions (reflective observation); refining instructional approaches (abstract conceptualisation) and; applying new strategies in future sessions (active experimentation). Students also developed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a strong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which are key aspects of medical professionalism.

결론 : While volunteer initiatives cannot replace structured clinical training, Symphony of Heartbeats demonstrates how student-led efforts can foster meaningful, theory-informed learning and reinforce core professional values during times of disruption.

IME-3

통합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설계 경험: 연세의대 코어임상실습 과정을 중심으로

김가영¹, 정재은¹, 이상아¹, 조연주¹, 김지혜¹, 강희택², 임범진³, 김영삼⁴

¹연세의대 교육파트, ²연세의대 가정의학교실, ³연세의대 병리학교실, ⁴연세의대 내과학교실

목적: 전통적인 임상실습은 단일 임상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임상과별로 분절된 교육이라는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통합 임상실습 과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임상표현과 필수질환을 중심으로 통합임상실습인 코어임상실습 과정을 개발하여 2024학년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코어임상실습은 여러 임상과가 한 과목으로 운영되므로 교육활동 용어의 통일,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학생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임상실습지도 교수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세의대 코어임상실습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관리시스템(LMS) 연계 설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능을 규명하고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의 코어임상실습 과정은 2020년-2022년에 진행된 CDP 2023 사업단에서 개발한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코어임상실습 실행한 마련을 위한 임상과 의견 청취와 LMS 기능요구에 대한 분석과 시범운영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2025년 2월까지 시행되었다. 코어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LMS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서자료(임상실습 지침서, 코어실습운영안 과목별 개발 회의록, LMS 요구정의서, 임상실습교육위원회 회의록), 설문자료(코어임상실습 과목별 만족도 조사), 관찰 자료(코어임상실습 개발 워크숍, 세부임상과책임교수 간담회), 물리적 자료(LMS 프로토타입 앱, 코어임상실습 LMS 개발화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통합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설계 기능요구 분석 결과, 다섯 가지 핵심 기능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교육성과 연계 기능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성고가 코어임상실습 통합과목과 세부임상과 과정성과 및 평가에 연동되어야 한다. 둘째, 계층적 과목 구조 설계로 통합 과목방과 세부임상과 교과목방이 연계되어 최종 학생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수 활동 지원 및 교육업적 연계 기능으로 교수들의 학생지도와 평가활동이 교육업적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참관활동 관리 기능으로 참관 내역 기록과 보고서 기능, 즉각적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임상표현 및 필수질환 중심의 데이터 연계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한 LMS 개발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통합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핵심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통합임상실습은 여러 임상과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성과 연계, 계층적 과목 구조, 교수 활동 지원, 다양한 참관활동 관리, 임상표현 및 필수질환 중심의 데이터 연계 기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한 학습관리시스템은 통합임상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된 학습관리시스템의 실제 운영 결과와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거문도C

우수 e-poster 발표

좌장 | 이관 (동국의대 학장)

우수 e-포스터 발표

우수 e-포스터 발표

이 관

동국대학교

학력 정보

동국대학교	학사	1990-1996	의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1-2003	의학(예방의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3-2006	의학(예방의학)

경력 사항

2005-현재	동국대학교 임상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6-현재	한국역학회, 대한예방의학회(2010),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2020) 이사
2018-현재	한국역학회 감염병위원회위원장, 농촌의학지역보건 편집위원장
2019-현재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2021-현재	동국대학교의과대학 학장
2022-현재	경북생명의숲 상임대표.
2024-현재	경북권역환경보건센터 센터장

PP-01 (우수)

고충실도 및 가상현실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 혼합 방법 연구

이효정¹, 이장훈², 유지혜¹, 정현주²

¹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목적: 소아 환자 수 감소와 일부 보호자의 검진 참여 거부로 인해 의과대학생들의 소아청소년과 임상 경험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충실도(High-fidelity, HF)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반 시뮬레이션은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임상실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HF 및 VR 기반 시뮬레이션을 전통적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운영한 소아청소년과 임상실습의 교육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양적 및 질적 분석을 병행한 혼합방법 연구로, 2023학년도 소아청소년과 임상실습에 참여한 의과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소아청소년과 임상실습은 4주간의 교육과정에 HF(신생아 소생술, 낙상) 및 VR(신생아소생술) 기반 시뮬레이션을 주차 별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사전, 사후 지필고사와 설문을 통해 임상의학지식과 임상수행준비도를 측정하고, 대응표본 t검정 및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성적 분석은 임상실습 종료 후 제출한 최종성찰보고서를 질적연구 분석 방법인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정량적 분석 결과, 학생들의 임상의학지식과 임상수행준비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HF와 VR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현실감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자기 역량을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임상에 대한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향상된 자신감은 보호자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나아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변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팀 기반으로 진행되는 실습을 통해 협력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HF 및 VR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합한 임상실습 교육 방법이 전통적인 임상실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실제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임상 역량뿐 아니라 성찰, 협업, 자신감,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자신감 증진은 교수자, 동료, 환자 보호자 등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의 질을 높였으며, 해당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임상실습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HF 및 VR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과 확대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PP-02 (우수)

Exploring Full-Time Research Experiences among Medical Students: Impact and Implications for Medical Education

윤나래, 신준성, 허연주, 김주휘, 윤현배, 명선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목적 : Research competency is an important factor for medical students to achieve professional growth and acquire the essential skills required to become healthcare professionals. However, there is limited studies on the impact of full-time research activities among medical students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research activities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medical students who engaged in research during the 2024 medical crisis in South Korea.

대상 및 방법 : An in-person survey was conducted with 52 medical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participated in research activities after taking a leave of absence during the 2024 medical crisis. The survey assessed students' motivations for engaging in research, perceived outcomes of full-time research,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using a 5-point Likert scale (1 = strongly disagree to 5 = strongly agree).

결과 : Students reported positive changes across all items related to full-time research experiences, with average scores ranging from 3.9 to 4.3. Lower-year students reported greater increases in interest about research compared to higher-year students ($r = -0.309$, $p = 0.027$), while also reporting more challenged related to study design, experimental techniques, and statistical analysis ($r = -0.295$, $p = 0.034$). Students participating in research through medical school-affiliated programs reported greater improvement in data processing skills than those who initiated research independently ($F = 5.136$, $p = 0.007$).

결론 : Full-time research experiences positively influenced students' perceptions and competencies related to research. These benefits were particularly notable among lower-year students, who also required more support, such as guidance in acquiring research-related knowledge. Structured research programs administered through medical schools may play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students' research capabilities.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to identify the optimal timing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integrating full-time research opportunities into the medical education curriculum.

PP-03 (우수)

의료현장의 영적 돌봄: 문헌 고찰을 통한 실천과 의학교육적 과제 탐색

김강철, 김민, 이나미,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본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영적 돌봄(spiritual care)의 개념과 실천 양상, 그리고 교육적 함의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학교육 내 영적 돌봄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말기 환자 중심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 임상 환경에서 의료진이 직면하는 '비신체적 돌봄'의 맥락에서 영적 돌봄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영적 돌봄과 관련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축은 (1) 영적 돌봄의 정의와 범위, (2) 의료진의 실천 경험과 장애 요인, (3) 문화적·제도적 맥락, (4) 국제적 교육 모델 및 교육 공백이었다. 질적 연구, 서술적 고찰, 교육 모형 연구 등을 포함한 다각적 문헌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 분석하였다.

결과: 문헌 분석 결과, 의료진은 영적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임상에서는 시간적 제약, 교육 부재, 종교적 민감성 등으로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말기 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죽음과 밀접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 진료 환경에서의 영적 돌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의 고통과 의미 탐색은 진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일반 임상 상황에서도 영적 돌봄은 필수적인 돌봄 영역임이 강조된다.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영적 돌봄이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진료에서도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돌봄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의학교육 내에서는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영적 돌봄 교육의 도입과 실천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실제 의료진의 경험 기반 질적 연구를 통해 교육 내용을 정교화하고, 한국 의료 환경에 적합한 실천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PP-04 (우수)

의대생의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주현정¹, 박효진²

¹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혁신센터, ²한국교육개발원

목적: 학습자 중심 수업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대생들이 인식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의대생 250명을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의 6개의 영역(학습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교수·학습활동, 수업목표, 수업 분위기 조성, 평가)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조사하였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활용하여 IPA 매트릭스로 도식화하였다. 또한,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해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우선적,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해야 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실행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습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교수·학습활동', '수업목표', '수업 분위기 조성' 영역에서 중요도가 실행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응표본 t-검증 결과, $p < .05$). IPA와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영역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그 요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영역별 하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요도가 실행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IPA와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는 '교수가 학생의 잠재 능력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IPA와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의대생의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강화하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의과대학에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수업 설계나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P-05 (우수)

의대 증원과 관련된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의사 이미지

구유진¹, 장경주^{1,2}, 이재호^{1,2,3}, 하정숙^{1,4}, 배재훈^{1,5}계명대학교 의과대학 ¹의료인문학교실, ²학생지원센터, ³해부학교실, ⁴진단검사의학교실, ⁵생리학교실

목적: 의대 증원으로 오랜 기간 의정 갈등 사태를 거치면서 의사와 의대생에 대한 기사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의사 이미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 증원'과 '의사'와 관련된 신문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의사상'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생의 역량 향상과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주요 전국일간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의대 증원, 의대 정원, 의정 사태, 의정 갈등'과 '의사'의 키워드를 조합으로 신문사설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기사를 취재 유형, 정보 제공원 유형, 한국의 의사상(2021) 기반으로 5가지 역량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뉴스 빅데이터 도구를 사용하여 추출된 기사들에 대한 키워드 분석과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의사상을 기반으로 한 역량 중에서 '소통과 협업'이 92건(39.1%)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책무성' 65건(27.7%), '환자진료' 36건(15.3%), '전문직업성' 30건(12.8%), '교육과 연구' 10건(4.3%)순으로 나타났다. 보도 태도는 중립적 보도 40건(17.0%)이었으며, 긍정적 보도는 10건(4.3%), 기타 1건(0.4%)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대다수의 기사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전공의'가 887회로 언급되어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계(479회), 의협(194회)순이었다. 또한 협의체, 의료 공백, 필수의료, 의료계혁 등도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을 분석한 결과, 의사에게 환자의 치료 및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공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무성'과 환자와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과 '사회적 책무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P-06 (우수)

국내 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연구 분석

박혜진¹, 김유라²

¹울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의료인문학교실

목적: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교육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AI는 임상 추론, 윤리적 판단, 상담 훈련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분석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의학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 교육 적용을 위한 기반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국내 의학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코핑 리뷰를 수행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의학교육*AI', '의학교육*인공지능'을 검색어로 활용하였으며, 출판연도 제한 없이 KCI급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어 논문 중 원문 열람이 가능한 정규 논문만을 포함하였다. 초기 검색된 93편 중 중복 및 주제 관련성이 낮은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 13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선정된 논문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분포하며, 대부분은 2020년 이후 발표되었다. 한의대생과 의과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부 교육 대상 연구가 많았으며, 탐색적 설계와 학습자 반응 수준(Kirkpatrick Level 1)에 중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주제는 인공지능 교육 도입에 대한 인식,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거대언어모델의 한계와 가능성, 윤리, AI 기반 학습성과 예측 등이 포함되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도구 활용 방식이나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한국 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일부에서는 평가 및 예측, 상담 훈련, 윤리 교육 등의 영역에 AI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들은 AI의 활용이 의학교육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는 실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설계와 다층적 평가 체계를 포함하는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것으로 기대된다.

PP-07 (우수)

의과대학 군위탁교육 현황 분석

김윤정¹, 김가영¹, 김혜원², 임범진³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팀 교육파트, ²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³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목적: 군위탁교육은 국방부가 군에서 필요한 군의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학군단을 통해 양성된 초급간부를 의과대학 4년 동안 교육하여 의사면허를 획득하게 한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련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군 의료체계 개선사업 이후 그 수가 크게 늘어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의 8-9%에 해당하는 군인력이 매년 위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는 군위탁교육생의 의학지식과 술기역량을 함양하고 군의료환경에 특화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경험한 군위탁교육생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장차 이들 학생의 의학교육성취도를 평가하고 군진의학에 특화된 교육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를 수립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군위탁생 78명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및 전공, 재학 중 학업성취도, 의사국가고시(실기 및 필기) 결과, 졸업 후 수련병원 및 전공, 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결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군위탁교육생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에는 각 1명이었으나 2012년부터 수가 크게 늘어 2012~2023의 연평균 위탁교육생 수는 6.3명이다. 출신학교별 분포를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25명(32.1%),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10명(12.8%),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3명(3.8%),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이 13명(16.7%), 육군삼사관학교 출신이 2명(2.6%), 학군단 및 기타 출신이 25명(32.1%)이다. 전적대학(사관학교 및 일반대학)에서의 전공은 공학, 자연과학, 약학, 어학, 인문학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중 졸업생 42명의 진로를 분석한 결과 40명, 즉 졸업생의 95.2%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았다. 또한, 학업성취도 불량(F 또는 Non-pass)으로 위탁해제 된 학생은 2명(2.6%)이며, 의사국가고시에서 불합격을 경험한 학생은 3명(3.9%)이다. 또한, 최우등 졸업생이 2명(2.6%) 있었으며 모두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이었다.

결론: 군위탁교육생의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의과대학 출신 군의관 후보자원 감소로 인해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0년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다양한 학업성취도를 보였고 낙제로 인한 위탁해제 또는 의사국가고시 불합격을 경험한 학생도 소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얻은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위탁교육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일반 의과대학생들과 비교하고 전적대학의 전공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PP-08 (우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의 수행능력 및 진로 변화 분석

정한나¹, 이은혜², 정선재³, 최용선⁴

¹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³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⁴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목적: 의과대학 졸업생의 수행능력과 진로 변화는 효과적인 의학교육 과정 설계 및 의료 인력 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코호트를 활용하여 재학 시절 특성과 졸업 후 수행능력 및 진로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공 선택과 근무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구축된 REDCap 기반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2023년 기준 연세의료원 인턴 및 전공의 394명과 2024년 기준 졸업 15주년 및 25주년 졸업생 124명이며, 이들의 재학 시절 특성(고등학교 유형, 입학 전형, 장학금 수혜, 리더십 경험 등), 수행능력(인턴 및 전공의 평가), 진로 변화(전공 선택, 근무 형태, 학회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졸업생 특성과 수행능력, 진로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2023년 인턴의 평균 근무 성적은 93.3점(표준편차=1.16)으로 대부분이 A등급(93.1%)을 받았다. 전공의의 경우 졸업 직전 1순위 희망 전공과 실제 전공이 일치하는 비율은 44.6%였다. 졸업 15주년 졸업생의 48.9%가 교육기관(대학병원)에, 33.3%가 개원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졸업 25주년 졸업생의 경우 48.1%가 개원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비율은 전공의 20.2%, 졸업 15년차 졸업생 24.4%, 졸업 25년차 졸업생 43.6%였다.

결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의 수행능력과 진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졸업생들은 재학 시절 희망했던 전공과 실제 선택한 전공 간 차이를 보였으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학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진로 지원이 필요하며, REDCap 기반 코호트를 활용한 장기적 추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PP-09 (우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현민영, 박경현, 이슬이, 정한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전공의 수련 과정은 학습자이자 전문직업인의 역할을 동시에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2024년부터 지속된 의정갈등은 그동안 누적된 열악한 수련 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가 전공의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드러내었으며, 전공의의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 시기의 전공의가 경험하는 정신적 어려움은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의료의 질적 수준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전공의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국내 전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Arksey & O'Malley가 제시한 Scoping review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MBase, CINAHL, Medline, PubMed, Web of Science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25년까지 출판된 영어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키워드인 "Medical Residents", "Residency Training", "Mental Health Support", "Program Effectiveness"와 관련된 유사어들을 생성 및 조합하여 활용하였다. 문헌 선택은 의학 및 의학교육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초록 및 제목의 1차 선별 후 전문(full-text) 검토를 통해 최종 문헌을 확정하였다.

결과: 문헌 선별 과정을 통해 처음 추출된 146편의 논문 중에서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된 논문 등 총 98편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논문은 연구 대상에 부적합한 논문(예: 의대생) 9편, 중복된 논문 3편, 논평 또는 의견을 제시한 논문 4편, 정신건강을 다루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논문 10편, 정신건강 현황 조사만 시행한 논문 72편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48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2012년 이후 관련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연구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유형은 양적연구가 56.3%(27편)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연구 27.1%(13편), 질적연구 16.7%(8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96.3%(2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석방법은 사전-사후 비교가 40.7%(11편)로 가장 많았다. 질적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경우가 50.0%(4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유형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미나, 교육과정 프로그램, 긍정심리 코칭 등과 같은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유형이 전체의 22.9%(11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모듈형/정기적 프로그램 유형이 20.8%(10편), 특정 주제에 대한 세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세션 참여 기반 프로그램 유형이 18.8%(9편)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목적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및 번아웃 완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39.6%(19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의의 웰니스 향상 및 동료 간 정서적 지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공의 웰니스 및 동료지원 증진이 18.8%(9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및 번아웃 감소가 전체의 41.7%(20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한 웰빙 증진 효과는 20.8%(10편), 디브리핑 세션 또는 워크숍 참여 등 세션 기반 실행 효과를 논한 연구는 12.5%(6편)로 확인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전공의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전공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증가 추세이며, 다양한 접근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한국 맥락에서는 관련 연구가 아직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 수련 환경에 적합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전공의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근무시간 제한, 업무량 조정 등 실제 한국 수련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선후배 간 멘토링 및 동료 간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peer-support 시스템 활성화,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문화적 수정 및 병원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와 실질적인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세미나B (E-poster Zone)

E-poster 발표

P-01

Cross-Country Comparison of Basic Medical Curricula in Uzbekistan, Tanzania, and Ethiopia

Nafisa Rayimova Nozim Kizi, Kim Suyoun, Lee Young-Mee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목적 : Global medical education is transforming, embracing competency-based approaches to meet evolving healthcare needs. As each country has different goals and circumstances, education systems must align accordingly. Understanding how medical curricula are structured across contexts is essential. Uzbekistan (Central Asia), Tanzania, and Ethiopia (East Africa) have distinct cultures, histories, and healthcare system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Basic Medical Education (BME) curricula in these countries to explore how their systems reflect educational priorities and context.

대상 및 방법 : A comparative docum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edical education documents from national authorities: the Ministry of Health in Ethiopia, the Tanzania Commission for Universities, and Uzbekistan's medical education authority. Despite differences in format, these documents define national standards for BME. The analysis focused on mission and objectives, program phases, curriculum principles, duration, grading systems, and examination methods.

결과 : All three countries adopt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 Ethiopia emphasizes research skills, ethics, and community service. Tanzania promotes regional harmonization and workforce mobility. Uzbekistan focuses on training and retraining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Uzbekistan and Ethiopia run six-year programs, while Tanzania offers a five-year curriculum. Pre-clinical training spans years 1-2 in Uzbekistan and Tanzania, and years 1-3 in Ethiopia, followed by clinical phases through to graduation. A unique feature of Uzbekistan's curriculum is five hospital-based clinical rotations during summer vacations. Uzbekistan follows a linear, practice-focused curriculum with clinical exposure. Tanzania's spiral curriculum integrates public health and professionalism. Ethiopia's vertically integrated program connects basic and clinic, though lacks horizontal integration. Assessments vary: Uzbekistan uses written and oral exams; Tanzania combines clinical and public health evaluations; Ethiopia employs OSCEs, portfolios, and logbooks.

결론 : Medical education doesn't follow a one-size-fits-all model. Each system reflects context and values. Understanding both differences and shared principles offers insight for future development. Further studies should consider not only curricula on paper but also real-world implementation.

P-02

리빙랩 수업에서 Reflection Report의 교육적 의미 분석: 학생 경험을 통한 공감 능력 형성 기제 탐색

김민¹, 최미영², 이은정², 유은일², 김희정², 권용진³, 이로미⁴, 이승희¹, 손호준⁵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³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⁴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이 연구는 의예과 학생들의 '공감'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리빙랩 기반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 참여 과정 중 작성한 Self-Reflection Report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공감 능력의 형성과 심화를 위한 교육적 구조와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학생이 타인의 삶을 인식하고, 자신의 태도와 실천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더불어 공감 교육에서 Reflection Report가 단순한 피드백 수단을 넘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사고 및 공감능력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수업 목표 달성의 객관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23년과 202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와 의료현장에서의 리빙랩' 수업에 참여한 의예과 학생 총 16명(각각 9명,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은 발달장애인과의 일대일 상호작용, 기관 방문, 팀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며, 학생들은 수업기간 중 총 2회의 Self-Reflection Report를 과제로 제출하였다. 추가로 2024년에는 수업의 핵심 실습활동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1:1 매칭 활동 후 작성하는 Short Reflection Report이 과제로 포함되었다. 수집된 보고서는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공감 관련 코드 및 범주를 도출하였고, 연도 간 성찰 양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학생들의 성찰 보고서에는 고정관념 해체, 정서적 교감, 관계 재정의, 사회적 책임 인식 등 공감 능력의 다양한 측면이 서사적으로 표현되었다. 리빙랩 수업이 지속되면서 공감 표현은 보다 정교해지고, 대상자에 대한 관찰 중심 서술은 점차 정서적 이해와 상호적 존중의 언어로 확장되었다. 성찰의 시기별 구성이 학습자의 공감 능력 발달 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며, 교수 피드백과 글쓰기 구조화는 공감의 사회적 맥락 인식과 실천 의지 형성을 뒷받침하였다.

결론: Self-Reflection Report는 공감 능력의 정서적 반응, 자기 인식, 윤리적 태도, 실천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핵심적 학습 전략으로 작용한다. 특히 실제 상호작용 기반 수업과 성찰적 글쓰기가 결합될 때, 학생들은 공감을 단순한 감정적 동조가 아닌 관계적, 구조적, 실천적 역량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공감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성찰 도구의 시기·형식·지원 구조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P-03

의료인문학 교육의 위기와 가능성: 미래 교수자 양성과 디지털 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이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의료인문학 교육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의료인문학이 단순한 '교양'이 아닌 의학의 핵심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료인문학 교수자의 양성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 및 활용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2개 의과대학의 의료 인문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각 대학당 1인의 담당 교수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현재의 전반적인 교육 현황과 미래 의료인문학 연구 및 교육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 인터뷰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약 60분간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취되었으며,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주요 주제와 패턴을 도출하였다.

결과: 1. 12명의 심층면담에 응한 교수자들은 공통적으로 평가 방식의 모호성, 효과성 검증의 한계, 학생들의 낮은 관심도, 그리고 후속 연구자와 교수자의 부재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의료계의 만연한 의료인문학 경시 풍조로 인해, 의료인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할 후임 교수자의 부재를 가장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강조하였다.

2. 교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환자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학생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 이끌어낸다고는 점에 모든 교수자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시간적 제한, 환자 프라이버시 문제, 환자와의 라포 부족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표현했다.

결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AI)과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적 접근이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후속 연구자 및 교수자 양성을 위해 AI 및 zoom 등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및 국외 교육 자료 및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학회 워크숍 및 체계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의료인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2.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서사와 다양한 요구를 가진 가상 환자를 생성함으로써, 환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풍부한 임상적 맥락에서의 인문학적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P-04

감염병 상황에서의 중증외상 처치 능력 강화를 위한 VR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김미라¹, 이수경², 유지혜³, 이미진⁴, 정현주⁵

¹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²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육센터, ³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⁴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⁵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증외상환자 초기 처치 교육을 위하여 가상현실(VR)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감염관리를 포함한 임상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3개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련 외상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외상외과 전문의 및 교육간호사의 자문을 거쳐 VR 기반 중증외상환자 처치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소생실을 모델로 실제와 유사한 3D 환경을 구현하였고,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처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을 탑재하였다. 사용자 행동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 기록되어 수행 항목별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개발된 시뮬레이션은 간호사 96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교육 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 VR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VR 실습에 대해 높은 흥미도(M=4.56)를 보였고, 재참여 의향(M=4.17) 또한 긍정적이었다. 교육목표 달성도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팀 접근'(M=3.7)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치료의 우선순위 판단' 및 '다발성 외상환자의 초기 평가 및 관리' 영역에서도 평균 3.5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VR 기반 중증외상환자 처치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실증 연구를 통해 그 교육 효과와 학습자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중증외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팀 기반 접근, 감염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V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진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P-05

예비 의료인을 위한 장애인건강권 교육 성과

오희진¹, 박종혁², 김소영²

¹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²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비 보건의료인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진행한 장애인건강권 교육 프로그램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6주간 실시되었으며, 참가자는 예비 의료인(간호학, 치의학, 의학 등), 의료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 관계자 등 총 292명이었다. Walker의 숙의모형(Deliberative Model)을 활용하여 강령(platform), 숙의(deliberation), 설계(design) 단계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장애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 및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결과: 교육에 참여한 292명 중 60명이 5주 이상 참여하였다. 보건의료계열 학생(79.2%), 교수(8.7%), 의료기관 종사자(4.9%)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의 98.3%가 프로그램에 만족하였고,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및 사례 공유가 인식 변화에 효과적으로 평가하였다.

결론: 6주간 실시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예비 의료인의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장애 친화적 돌봄역량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 제공, 장애인과의 실제적 소통 확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체계적인 통합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내 프로그램 확대가 권장된다.

P-06

Patient-Centered Medical Education through John Dewey's Empirical Naturalism

Oh, Heejin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School of Medicine,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plores patient-centered medical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John Dewey's empirical naturalism, highlighting the continuity and integrative nature of educational experiences. Dewey's philosophy, emphasizing practical engagement, interaction, and holistic experience, offers a robust framework for reshaping medical education towards a more patient-oriented approach.

Introduction: Traditional medical education, deeply rooted in biomedical paradigms and Cartesian dualism, predominantly emphasizes scientific objectivity while marginalizing patient narratives and holistic experiences. Recent shifts toward patient-centered medicine underscore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comprehensive patient experiences into medical curricula. Nevertheless, systematic application of patient-centered educational frameworks remains limited.

Conceptual Framework: John Dewey's empirical naturalism provides a foundational philosophical framework for patient-centered medical education. Dewey's emphasis on experience as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their environment encourages educators to create meaningful, integrated experiences that bridge clinical skills, theoretical knowledge, and patient engagement.

Patient-centered medicine significantly differs from traditional, physician-centered models by prioritizing personalized care, shared decision-making, and a broader consideration of emotion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patient dimensions. Historically, medical practices embraced narrative traditions, yet modern biomedical approaches have frequently marginalized patient perspectives. Patient-centered medicine seeks to reintegrate these humanistic traditions, enhancing both patient care quality and overall satisfaction.

Implications for Medical Education: Effective patient-centered medical education must provide continuous, reflective, and meaningful interactions with patients, enabling medical students to internalize patient-focused values genuinely. The current evaluation practices in medical education tend to prioritize knowledge retention through standardized assessments rather than evaluating interpersonal skills and holistic patient interac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tructured reflective practices, narrative medicine techniques, and direct patient interactions significantly enhance medical students' perceptions and capabilities regarding patient-centered care.

Conclusion: Implementing Dewey's empirical naturalism in medical education can effectively address contemporary healthcare challenges by fostering holistic, patient-centered practices. Medical curricula should prioritize continuous experiential learning and narrative-based approaches to cultivate physicians who are not only clinically competent but also empathetic, reflective, and ethically engaged.

P-07

의학교육 졸업시험 문항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효과: 호치민의약학대학 졸업시험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정한나^{1,2}, 강유림², Lê Khắc Bảo⁶, Đoàn Thị Thu Hoa⁶, 김영삼^{1,2}, 유태현³,
최진영^{2,4}, 이수빈⁵, 안신기^{1,2,5}, Hoàng Minh⁶, Lương Tuấn Trí⁶

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동곡의학교육원,
³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⁴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⁵연세대학교 제중원보건개발원,
⁶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 Chi Minh City

목적: 역량 기반 의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려면 고품질 문항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핵심 요소는 교수자의 문항 개발 능력이다. 졸업시험은 임상 수행능력과 같은 고차원적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문항의 구조적 완성도와 기능적 적합성이 평가의 타당성을 결정짓는다. 베트남은 2027년 의사 국가시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대비한 문항 개발 및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호치민의약학대학(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 Chi Minh City, UMP)에서 시행된 교수개발 프로그램(Faculty Development Program, FDP)에 따른 졸업시험 질 향상을 중심으로 교육적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문항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층적 교수개발 전략(Layered Approach)을 적용하였으며, 2023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UMP 교수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6회의 FDP를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출제 원칙, 오류 유형, 표준화 양식, 문항 분석 및 피드백 절차 등을 주제로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관련 기술을 심화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단계는 이론, 사례 기반 실습, 동료 피드백, 실제 문항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FDP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참가자의 인식 변화를 정성적으로 수집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졸업시험의 신뢰도, 변별도, 문항반응분포를 분석하였다.

결과: FDP 참가자들은 응용 중심 문항 작성법, 오류 식별, 선택지 구성 등 문항 개선 전략을 습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실습 중심 교육과 표준화 양식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은 문항 작성의 일관성과 검토의 체계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졸업시험의 신뢰도는 2021년 0.83에서 2024년 0.85로 증가하였고, 변별도가 0.1 이하인 문항 수는 77개에서 67개로 감소하였다. 답지반응률이 0인 문항 수는 37개에서 12개로 줄어들어, 선택지 구성의 질 향상도 확인되었다. 이는 FDP가 문항의 기능적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결론: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FDP가 졸업시험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실습과 피드백을 포함한 다층적 접근은 교수자들이 완성도 높은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논리적 구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베트남의 국가시험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본 사례는 국가 차원의 평가체계 정착을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고, 의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향후에는 FDP 정례화와 교육-실행-피드백의 구조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UMP 간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되었다.

P-08

학생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한 강의평가 시행 경험

권효진, 박장희, 육권인, 류세민, 유숙원, 유윤종, 임선화, 강석훈

강원의대

목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평가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확인하는데 적절한 평가도구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강의평가 도구는 과정(course)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강의평가를 시행하는 학생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불평이 여과 없이 반영되는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여 강의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강원대의 학생 옴부즈맨 제도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강의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은 과정계획서에 제시한 계획 대비 성과의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3년 2학기부터 학생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였다. 의과대학은 학년별로 학업성취가 높은(평점 3.5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옴부즈맨을 모집하였고, 각 학년별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5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옴부즈맨은 3개 학년의 33개 과정 중 20개(1학년 4, 2학년 8, 3학년 8) 과정을 평가하였다. 학생 옴부즈맨의 과정 평가는 1) 과정 성과와 졸업성과 및 시기성과의 적합도, 2) 학생평가 방법의 적합도와 만족도, 3) 과정의 세부 수업에 대한 적합도와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적합도와 만족도는 4점 척도(25%미만, 25%이상-50%미만, 50%이상-75%미만, 75%이상)로 평가하고 '25% 미만'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각 학년의 옴부즈맨은 합의를 통해 하나의 평가 결과를 제출하였다.

결과: 학생 옴부즈맨의 과정 평가 결과, 과정성과가 졸업역량 및 시기성과와 적합한지를 묻는 항목에서 '75% 이상'이라는 응답은 1학년 14개(51.9%), 2학년 29개(34.5%), 3학년 87개(76.3%)였다. 학생평가의 적합도와 만족도 평균은 1학년 2.7-4점, 2학년 2.5-4점, 3학년 3.2-4점 범위였다. 과정의 세부 수업별 만족도와 교육 방법의 적합도는 1학년 2.8-4점, 2학년 3.2-4점, 3학년 2.9-3.5점 범위였다.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사전에 공지한 수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들이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생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여 과정별 학습성과, 학생평가, 수업 방법에 대한 적합도와 만족도 뿐만 아니라 세부 수업별 운영 현황과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과대학의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 옴부즈맨 제도는 기존 강의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선과 질 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P-09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일차의료 실습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교육 요구도 분석

김송림¹, 민열하², 임준³, 윤소정⁴, 박귀화⁵

¹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²강원대학교 간호학과, ³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⁴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⁵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목적: 일차의료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최초 접촉, 포괄성, 지속성, 조정 기능을 핵심 속성으로 하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 의료인이 이러한 일차의료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향후 의료인으로서 필수적인 역량을 습득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의 일차의료 실습 교육현황과 인식,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여 향후 효과적인 일차의료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40개 의과대학과 64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 구글 설문지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각 대학의 일차의료 실습 교육 현황과 인식, 교육 요구도 조사를 위해 연구진들이 개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 분석과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결과: 본 연구는 21개 의과대학과 24개 간호대학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차의료 실습 교육 확대(5점 척도)에 대해 의과대학은 4.65점, 간호대학 4.42점으로 나타났으며, 팀 접근 교육의 필요성은 각각 4.60점, 4.54 점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차이에 대해 대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중점 교육분야로 의과대학은 '일차의료 진료 특성 이해(75.0%)',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이해(80.0%)'를 강조한 반면, 간호대학은 '일차의료 팀에서 역할(87.5%)',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과 서비스, 자원 이해(87.5%)'를 중요시 하여 차이를 보였다. 교육의 장애요인으로 의과대학은 '실습기관 의료진에 대한 교수개발 필요성(90.0%)', '실습기관 의료진에게 교육참여 보상방법 부족(80.0%)'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간호대학은 '실습기관 확보 어려움(83.3%)', '실습기관 의료진의 협조(79.2%)'라고 응답하였다. 교육 요구도 분석에서는 일차의료 속성 중 '책임 관리'가 공통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의과대학은 '건강증진 및 예방'을, 간호대학은 '지속성', '치료적 동맹/의사소통', '급성 질환 접근법', '만성 질환 접근법'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모두 일차의료 실습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대학이 인식하는 교육의 중점분야와 장애요인의 차이를 통해 일차의료 실습 교육을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였다.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실습 기관의 확보와 의료진 협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P-10

교육전담간호사의 비전 실현을 위한 역량 개발: 혼합연구방법의 적용

안준무¹, 이윤정¹, 권희경²

¹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간호교육센터

목적: 본 연구는 교육전담간호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며, 역량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간호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 중 순차적 탐색 전략(Exploratory Sequential Strategy)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의 핵심 역량과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특수병동 교육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VRC(비전, 현실, 선택) 워크숍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200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양적 자료는 중요도-수행도 분석(IPA)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VRC 워크숍 결과, 교육전담간호사들은 임상 교육의 질 향상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행정 업무와 불충분한 교육 지원 시스템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선 전략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조직적 정책 지원이 제안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임상 교육 리더십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역량으로, 전문 지식 최신화와 교육 프로그램 설계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역량으로 구분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개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설계와 임상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11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일개 의과대학 교육 운영 경험 탐색

박영순¹, 박시운², 이상엽^{1,3}, 이용원^{1,4}, 한기준⁴, 구본대⁵

¹가톨릭관동대 의학교육학교실, ²재활의학교실, ³병리학교실, ⁴내과학교실, ⁵신경과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2024년 의정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개 의과대학 교수와 행정직원이 교육 운영 과정에서 겪은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어려움과 대응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A의과대학 교수 5명과 교학팀 행정직원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표적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주제 분석을 통해 주요 경험 요소를 도출하였다. 반복적 읽기와 코딩 과정을 통해 교육 및 행정 운영 측면에서 나타난 핵심 주제를 정리하였다.

결과: 교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소수 인원으로 수업과 실습을 운영하는 데 따른 교육 부담 증가, (2) 비대면 수업 확대에 인한 상호작용 부족과 교육 효과에 대한 고민, (3) 일부 수업에서 나타난 학습 참여도의 변화와 그 한계, (4) 학생 상태에 대한 고려로 인한 교수자의 심리적 부담, (5)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행정직원 인터뷰에서는 (1) 급변하는 상황에 기존 학사 지침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 (2)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 (3) 학생·학부모 간 정보 인식 차이와 반복적인 학사일정 조율로 인한 업무 부담, (4) 향후 유사 상황을 대비한 탄력적이고 일관된 행정 매뉴얼 마련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결론: 의정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의과대학 교수자와 행정직원에게 교육적, 정서적, 행정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육 및 행정 운영의 실제 경험을 탐색하여 대응 방식과 고민의 흐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의 유연성과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12

디베이트 기반 Critical Thinking 수업 운영 경험

박혜진¹, 한승호^{1,2}, 유승민^{1,3}

¹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생리학교실, ³미생물학교실

목적: 비판적 사고는 의사소통, 임상 추론, 윤리적 판단 등 의과대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베이트(Debate)는 찬반 논리를 구성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상호소통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의예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Critical Thinking 수업에 디베이트를 적용하고, 수업 경험에 기반한 만족도와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3학년도 의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Critical Thinking 교과목에 참여한 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수업 내 디베이트 활동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Public Forum Debate) 형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디베이트 주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였고, 관련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을 통해 공유 및 관리되었다. 총 5회에 걸쳐 디베이트가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회차별로 찬성 측, 반대 측, 청중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업에 참여하였다. 수업 마지막에는 '주제 만족도', '나의 기여도', '전반적 만족도'를 포함한 5점 척도 기반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결과: 디베이트 활동 이후 학생들의 응답 결과, 주제 만족도는 평균 4.49 ± 0.72 , 나의 기여도는 4.44 ± 0.72 , 전반적 만족도는 4.43 ± 0.72 로 나타났다. 전반적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30.529, p < .001$)며, 설명력은 약 60.4%로 확인되었다(Adjusted $R^2 = 0.584$). 자기상관 검토를 위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202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회귀계수 분석 결과, '주제 만족도'가 전반적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나타났다($B = 0.845, p < .001$). 반면, '나의 기여도'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B = -0.004, p = 0.981$).

결론: 의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디베이트 기반 Critical Thinking 수업은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교수학습 전략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주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학습자 중심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디베이트는 다양한 관점의 탐색과 논리적 표현을 유도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P-13

특성화선택과정 실습 변화와 학생 관심 분야

한은정¹, 용동은²

¹의과대학 교육파트, ²진단검사의학교실

목적: 특성화선택과정은 Y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습을 선택하고 준비함으로써 개별적인 관심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2019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지난 6년간의 특성화선택과정 실습 현황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실습 분야 분포 및 실습 목적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Y 의과대학에서 2019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6년간 진행된 특성화선택과정 실습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중심으로 2년씩 세 개의 기간(코로나19 이전(2019-2020), 코로나19 기간(2021-2022), 코로나19 이후(2023-2024))으로 나누어 실습 분야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특성화선택과정 실습은 교내실습과 외부기관실습으로 구분되며, 외부기관실습은 국내실습, 해외실습, 공공의료 및 의료법 실습, 의료선교 등으로 세분화된다.

교내실습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25.0%, 코로나19 기간 37.3%, 코로나19 이후 31.4%로 증가 후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교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실습 비율이 비슷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임상의학 실습이 2.5~5배 더 많아졌다.

국내 외부기관실습은 코로나19 이전 23.6%, 코로나19 기간 42.2%, 코로나19 이후 29.2%로 증가 후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제약회사 및 언론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해당 실습이 진행되지 않았다.

공공의료 및 의료법 실습은 코로나19 이전 15.1%, 코로나19 기간 16.4%, 코로나19 이후 12.0%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해외실습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30.7%, 코로나19 기간 6.2%, 코로나19 이후 26.3%로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했다가 이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교내실습과 국내 외부기관실습은 예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공공의료 및 의료법 실습과 해외실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지난 6년간 특성화선택과정 실습 분야의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코로나19가 실습 선택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다. 학생들의 변화한 실습 선호도를 반영하여, 교내 기초의학 실습과 공공의료기관 실습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외 교류협정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 실습 기회를 증진하고, 지난 6년 동안 지속된 의료경영 및 창업 관련 실습을 향후 교육과정 개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P-14

Scoping review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in medical education

Kyung Hyun Park, Hanna Jung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목적 : The term DEI, which stands for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encompasses broader dimensions, including race/ethnicity, age, gender, sexual orientation, physical abilities, social/cultural identities. While this DEI framework has been frequently discussed worldwide, it still appears to be unfamiliar to many medical educators in Korea. Given the conceptual gaps between global needs and the lo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topic, this study will explore the international trends of DEI research in the field of medical education, and conceptually map out where we currently stand and what needs to be done in the Korean context.

대상 및 방법 : This study utilized a scoping review based on the framework by Arksey and O' Malley. Peer-reviewed articles published in English up to 2025 were extracted from the medicine-specialized databases, including EMBASE, MEDLINE, PubMed, CINAHL, and Web of Science. Search terms included "diversity," "equity," "inclusion," "medical education," and population-specific terms, such as "medical student" or "resident."

결과 : Out of 298, only 64 articles met the criteria. The articles were reviewed and categorized chronologically, geographically, demographically, pedagogically, and by specific dimensions of DEI. Out of 64, 59 articles were published between 2022 and 2025. Forty-eight studies were conducted in North American countries. Twenty-two studies addressed residents' cases. Twenty-eight studies focused on curriculum development or evaluation, while 16 studies examined recruitment and/or selection issues in medical schools or hospitals. In terms of dimensions, 28 studies discussed the general DEI framework. Twenty gender studies and 14 race/ethnicity studies were identified.

결론 : The results showed an obvious lack of relevant studies in Korea, pointing out gaps between DEI framework and medical education practices. This gap implicitly reveals the need to promote cultural competence among both learners and educators, and to create an inclusive culture within medical schools. This study may offer international references to address relevant issues in Korea.

P-15

의료 인공지능 시대, 의학교육의 역할 재정립: 의과대학생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방관욱¹, 박소연², 김경숙³

¹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인하대학교부속병원, ³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목적: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의 내용과 방향 또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및 분석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할 의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 관련 의학교육 과정의 설계부터 수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 및 방법: 대면 설문방식을 통해 2023년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지역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총 141명의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기명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밝힌 후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한 경우만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관련 분야 연구진이 개발 및 검토하였으며, (1) 의료 인공지능 교육과정 요구, (2) 사전학습경험, (3)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한 인식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141명의 응답자 중 82.6%의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목을 학습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기술적 영역을 학습한 비율은 68.1%, 활용적 영역은 35.5%, 윤리적 영역은 41.8%였다. 의과대학 내의 의료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87.2%였고, 의사가 되었을 때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은 76.6%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의료 인공지능 교육의 문제점 중 기기활용교육의 부재는 55.6%였으나, 윤리교육의 부재는 5.6%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가 24.3%로 2위였으며, 1위는 본인의 의료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40.3%로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결론: 의과대학생들은 의료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임상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의학교육에서는 기기활용을 포함한 실제 적용역량이나 의료 인공지능 관련 윤리문제에 대한 교육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로 윤리적 쟁점을 꼽았다. 즉,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상황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실제적 맥락이 보다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P-16

의과대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꿈을 찾는 의대생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고아라¹, 권복규², 정소미³

¹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 ²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³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꿈을 찾는 의대생 아카데미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의과대학생들의 참여 경험과 만족도를 평가하며 의과대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미래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2024년 12월 9일 꿈을 찾는 의대생 아카데미를 기획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외부 연사 및 의학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내 교원 강연과 네트워킹 및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참여자 48명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참여자는 의학과 1학년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의예과 1학년 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만족도는 평균 4.46(5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매우 만족' 응답이 43.8%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만족한 요소로서 강연(54.2%)과 프로그램 주제(37.5%)가 높은 요소로 평가되었다. 참여 동기는 강연 주제 및 연사에 대한 관심, 의료계 인사이트 습득, 휴학 기간 중 의미 있는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이 주요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꿈을 찾는 의대생 아카데미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의과대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깊은 통찰 기회를 제공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진로 방향성 설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생들이 학업 및 진로 탐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P-17

임상 AI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정소미¹, 김승정², 고아라³

¹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센터, ²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센터/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³이화여자대학교 환경의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임상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사례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임상 AI 플랫폼인 ELSEVIER ClinicalKey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2024년 9월 홍보를 통해 참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4주간 진행하였다. 총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이수 요건을 충족한 참여한 5명의 자료를 만족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사전-사후 변화를 확인하였다. 심층적인 학습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일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40(SD=0.84)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모두가 재참여 의사 및 주변 추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 평균은 3.28(SD=0.15), 사후 평균은 3.32(SD=0.39)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사전 평균은 2.83(SD=0.37), 사후 평균은 3.17(SD=0.57)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 일지 분석 결과, ClinicalKey AI를 활용한 학습은 임상 사례 분석과 이론 지식의 심화에 효과적이었으며, AI가 제공하는 최신 정보와 구조화된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임상 AI 플랫폼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기반 학습이 의학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AI를 활용한 자기주도 의학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P-18

의과대학생의 TBL 수업 운영의 체계성에 대한 인식과 능동적 수업 참여의 관계에서 TBL 참여 횟수의 조절효과

정소미¹, 김승정², 이경은³, 고아라⁴

¹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 ²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³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⁴이화의대 환경의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TBL 수업 운영의 체계성에 대한 인식과 능동적 수업 참여의 관계에서 TBL 참여 횟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2학년도 2학기부터 23학년도 1학기까지 TBL로 운영된 수업에 참여한 학생 575명의 피드백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BL 수업 운영의 체계성에 대한 인식은 능동적 수업 참여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BL 수업 운영의 체계성에 대한 인식과 능동적 수업 참여의 관계에서 TBL 참여 횟수가 조절적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BL 수업 운영에 체계성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 수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TBL 참여 횟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영향은 TBL에 처음 참여한 집단이 2회 이상 참여한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TBL 체계적 수업 운영과 참여 횟수가 의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에 적합한 최적의 TBL 운영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19

의과대학생 대상 'AI 연구 멘토링' 운영 사례 연구

정소미¹, 안소현², 김승정³, 고아라⁴

¹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 ²이화의대 의과학연구소, ³이화의대 이화의학교육센터/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⁴이화의대 환경의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을 위한 AI 연구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의과대학생들에게 AI와 의료의 융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의 연구자로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의대생을 위한 AI 멘토링 프로그램은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참고하여, 기획, 구성, 실시의 3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초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73명의 학생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멘토링을 수강한 학생들은 연구실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심혈관 질환 예측 머신러닝 모델 개발, CT auto segmentation 연구, 초기 탈모 예측 딥러닝 모델 개발, 흉부 X선을 이용한 골다공증 진단 딥러닝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일부 학생들은 AI 업체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수술 시뮬레이터 개발 연구, 내시경 영상 기반 대장 질환 진단 딥러닝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둘째,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프로그램 참여 후의 점수가 참여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역량은 '연구에 대한 의견 제시'와 '각 연구주제별 장단점 파악'에서만 유의미한 사전-사후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AI 연구멘토링은 의과대학생들에게 AI와 의료의 융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의 연구자로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2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구축 사례: 설계, 운영, 활용

정한나¹, 이은혜², 강은애³, 정선재⁴, 최용선⁵

¹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용인세브란스병원 임원의학과, ³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⁴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⁵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목적: 의과대학의 종단적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코호트 기반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통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 및 졸업생 데이터를 REDCap(Research Electronic Data Capture) 플랫폼에 통합하여 코호트 기반 종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하고,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고려사항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I-E-O(Input-Environment-Outcome) 모형에 따라 데이터를 구조화하였으며, 의과대학 교육파트 및 학생파트, 의학교육학교실 설문,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 졸업생 설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REDCap(Longitudinal Project 모드)에 입력하여 운영하였다. 변수명, 값 범위, 설문 항목 정의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코드북을 개발하여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확보하였고, REDCap의 사용자 권한 관리, 이력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보안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사정보시스템과 LMS 등 내부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기반으로 REDCap을 구축하였다. REDCap은 강력한 보안 기능과 접근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 의예과 입학부터 졸업 후 25년까지의 학생 및 졸업생 데이터를 REDCap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졸업연도별, 입학유형별, 교육과정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데이터 입력 및 구조화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설문 시기와 항목 구성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대응 및 사용자 피드백 체계 등 실무적 요소들도 함께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5년 1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교육 성과 분석, 졸업생 추적,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본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결론: REDCap은 의학교육 종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I-E-O 모형 기반의 구조화된 입력과 정기적 데이터 업데이트 루틴을 통해 코호트 기반 교육성과 분석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인프라는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종단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정책 수립과 성과 개선을 위한 실증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P-21

임상단계 의과대학생의 변화 추이 분석: 임상의학종합평가, 임상수행평가, 발달시험 간 종단적 관계를 중심으로

강유림¹, 김혜원^{1,2}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동곡의학교육원, ²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의과대학생의 역량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향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단계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평가도구인 임상의학종합평가, 임상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발달시험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도구 간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의학교육 평가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3, 4학년 기간 동안(2022~2023학년도) 총 세 시점에 걸쳐 수집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평가도구는 임상의학종합평가, CPX, 발달시험이며, 각 시점마다 평가결과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에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M)을 적용하였다. ARCLM은 특정 시점의 점수가 이후 시점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통계 모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가 성취도의 변화 패턴과 평가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연구에서는 경로 동일성과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순차적으로 설정하여 경쟁모형을 구성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여 최적의 모형에 대한 각 평가도구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자기회귀 효과 분석 결과, 모든 평가도구에서 유의미한 종단적 안정성을 확인되었으며, 이는 각 평가도구의 성취도가 시간 경과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교차지연 효과 분석 결과, 임상의학종합평가의 선행 점수가 후행 시점의 CPX와 발달시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CPX의 선행 점수는 임상의학종합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발달시험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발달시험의 선행점수는 후행 시점의 임상의학종합평가와 CPX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임상의학종합평가와 CPX는 상호 보완적인 평가도구로서, 특히 임상의학종합평가가 이후 시점의 CPX 및 발달시험 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시험은 다른 평가도구와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발달시험이 주로 학습 진전의 점검과 피드백 제공에 초점을 두는 형성적 평가로서 기능하는 반면, 임상의학종합평가와 CPX는 학업성취 정도를 판정하는 고부담 시험(high-stakes exam)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목적과 활용 방식의 차이는 학습들의 학습동기와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평가도구 간 관계성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과대학 평가 체계의 통합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생 역량 강화와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22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효과 및 졸업성과 분석

이경민¹, 장경주¹, 배재훈¹, 이현수², 이재호¹

¹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²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목적: 해부학 실습은 의료인의 인간적 소양과 윤리적 책임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신 확보의 어려움, 교수진 및 지원인력의 부족, 실습환경의 미비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 실습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졸업성과와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5년 K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에 참여한 의예과 2학년에서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단일응답식 문항은 해부학 실습 교육의 효과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다중응답식 문항은 해부학 실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6가지 졸업성과(진료, 의사소통, 환자지지,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과 연구, 자기개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SPSS version 23.0(SPSS Inc., Chicago, USA)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고, 문항별 전체 평균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학년별 차이 분석은 카이제곱검정 및 Stu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결과: 응답자는 총 109명으로, 의예과 2학년 17명(15.6%), 의학과 1학년 31명(28.4%), 의학과 2학년 9명(8.3%), 의학과 3학년 30명(27.5%), 의학과 4학년 22명(20.2%)이다. 첫째, 해부학 실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졸업성과는 프로페셔널리즘(29.2%)과 문제해결과 연구(25.7%)가 가장 높았으며, 진료(14.2%)와 의사소통(12.8%)이 뒤를 이었다. 둘째, 해부학 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부학적 지식 습득, 생명 존중, 협동심, 창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생명 존중 태도가 평균 4.8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공감 능력은 평균 3.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해부학 실습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부학적 지식 습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생명 존중 태도,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등에서도 유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리한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을 포함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해부학 실습이 임상 및 비임상 역량을 모두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의 질적 개선 및 의료인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와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포함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P-23

Medicine in the Korean War, according to the accounts from US latter-day Saints veterans

Jacob Sangwoon Ba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목적 : The Korean War, also known as the Forgotten War, has been studied and recorded by various academic entities, yet medical records are limited. Few book articles recount medicine during the Korean War without detailed medical settings or procedural functions.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medicine during the Korean War, which may provide historical perspectives on medicine from the Latter-Day Saints veterans' accounts and US military history books.

대상 및 방법 : Veterans' accounts were found in the L. Tom Perry Special Collections in Harold B. Lee Library of Brigham Young University, and books were selected from Google searches, namely *Medics at War* by John T. Greenwood and F. Clifton Berry Jr., *Saints at War* by Robert C. Freeman and Dennis A. Wright, and *Combat Medicine* by Penny Starns.

결과 : It is difficult to grasp all the experiences, challenges, and circumstances during wartime. However, a few things were evident during the war: supplies and the workforce for medicine and medical education were insufficient; medicine was not the most prioritized goal, and neither were the humanities.

결론 : The circumstances and workforce are not always sufficient and ideal. Medical history may guide future steps during challenging times. Further studies and vigorous discussions are required to assess and establish plans.

P-24

학습자로서의 의과대학 교수 - 일개 의과대학 교수개발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임지현, 유동미, 김선, 임지향, 최문형, 최창진, 김수영, 강화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의과대학에서 교수개발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실, 의학교육학교실 등의 교육 부서에서 자체적인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수개발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C의과대학은 2023년 교수개발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교수의 요구 기반으로 효과적인 교수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수개발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C의과대학 교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교수개발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교수설계모형의 하나인 ADDIE모형에서 분석(Analysis)에 해당되는 학습자 분석, 학습 요구 분석, 학습 환경 분석을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C의과대학 교수이고, 설문 문항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교수자로서의 성취 수준, 학습 출발점,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대한 요구, 교육 활동 및 인식, 교수개발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회귀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수개발 주제의 경우 교수자로서의 중요도와 교육 필요도에 따라 교육 요구를 도출하였다.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응답자 중 99명의 데이터가 유효하였다. 학습자 분석 결과 업무 중 교육에 할애하는 비율은 5%이상 10%미만이 가장 많았고, 수행하고 있는 교육 업무는 임상실습 지도, 의학연구 및 논문 지도, 시험문항 출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효과 인식 수준은 평균 3.21(±0.73), 의학교육과 관련된 지식수준은 2.68(±0.97)로 나타났다. 학습요구 분석 결과 교수법과 학생평가, 교육과정, 학생지도, 리더십 영역은 우선순위, 교육학 이론 영역은 현상 유지, 인문교양 영역은 낮은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특강 형태를 가장 선호했다. 학습 환경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와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업적점수, 승진 등의 제도와 시간적 제약이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일개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활동과 교수개발센터 참여 경험을 이해하고, 교수개발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각 의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수개발은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P-25

의료인문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개발 및 운영 계획

류동희, 오희진, 김지연, 이건호, 임재찬, 송권호, 배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통합적 평가체계를 개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의료인문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역량 개발 및 의도한 교육과정 성과 달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대상 및 방법:

1. 문헌고찰

- 의료인문교육에서 사용되는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사례를 파악함.
- 현재 의료인문 교과 수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을 분석함.

의료인문학 교과목별 학습 평가 방법

의료인문 교과목별 졸업성과 - 시기성과 - 교과목 성과 매칭

2. 설문조사

- 의료인문 교육과정 참여 교수 대상 설문 조사를 수행함.
-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 및 필수 포함요소 등을 파악함.

3.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및 평가 기준 개발

- 지식, 기술, 태도를 포괄하는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 개발
- 피드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고안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 대부분의 시기성과와 의료인문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G4, G10의 모든 시기성과와의 연관성은 100%로 확인됨. G2 및 G9과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됨.
- 각 졸업성과별 의료인문 관련 역량(안)으로 제시된 역량(키워드)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부에서 추가의견도 확인되었음.

2.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및 평가기준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문학 교육에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였음.
- 준비기(2025학년도), 과도기(2026학년도 상반기), 완성기(2026학년도 하반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의료인문 관련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피드백 체계를 개발함.

결론 :

- 의료인문 포트폴리오 평가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실천이 필수적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우리 대학의 의료인문 교육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포트폴리오 평가체계의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의과대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사랑과 봉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의학교육 및 연구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인, 사회봉사와 발전에 기여하는 소명의를 가진 의료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P-26

의학교육의 교수개발의 현황과 과제, 발전 전략에 대하여

이동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목적: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 진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캠퍼스 안팎에서 업무와 활동을 통해 발전한다. 동시에 교수개발(faculty development)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필수 역량을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FD는 아직 교수 역할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교수진의 다양한 특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 의과대학에서 교수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의과대학과 교수개발기관에서 교수개발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수개발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문헌 검색은 KCI, RISS, Pubmed를 사용하여 2024년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교수 개발', '교수 개발 프로그램', '역량' 키워드를 조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논의하여 주요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결과: 한국 의학교육에서 교수개발의 역사와 국내 교수개발 연구의 진행 상황, 교수개발의 주요한 4가지 과제와 그 외 여러 약점들을 바탕으로 한국 의과대학의 교수개발 발전을 위한 7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한다.

결론: 교수개발을 위한 교수진의 역할과 역량, 구체적인 역량,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의 연구와 수립이 필요하다. 각 의과대학은 의과대학과 교수진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개발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교수개발 기관은 의과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각 의과대학의 리더, 의학교육 전문가, 교수개발 담당자를 육성하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의과대학이 내실 있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강사진 제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P-27

아시아 국가 중심 임상교수의 교수 정체성 연구 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

이효정¹, 이장훈², 김미란³, 유지혜¹

¹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³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목적: 의과대학 임상교수는 연구, 진료, 교육의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구 및 진료 중심의 환경으로 교육자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교수 정체성(teacher identity)은 의학교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조직 내 위계적 구조와 교육자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등 서구와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의 임상교수에 관한 교수 정체성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Arksey와 O'Malley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로 수행되었다. 2010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PubMed 및 의학교육 핵심 저널에 출판된 영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PCC(Population, Concept, Context) 기준에 따라 검색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 정의한 포함 및 제외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별하였다. 최종 포함된 문헌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이론적 프레임워크, 교수 정체성의 개념 및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11편의 문헌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2020년 이전 3편(27.3%), 2021년 이후 8편(82.7%)이 출판되어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출판된 저널은 BMC medical education 과 Medical teacher(각 4편, 36.4%)였으며, 연구 대상국은 인도네시아가 3편(27.3%)으로 가장 많았다. 교수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5편(45.5%)이었고, 나머지는 전문직 정체성 등 관련 개념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가 6편(54.5%)으로 가장 많았고, 양적연구와 평가도구개발은 각각 2편(18.2%), 혼합 연구는 1편(9.1%)이었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연구는 7편(63.6%)으로, 그 중 사회화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교수 정체성을 학생 중심의 교육 질 향상 및 정체성 발달을 위한 역할 모델로 다루었다. 관련 요인은 내재적 요인(자기효능감, 동기 등)과 외재적 요인(조직문화, 제도적 지원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은 교수 정체성 형성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결론: 지난 15년 간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수 정체성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정체성 형성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수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임상교수의 교수 정체성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수개발, 교육제도 설계, 조직문화 개선에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P-28

인적자원개발관점에서 본 의학교육학교실의 역할과 책임

김근호, 강예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의료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의과대학 교육정책 변화 등 의학교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의학교육학교실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학의 세부 학문인 인적자원개발(HRD) 관점에서 의학교육학교실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학교육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주요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학교실이다.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연구 보고서를 활용한 이론적 문헌 연구이며, 둘째는 실제 국내외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결과: 의학교육학교실의 역할과 책임은 인적자원개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규명할 수 있다. 개인개발 영역에서는 학생 개인의 학습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조직개발 영역에서는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력개발 영역에서는 교수진의 경력 관리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의학교육학교실의 역할과 책임을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정립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학교육학교실의 기능을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학생과 교수진의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의학교육학교실이 변화하는 의료교육 환경에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P-29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의대교수 및 전문의들의 내적동기 탐구

김강문¹, 양현경¹, 심선희²

¹건국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²은평성모병원 소아응급센터

목적: 질적연구를 통하여 중증응급진료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의 내적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양적으로 검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

대학병원 및 3차병원에 종사하는 전문의(주로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내적동기를 질적으로 탐색하여 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대상 및 방법: 대상: 1개 대학병원, 1개 3차병원에 재직중인 중증응급진료 종사 전문의 중 참여를 원하는 자

방법: 현상학적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필수의료에 대한 관점과 경험을 수집함으로써 참여자의 내재적 동기를 탐구하고, 가능할 경우 의사의 중증응급의료 참여에 대한 경험적 모델 제시

결과: 대학병원 의대교수로 재직중인 참여자 1인에 대한 pilot study결과, 다음과 같은 1차 주제가 도출됨: 'role model', '웰빙의 고려', '환자-의사관계의 성격에 대한 고려', '환자 치료 후 느끼는 자부심', '학습한 것과 실제 진료와의 괴리', '학생과의 유대관계', '병원 내 consulting의 어려움', '추가업무에 대한 보상의 부재', '긴급상황에 대한 엔돌핀이 도는 경험', '소송의 부담', '방어진료', '환자의 요구파악과 미리 설명하기', '전공의의 바쁨'.

결론: Pilot study결과,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해당 전문의의 내재적 동기는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탐구되어야 함. 특히, 제도적 맥락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고, 환자치료에서 오는 자부심과 기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P-30

한국의학교육학회지 원저에 참여한 연구자 네트워크 - 2015~2024년

이동욱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국

목적 :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989년 6월부터 국문 학회지(KJME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를 발행 하였고, 2007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지(KCI)가 되었다. 2016년부터 영문학술지로 변경 되었고, 2016년 Pubmed central, 2019년 SCOPUS 등재지가 되었다. KJME에 원저를 게재한 연구자와 연구자 그룹 간의 공동 연구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KJME에 원저를 게재한 연구자 및 연구자 그룹의 연결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25년 1월 14일 SCOPUS(<https://www.scopus.com>)에서 KJME;2015;27(1)~2024;36(4)의 분류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CSV file로 내려받았다. KJME 자료 중 원저에 2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와 소속을 선택하였다. 연구자들의 연결망 분석을 위해 KnowledgeMatrix plus(ver 0.80)와 UCINET 6 for windows(ver 6.478)를 이용하여 연구자 및 공동연구그룹의 연결망과 연구자 개인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 2015~2024년 KJME에 게재된 원저는 206편이었으며, 주저자 및 공저자 포함 785명이 있었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519명이었고, 이중 2회 이상 참여자는 109명이었다. 제일 많이 참여한 연구자는 15편으로 Park, Kwi Hwa이었다. 외국인 연구자 중 Findyaritini, Ardi와 Samarasekera, Djuepa는 6편씩 참여하였다. 연결망에서는 여러개의 공동연구 그룹과 개별 연구자로 구분되었다. 연결중심성에서는 Lee, Seung-Hee, 매개중심성에서는 Chae, SuJin의 순위가 제일 높았다.

결론 : KJME 원저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국내뿐만아니라 외국 연구자들도 많았다. 또한 공동연구도 단일 그룹과 다기관의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수에 비해 연결중심성이나 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자가 있었으며, 향후 공동연구를 할 경우 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면 다기관 공동연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KJME 원저만을 분석한 연구로 게재 편수로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다. 향후에는 여러 교육학회지를 분석하여 국내연구자들의 더 큰 연구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P-3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 경험 분석: 수업, 임상실습, 연구 참여 및 교외 활동을 중심으로

나승주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제공한 학습 경험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학습 경험인 잠재적 교육과정을 파악하여 학습문화의 개선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상 및 방법: 2019~2024년 차의학전문대학원 졸업설문 응답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연도별 설문 응답자는 2019년 33명(100%), 2020년 41명(93.2%), 2021년 39명(92.9%), 2022년 40명(90.9%), 2023년 39명(97.5%), 2024년 37명(97.4%)로 총 229명(95.0%)이었다.

졸업설문의 4년간의 의전원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 중 1) 수업 및 평가 관련 경험(10문항), 2) 임상실습 경험(11문항), 3) 연구경험(6문항), 4) 정규과정 이외의 활동 경험(7문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예/아니오의 양자택일로 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졸업연도별 응답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jamovi 2.6.13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1) 수업 및 평가 관련 경험: 수업시간에 교수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86.8%)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77.9%). 평가방법과 결과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78.3%), 성적을 통해 성취를 느끼고 있었다(77.9%) 시험공부 시 강의록보다 족보 위주로 공부한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53.4%). 수업에 비해 평가 관련 경험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이 낮았다.

2) 임상실습 경험: 임상실습 중 교수(86.4%)와 전공의(82.1%)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환자들은 학생들을 학생의사로서 존중해주었으며(90.6%), 학생들도 환자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였다(98.3%). 65.6%의 응답자가 임상실습 평가방법과 결과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였다. 임상실습 경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코로나-19 경험에 따라 졸업연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연구경험: 학점이 부여되는 필수 연구실습 외에도 교수님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49.1%였으며,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자로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국내 학술지 31.0%, 해외 학술지 30.6%였다.

4) 정규과정 이외의 활동 경험: 해외 의료기관(41.6%)과 연구기관(23.5%)에서 실습경험이 있으며, 1~2학년 때 국내 의료기관 서브인턴십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39.3%였다.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에 47.4%가 의료봉사 외의 사회봉사는 65.5%가 참여하였다. 지역사회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41.6%가 참여하였다.

결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경험을 하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평가 시스템의 개선, 연구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다양한 교외 활동 지원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의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다면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P-32

한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재학생, 졸업생 인식도 조사

김경한, 이민정,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목적: 한의과대학의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재학생과 졸업생(한의사)의 인식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설문지는 연구진에서 개발하여, 10명의 한의과대학 교원의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재학생 설문조사를 위해서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을 통해 12개 한의과대학 학생에게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졸업생 설문조사를 위해서 대한한의사협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W대학교 윤리위원회(IRB) 승인 후 진행되었다.(WSOH IRB H2403-03)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한의과대학이 통합 6년제로 학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2.53점, 2.01점)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다.(3.54점, 3.87점) 교육과정 비율은 교양(10.4%, 10.6%), 한의학 기초(25.2%, 22.7%), 의료 인문학(14.9%, 13.0%), 임상의학(49.5%, 53.7%)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평가에서 유급제도의 필요성은 재학생(3.46점)과 졸업생(3.95점)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가방법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절대평가(61.4%, 65.7%)를 선호하였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공동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4.18점, 4.16점)

결론: 한의과대학 재학생, 졸업생 모두 통합 6년제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수요에 맞게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겠다.

P-33

교육 개선을 위한 핵심역량 요구분석

신형석, 김재훈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학교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핵심역량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핵심역량의 교육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 전임교원과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전임교원 56명과 졸업예정자 71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전임교원 35명과 졸업예정자 58명의 설문응답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해당 학교의 핵심역량 체계는 7개의 대역량(비판적 사고, 의료 윤리 및 전문직업정신, 의사소통, 생의과학적 이해, 임상 역량, 의료기관의 관리 및 경영, 지역사회 구강 보건 역량)과 50개의 세부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 세부역량에 대한 중요도-수행도(IPA) 분석과 대응표본 t-test,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개선이 필요한 핵심역량과 교육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결과: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교수들이 인식하고 있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수준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수행도 수준에 비해 낮았으며, 교수들은 모든 핵심역량의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대부분 임상 역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역량에 속한 핵심역량을 제외하면 교수들의 경우 생의과학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차선순위로 꼽은 경향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경우 차선순위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경영과 지역사회 구강 보건 역량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꼽았다.

결론: 교수들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교육개선 우선순위로 꼽은 임상 역량에 해당되는 세부역량과 관련된 수업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하거나 실습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차선순위로 제시한 핵심역량이 다른 이유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를 수업 또는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P-34

다학제적 전문가간 팀 티칭과 팀 학습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도상훈련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

천경희¹, 정선영², 박영순³, 김재연⁴, 이소진⁴, 최성애⁵, 이승진⁶, 여채원⁶

¹건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건양대학교 간호학과, ³가톨릭관동대 의학교육학교실,
⁴건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 ⁵호원대학교 간호학과, ⁶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목적: 본 연구는 2024학년도에 제주권역에서 시행한 감염병 대응 도상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시행 및 평가활동 등에 있어 팀 티칭과 팀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가간 교육 (I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및 방법: 2024년 11월 제주권역 감염관리 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모의 도상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총 5명의 퍼실리테이터와 2명의 전문 에이전트(감염전문가 1명, 의학교육전문가 1명)가 운영에 참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5시간에 걸쳐 응급실 환자 선별 및 격리, 감염 관련 수술실 응급상황 대처, 감염병 확산상황 대처 등의 4개 과제를 수행하며, 커버스토리에 기반하여 자신의 역할과 미션을 수행하는 목표기반 시나리오의 도상훈련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평가 전 과정에서 전문가 간 협력 기반 팀 티칭과 팀 학습을 핵심 전략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 사후 평가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5명의 교육운영 팀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도상훈련 경험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교육 관련 사전평가 점수($n=30$, 4.43 ± 0.68)보다 사후평가 점수($n=28$, 4.79 ± 0.42)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40$, $p<0.01$), 교육내용, 강사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48 \pm 0.628 \sim 9.72 \pm 0.528$ 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강사들의 교육준비 충실도에 가장 만족하였으며, 교육참여 후 신종감염병 특징과 대응원칙, 대응계획 수립, 적절 보호구 착용, 격리 및 이송방안, 접촉자 분류 등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t=-8.801$, $p<.001$). FGI 결과, 지침과 행위 간의 격차 해소, 의료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대책 마련,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한 상호보완적 지식 상승과 활동 시너지 발휘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자의 강한 몰입감과 성취감이 관찰되었으며, 개인 역량과 팀 역량이 함께 강화되고 감염관리 교육자로서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경험하였다고도 보고하였다.

결론: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개발되고 운영된 복합문제해결 교육훈련과 목표기반 시나리오를 활용한 팀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학습성과와 감염관리 관련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염병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 간 협력과 몰입이 요구되는 사례 및 교육 시나리오 기반의 도상훈련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자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열 교육에서도 문제해결형 도상훈련 기반의 전문가간 교육 활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P-35

TBL에서의 동료평가 피드백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채수진

울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동료평가를 통해 제공된 피드백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개인적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은 교육역량 및 전문직업성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량은 특히 역량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에서 중요시된다. 비록 기존의 연구들에서 동료평가의 장점이 다각도로 입증되었으나, 많은 의과대학은 동료평가의 적극적 적용을 꺼리고 있으며, 동료평가의 결과를 학업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도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료평가 피드백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교육적 효과를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U 의과대학은 본과 1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ICM(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1 과정을 2주간 운영하였으며, 과정에서 2회의 TBL(team based learning)을 실시하였다. TBL을 모두 실시하고 동료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학생들은 동료들이 평가한 피드백 내용을 받았다. 학생들은 피드백을 받은 이후 성찰일지를 자유롭게 작성하였다. 이러한 성찰일지는 Colaizzi의 분석 절차에 따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총 200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13개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8개의 주제와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동료평가 피드백에 대한 반응은 인지적, 감정적, 태도변화, 평가 과정 및 수업에 관한 반응이 나타났다. 감정적 반응으로는 감사와 뿌듯, 인정을 받은 경험이 나타났고, 인지적 반응으로는 노력에 따른 긍정적 평가와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다. 반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도 보고되었다. 또한, 동료평가 이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태도변화가 일어났으며, 일부학생들은 동료평가 제도에 대한 성찰을 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동료평가가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는 동료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동료평가의 효과를 비교하고, 피드백의 질과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P-36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대한 탐구 기반 학습이 학생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소영¹, 문재영², 김정란³, 이주희^{2,4}, 이윤정⁴

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³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⁴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목적: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기나 혼란한 사회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은 학습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이라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갈등과 사회적 이슈의 영향을 교육과정을 통해 소통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의 정서적 반응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업 전후 학생들이 느낀 감정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 감정 조절, 자기 성찰,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인문사회의학 7'은 4학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2024년에는 기존 2주 과정을 1주로 단축하여 운영되었다. 총 12명의 학생이 3개 조로 나뉘어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와 토론, 피드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전후에는 무드미터를 활용해 감정과 그 이유를 기록하게 하였으며, 응답은 멘티미터로 수집되었다. 감정 점수는 교차분석(χ^2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감정 변화의 이유는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한 후 빈도(n)와 비율(%)을 산출하여 정성적으로 해석하였다.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주제로 한 탐구 기반 학습 참여 전후의 감정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업 전 25건에서 수업 후 32건으로 감정표현이 증가하였다. 또한 감정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10.82$, $p < .001$). 감정 점수의 평균도 수업 전 1.35점에서 수업 후 2.21점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t = -3.93$, $p < .001$). 즉, 학생들의 정서가 부정적 상태에서 보다 긍정적·성찰적으로 방향으로 변화했다. 정서 변화의 이유는 수업 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불확실성'(5건, 38.5%)과 '상황 인식 및 분석 부족'(5건, 38.5%)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개인적 성향 및 경험'도 3건(23.1%) 확인되었다. 수업 후에는 '자기 성찰 및 인식 변화'가 6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황 인식의 확장' 3건(18.8%), '미래에 대한 태도 변화' 2건(12.5%) 등이 나타났다. 동시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무기력감 관련 응답도 4건(25.0%) 나타났다.

결론: 정서적 부담이 우려되던 이번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감정 조절과 자기 성찰, 사회 인식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감정 표현은 증가했고, 정서는 부정에서 성찰과 긍정으로 전환되었으며, 감정의 근거도 보다 성숙한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본 수업은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이었다.

P-37

교육 혼란 속에서 지속된 일개 의과대학 질관리 사례를 통한 교육회복탄력성 탐색

이소영^{1,2}, 설지영³, 정성수⁴, 김진현⁴, 나기량⁴, 김수일⁵, 이영⁶, 강준원⁷, 김형석⁸,
 이주희^{4,9}, 김주연⁹, 송지선⁹, 조현주²

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 ³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⁴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⁵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⁶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⁷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⁸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목적: 본 연구는 2024년 교육 환경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 평가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에 따른 평가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 활동이 교육의 질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교육 평가가 수행된 의미와 기능을 조명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유연한 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교육 혼란을 겪은 2024년의 교육 운영 및 평가 과정을, 혼란 이전인 2023년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과 2024년의 관련 위원회 회의록과 결과 보고서를 수집·분석하고, 2025년 4월 평가에 참여한 교수 4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CIPP 평가모형과 교육회복탄력성 개념(Flexibility, Continuity, Collaboration, Inclusiveness)을 바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Context 측면에서는, 2024년 교육 환경은 학생 수업 거부와 학사 중단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이 시기의 평가는 고유의 목적인 교육 질 향상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체계의 유지와 회복에 목적을 두었다. Input 측면에서는, 2023년에는 정량·정성 평가와 학생평가단 등의 활동이 활발했으나, 2024년에는 학생 수가 적어 정량 평가가 어려워졌고, 질적 평가 체계가 중심이 되었다(Flexibility). Process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교육 평가와 관련 위원회의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대체 피드백 방식이 도입되는 등 유연한 운영 방식이 적용되었다. 일부에서는 적은 학생수임에도(Inclusiveness) 교육과 평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운영 주체, 교육시스템 간의 상호작용(Collaboration)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중단되었던 교육 활동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Product 측면에서는, 대체로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지만 일부는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특히 1학기보다 2학기에 학사 운영과 평가 운영 체계가 점진적으로 보완되었다. 비록 평가 환경은 제한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교육의 방향성과 질관리 체계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음(Continuity)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평가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 교육과 평가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위원회의 노력은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과대학의 회복 탄력성과 책무성을 보여준다. 정량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기별 평가를 유지한 것은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도 질관리 체계의 유연한 유지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교육 평가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교육의 방향성과 본질을 지키는 핵심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P-38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중환자 진료 VR 시뮬레이션 개발 및 적용: 고위험 산모 시나리오 기반 사례

김세진^{1,2}, 이수경³, 김미라⁴, 김미란⁵, 유지혜¹, 정현주⁶

¹아주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³아주의대 임상교육센터, ⁴아주의대 의학교육실,
⁵아주의대 산부인과학교실, ⁶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목적 : COVID-19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중증 환자 관리 실습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나 기존의 교육 방식은 임상 상황을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경험 및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반응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고위험 산모 진료 과정과 감염관리 절차 학습을 목적으로 VR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학습자는 COVID-19 확진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 평가부터, 분만, 산후 출혈 관리까지의 임상현장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PPE 착의 및 탈의, 의료폐기물 관리 등의 감염관리 절차를 수행한다. 각 상황은 사전에 설정된 필수 행위를 모두 수행해야 다음 상황으로 진행되며, 행위는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과 병렬적 수행이 가능한 행위로 구분된다. 프로그램은 Oculus Quest 2를 활용하여 HMD 및 컨트롤러 기반의 상호작용형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현하였다. 학습자는 컨트롤러를 통해 환자 사정, 의료기기 조작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술기의 구체적 수행보다는 의료행위에 관한 의사결정과 전반적인 절차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2~4인이 함께 참여하기에 적합하며, 정상적인 진행 시 약 20분이 소요된다. 프로그램 적용에는 총 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몰입도(Flow in Education Scale), 인지된 학습(Perceived Learning Scale), 사용성(VRSUQ 및 SUS), 프로그램 효과성(자체 개발 6문항)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 기술통계 결과, 중립 점수(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몰입도와 인지된 학습 수준이 확인되었다. 사용성 또한 두 가지 도구를 통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습생들은 본 프로그램이 기대한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론 : 본 연구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새로운 실습방법으로서 V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의학 및 간호교육에서 실감형 교육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감염관리 절차와 중증환자 대응 및 진료 과정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VR 교육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P-39

의료 리더십 역량 프레임워크(MLCF)에 기반한 리더십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임지현^{1,2}, 최효선³, 강화선^{1,4}, 김은기⁵, 이동현^{6,7}

¹SLICE center for faculty development,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²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³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wangju, Korea, ⁴Department of Medical Life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⁵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⁶Department of Physiology,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ocheon, Korea, and ⁷CHA Institute for Future Medicine, Medical Center Research Institute, Seongnam, Korea

목적: 의료 분야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지만 의과대학 커리큘럼 내에서는 여전히 분절되어 있다. 일관된 통합성이 결여된 고립된 교과목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의료 리더십 역량 프레임워크(MLCF)를 사용하여 한국 의과대학의 리더십 커리큘럼과 역량을 조사함으로써 리더십 개발을 강화하는 교육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에서 리더십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리더십 역량과 커리큘럼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34개 의과대학에서 이에 응답하였으며 빈도 및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교육기관의 사명, 교육 목표 및 졸업 역량에서 리더십 관련 내용은 주로 MLCF 영역 1과 2에 맞춰져 있었다. 리더십 과정은 주로 의예과 및 의학과 단계였으며,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리더십 하위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 단계별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임상 실습 기간에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으로는 영역 1과 2, 특히 2.2(관계 구축 및 유지), 2.4(팀 내에서 일하기), 1.4(정직하게 행동하기)가 꼽혔다. 응답자의 61.8%가 리더십 커리큘럼을 개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적 맥락에서 의료 리더십을 정의하고 리더십 역량을 구체화하며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결론: 한국의 의료 환경을 반영한 의료 리더십 교육과 역량 기반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며, 잘 통합된 리더십 커리큘럼은 의대생들이 미래의 보건의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다.

P-40

리더십 교육 연구동향 분석과 의과대학 리더십 교육의 전략

최효선¹, 이동현²

¹조선대학교 의과대학, ²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목적: 의대생을 포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리더십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내 학술논문에서 나타난 리더십 교육의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리더십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및 방법: 이를 위하여 KCI를 활용하여 '리더십', '교육', '대학', '학생' 등 리더십 교육에 관한 주제어로 검색하여 200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행된 129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연구내용, 연구방법, 교육대상, 리더십 정체성 개발 단계에 따른 교육목적, 교육내용으로 정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교육심리 분야의 연구내용,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간호학 전공 학생이나 교양과목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리더십 교육의 목적은 주로 리더십 정체성 개발 단계 1단계에 해당하였다. 리더십 교육에서 다루는 리더십 유형은 주로 셀프리더십이었다. 특히 의과대학의 리더십 교육의 주요 특성과 내용을 세부 분석하였다.

결론: 분석 결과에 따라 리더십 교육에 관한 연구 및 리더십 교육의 실천에 있어 다양한 전공과목이나 대상과 리더십 유형의 확장, 다루는 주제의 다변화, 리더십 정체성 개발의 여러 단계를 포괄할 수 있는 교육목적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의과대학 리더십 교육에도 유효한 교육 전략이다.

P-41

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5년간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기반 교육의 질 관리 활동 성과와 성찰

천경희¹, 이영진², 이태희³, 윤정민⁴, 이정림⁵, 구관우⁶, 권택근⁷, 이정아⁸, 정수진⁹

¹건양대 의학교육학교실, ²재활의학과, ³소화기내과, ⁴소아청소년과, ⁵미생물학교실, ⁶심장혈관흉부외과, ⁷심장내과, ⁸행정실, ⁹의학교육지원센터

목적: 건양대는 2019년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년간의 협력과 연구에 기반한 질관리 활동에 임해왔다. 이에 2019년~2023년까지 5년간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실행적 노력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질적 개선 활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성찰적 제안을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9~2023학년도까지 건양대의 질관리 활동을 매년 기록한 5년간의 '의과대학 질관리보고서'에 기반하여 자체적인 질 관리 모델 개발, 모델에 기반한 평가도구 개발, 평가활동 및 성과평가 결과와 보고현황 및 개선 사항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5년간의 성과와 개선 과정에 대한 주요사건 기반 내용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3년 이상 교육의 질 관리 활동에 참여한 의학교육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성찰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 후 전사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질적 분석 결과는 인터뷰 참여자의 검토를 거쳐 성찰 내용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결과: 2019년의 주요사건은 질관리 체제 및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시행으로 KYUM-TQM 모델이 개발한 것이며, 질관리위원회 발족 및 9개 영역 60개 지표 선정과 PDCA 기반 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2020년의 주요사건은 관련 규정이 제정되고, 질관리 큐브모델이 정교화 되었으며, 2019학년도 교육성과에 대한 의학교육 전문교수진의 시범 평가가 시행된 것이다. 2021년의 주요사건은 전 현직 보직자와 본부 보직자 및 교직원을 포함하는 질관리위원회를 확대하고, 19명의 평가패널을 선정하여 교육의 과정 지표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2022학년도 주요사건은 평가패널을 학생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2023학년도는 그간 개발 운영한 교육의 과정 지표평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한 점으로 체제 및 체계 점검에 주력했던 질관리 평가의 기본 방향을 실행수준 점검으로 전환하고, 60개 지표를 30개 지표로 개선하였으며, 직전년도 평가를 위하여 패널을 총 26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2024년에는 교육의 과정 평가지표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4명의 자문을 득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결론: 교육의 질 관리 평가가 정착되고 적응기를 맞이하기까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모델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워크숍과 가이드북 제작 등을 시행하여 질관리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으며, 평가 패널로 일반 교수진을 참여시켜 대학의 노력과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본부보직자와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 평가나 교육활동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적 워크숍을 통한 기존의 평가 방법을 유지하되 각 영역별 의학교육 전문교수진 활용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더 요구되었다. 평가지표 간소화를 통한 천정효과 해소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평가 의사결정을 위한 인지적 노력이 더 요구됨으로 인해 일부 평가항목들에서 실행 점검을 위해 보다 세부화할 필요성이 제안

되었다. 이러한 질관리 활동을 기반으로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대학 내 활동에서 계획 기반의 실행과 점검, 개선이 일상화 되었으며, 시행 단위별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활동에 의의가 있다.

P-42

WFME 의학교육 기준과 변혁적 교육 담론의 접점 탐색: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강철,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 본 연구는 WFME(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의 Basic Medical Education Global Standards (2020) 문서를 교육 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당 문서가 지향하는 의료전문직 정체성과 교육 가치가 UNESCO가 제안한 변혁적 교육 담론, 특히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핵심 가치들과 어떤 접점을 형성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연구 대상은 WFME의 2020년 개정 의학교육 국제 표준 문서이며, 연구방법으로는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채택하였다. 분석틀은 Mezirow의 변혁적 학습 이론과 UNESCO의 GCED 및 ESD 담론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 가치 범주(비판적 성찰, 정체성 형성,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문화 감수성)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 WFME 문서는 사회적 책임성과 문화 감수성 측면에서 변혁적 교육 담론과 일부 교차되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비판적 성찰, 지속가능성, 실천 중심의 시민성 형성과 같은 가치들은 교육 목표나 설계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교육의 주요 초점은 여전히 역량 중심의 전문가 양성에 있으며, 이는 WFME 담론의 교육 철학이 기술적-성과 중심 구조에 기반함을 시사한다.

결론 : WFME의 기준은 국제 의학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규범적 문서로서, 특정한 교육 가치와 인간상을 중심화하는 담론적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GCED/ESD 관점에서 그 담론 구조를 해석함으로써, 의학교육이 정의, 지속가능성, 시민성을 포함하는 교육적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P-43

신경계 기초-임상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국내외 의과대학 교육과정 비교

곽서의¹, 부승연¹, 송민섭¹, 송재연¹, 유임주², 이영미³, 김수연³, 한규만⁴, 노지훈⁵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²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³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⁴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⁵고대안암병원 신경과

목적: 국내 의과대학의 신경계 교육과정은 대부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습 내용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 의과대학의 신경계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근거를 도출하고 장단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진은 영국과 미국의 주요 의과대학 13개교 및 한국의 13개 의과대학, 총 26개 대학의 신경계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헌 및 사례 보고서, 커리큘럼 맵, 강의계획서, 시간표, 수업자료 등을 수집하여 교과목의 시기적 배치, 기초-임상 간 연계 구조,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반복 구조 등을 분석했다. 통합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의학과 2~3학년 학생 4인의 수업 참여 경험에 기반한 정성적 분석 의견을 추가하여 교육 효과에 대한 해석도 포함하였다.

결과: 영미권 13개 대학 중 9개교는 기초신경과학, 신경학, 정신의학 등 신경계 관련 교과목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다학제적 융합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초 및 임상과목을 기능 단위 또는 질환 중심으로 동일 블록 내에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신경계 블록은 본과 1~2학년 초반에 집중 배치되어 기초지식이 임상 맥락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기적 연계가 강화되어 있었으며, TBL, PBL, 실습, 증례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병행되었다. 반복 학습 또한 명확한 교육 목표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학습 전이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 13개 대학의 경우 기초와 임상 교과목이 시기적으로 분리되어 배치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기초신경과학은 본과 1학년에, 신경학 및 정신의학은 본과 2학년 이후에 분산 배치되어 시기적 연계가 제한적이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기초 개념을 임상 교과목 서론에 반복 배치하거나 연속된 블록 구조를 활용하여 제한적 병렬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교육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통합 모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신경계 기초-임상 통합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임상 맥락 이해와 지식 전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국내의 신경계 통합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결과는 한국 의과대학 신경계 교육과정의 통합적 재구성을 위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포함한 다학제 기반의 구조적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44

전공의 교육에서 선천성 소아심장기형 3차원 병변 모델의 교육적 효과성 평가

김선주¹, 곽재건², 이승희¹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흉부외과

목적: [연구 배경] 선천성 소아심장기형은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병변이 작아 2차원 영상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어려운 질환이다. 최근 3차원 프린팅 기술은 수술 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공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체계적 활용 사례가 드문 실정이다. 특히 수술계 교육에서 ADDIE와 같은 교수설계 모형이 구조화되어 적용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3차원 병변 모델을 전공의 교육에 적용하고, ADDIE 교수설계모형을 바탕으로 수술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설계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유도하고, 향후 다양한 수술 교육에 확장 가능한 교육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교병원 소아흉부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선천성 소아심장기형 환자의 3차원 병변 모델을 학습 자료로 활용한 교육 실험을 설계하였다. 연구군은 ① 2차원 영상만 제공받는 대조군, ② 2차원 영상과 3차원 프린팅 모델을 제공받는 실험군1, ③ 3차원 이미지, 프린팅 모델, ADDIE 교수설계 적용 수업을 함께 제공받는 실험군2로 나누며, 총 6명의 전공의를 무작위로 배정할 계획이다.

증례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2018~2024년 사이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병변 특성이 뚜렷한 사례를 선정하며, 학습 효과 평가는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질적·양적 데이터로 수집할 예정이다.

교육 전·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인지 변화, 공간지각력, 병변 이해도 등을 평가하며, 3차원 모델과 수업 설계 간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결과: 본 연구는 단순한 모델 활용에 그치지 않고, ADDIE 기반 교수학습 설계를 통해 전공의 대상 수술 교육에서 실질적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공의 인력 확보 시 실험적 효과 검증을 통해, 수술계 전문과목 교육에 구조화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시사점] 수술교육에서 체계적인 교수학습 설계모형(ADDIE)의 적용함으로써, 경험 중심의 기존 수술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3차원 프린팅 모델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자료가 교육 효과성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점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시사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수술계 의학교육에서 표준화된 교육설계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교수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잠정적 결론] ADDIE 기반 수업설계를 통해 구조화된 교육을 제공할 경우, 전공의의 병변 이해도와 학습 몰입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차원 시뮬레이션 자료의 활용은 수술 전 병변 구조 인지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기존의 비구조화된 수술교육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P-45

의료시스템과학(HSS) 틀을 활용한 '인문사회의학' 학습성과 개발 연구

이수지¹, 김선경², 이해윤³, 임선주⁴

¹부산대학교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²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³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⁴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 의료시스템과학(health systems science, HSS)은 인문사회의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틀(framework)로써 기초의학, 임상학과 더불어 의학교육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HSS 틀을 활용하여 P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인문사회의학 학습성과를 개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P대학원의 기존 학습성과를 검토하여 인문사회의학 학습성과를 일차적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학습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합의 기법인 델파이 연구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타당성 확보와 추가 합의를 위해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을 활용하였다. 우선 델파이 조사는 기초한의학·인문사회의학 전문가, 개원한의사, 임상한의학교수, 한의학교육 분야의 전문가 등 4개 분야에서 총 20명을 대상으로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에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내용타당도를 활용하였으며, 내용 타당도 0.42 점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총 3라운드의 델파이 조사 후, 연구 참여자 중 각 세부 영역별 1명씩 선정하여 총 4명을 대상으로 명목집단기법(NGT)을 실시하였다. NGT는 비교적 적은 인원의 소그룹이 대안의 순위를 정하고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는 기법으로서, 델파이 연구에서 합의되지 않은 문항을 중심으로 각 전문가가 대안적 의견을 제시한 후 토론을 통해 최종학습성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결과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진이 도출한 학습성과 39개 문항 중 1차 델파이 조사에서 16개 문항이 내용 타당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자유의견을 반영하여 핵심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영역 내용과 범주를 명료화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11개 문항이 내용 타당도가 낮게 나타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역량 기술에서 예시를 제시하고 행동 용어로 수정하여 문항 내용의 구체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7개 문항의 내용 타당도가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기준 미달 문항을 검토하고 학습성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NGT를 시행하였다. NGT에서는 선정된 분야별 대표전문가와 연구진이 브레인스토밍과 심층 토론에 거쳐 39개의 합의된 최종학습성과를 도출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전문가 합의 기법을 통해 인문사회의학 학습성과를 타당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는 HSS 틀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인문사회의학의 학습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에서 도출된 학습성과를 통해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HSS와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P-46

Development of a Team-Based Learning (TBL) Module for Integrating Basic and Clinical Medical Education: A Preventive Medicine Case Based on the Clinical Presentation of Chest Pain

김미지^{1,2}, 황진용^{2,3,4,5}, 강윤식^{1,2,5}, 정백근^{1,2}, 박기수^{1,2}, 지영아⁶, 김장락¹

¹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³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⁴경상국립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⁵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⁶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 Bridging the gap between basic medical science and clinical practice is essential for developing students' clinical reason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Team-Based Learning (TBL) module that allows medical students to apply key epidemiological concepts, learned in preventive medicine, to the clinical presentation (CP) of chest pain and chest discomfort.

대상 및 방법 : The module was implemented as part of an integrated basic-clinical course for first-year medical students, co-taught by the Departments of Preventive Medicine and Cardiology. The TBL session included three components: (1) pre-class preparation using reading materials and online resources as part of a flipped learning approach, (2) an Individual and 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IRAT/GRAT), and (3) an application test using clinical cases and epidemiologic data. Students analyzed risk factors from patient cases, interpreted community health indicators, calculated epidemiologic measures such as prevalence and odds ratios, and practice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in teams.

결과 : Over a 4-hour session, students experienced how preventive medicine concepts apply in real clinical settings using chest pain as the central theme. Through collaborative learning in a TBL format, students enhanced both knowledge integration and teamwork skills. In the application test, they worked on a case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dentifying risk factors and interpreting cross-sectional study results.

결론 : This CP-based integrated TBL module effectively connects epidemiological thinking with clinical reasoning. It provides a meaningful framework for applying basic science knowledge in clinical contexts. Future evaluations will assess educational impact and support the expansion of this integrated model to other clinical presentations.

P-47

역량기반 인문사회의학 캡스톤 프로젝트 교과목 개발

이영준¹, 이일학², 한은정³

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³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

목적: 캡스톤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현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론과 지식을 선택하고 적용하며 통합시킬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성장, 리더십, 팀 활동 기술의 계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량기반 인문사회의학 캡스톤 프로젝트 과목의 수업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대상 및 방법: 서울시에 위치한 사립 의과대학은 최근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의 마지막 교과목을 의학과 3학년 말에 2주간 실습 과목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교과목은 의예과 1학년부터 진행되는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에서 학습하고 배운 것을 정리하고 현장 참여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목 개발은 Kern의 6단계 접근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과: 교과목 개발은 2023년 5월에 시작하였다. 총 4회의 준비회의를 통해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규명하였고(문제인식 및 포괄적 필요 평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현장 참여형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검토하였다(과목 특정적 필요 평가). 의과대학 졸업성과 및 핵심역량에 근거하여 학습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였으며(과목 목적과 목표 설정), 구체화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 방법으로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을 선정하였다(교육 전략 선택). 이후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위원회는 교과목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보완해나갈 주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TF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매뉴얼, 각종 양식, 평가 요소 및 루브릭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목운영 설명회를 진행하였다(교과목 시행). 향후에는 교과목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할 예정이다(평가와 피드백).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캡스톤 프로젝트 교과목은 의과대학의 졸업성과 및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설계하였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의료현장의 인문사회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해보고 성찰하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P-48

내러티브 기반 의료인문학 교육의 적용: 임상 실습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장경주^{1,2}, 이가람⁴, 이재호^{1,2,3}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¹의료인문학교실, ²학생지원센터, ³해부학교실, ⁴영남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목적: 의학교육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시대적 변곡점에 직면하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기존의 개별 지식 습득과 소유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수용하고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경험 중심의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학교육은 임상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존중의 자세를 함께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험 중심 교육으로서 조기 임상 노출과 역량 개발을 위한 의료인문교육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및 방법: 연구를 위해 대구 모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총 80명을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소집단 6~7명으로 구성된 총 12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상실습 교육 중 의료현장 방문 경험 직후 집단별로 60분간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회학에서 알려진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인 Elo와 Kyngäs의 귀납적 질적 내용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의료현장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식한 임상 역량과 담화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는 먼저, 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 진료 능력, 환자에 대한 지지적 태도, 의사소통 능력, 자기 개발, 미래 의학 및 연구, 프로페셔널리즘 등 6개의 범주로 나누어졌으며, 총 16개의 문장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집단면담 경험을 통해 담화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자아 인식 능력, 자아 표현 능력, 상황 인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4개의 범주에서 12개의 문장으로 구분되었다.

결론: 임상실습교육에서 집단경험의 교육적 의미는 첫째, 열린 학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임상 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둘째,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을 강화하며 셋째, 서사적 역량을 함양한다. 의대생들은 집단원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임상에 필요한 졸업역량을 구체화하고 명료함을 확인하였다. 동기들과의 공감적 소통 경험은 임상실천을 지원하는 교육으로서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집단면담의 담화적 기능은 의대생들의 상호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 인식과 표현을 돕고, 자기 성찰 및 학생들 간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능력으로 함양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험적-내러티브 교육은 의학적 추론과 임상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의학교육의 통합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P-49

국내 의과대학 학부과정에서의 리더십 교육 질적 연구

정을원¹, 고수완¹, 이영희², 채유미¹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 The ongoing medical crisis and professional resistance in South Korea, sparked by the government's decision to increase medical school places in 2023, has rais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hysician leadership in ensuring quality patient care.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icular content of Korean medical schools, providing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baseline of medical leadership training to inform future policies and strengthen leadership education.

대상 및 방법 : A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based on codes and thematic categorization, guided by the Medical Leadership Competency Framework (MLCF), was applied to assess the curricular content of Korean medical schools. Contents of undergraduate medical curricul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designated focal points in medical schools. The content analysis of a total of 270 courses revealed a total of 504 leadership codes.

결과 : Of the 504 leadership codes identified, 228 (45.2%) were codes within the "Demonstrating personal qualities" and 75 (14.8%) in the "Setting directions" domain, with a specific focus on medical ethics and law. Training and education on systems-based practice and team leadership roles were relatively weak. Among the 19 medical schools that had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ly eight schools had a medical curriculum that covered all five domains of MLCF.

결론 : While medical schools in Korea recognize certain leadership competencies, there is a need for stronger, more consistent integration of leadership development, especially in areas like teamwork and systems-based practice, to better prepare future physicians for the complex healthcare environment.

P-50

메디컬 리더십의 역량, 교육 시기, 및 방법 고찰

임춘학¹, 최유진², 임여진³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²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담체외과교실 3. 동인재교육원

목적: 의사들은 의료행위의 중심에 있으며,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복잡한 의료 환경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이 부재하며, 전문 학회에서도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학생, 전공의, 교원 단계에서 필요한 리더십의 기본 역량을 파악하고, 향후 메디컬 리더십 교육 내용, 교육 시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로 전공의, 임상교원, 전임교원과 조직의 장을 포함한 30명에게 학생, 전공의, 교수, 조직의 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조사하였고, 조직의 장을 역임한 6명의 시니어 교수를 대상으로 자문을 통해, 각 시기별 필요한 리더십 역량,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및 리더십의 실패 요인을 자문하였다.

결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의 경우 반드시 길러져야 할 3가지 리더십 역량으로 의사소통(92%), 갈등관리(63%), 번아웃/자기관리(54%)가 제시되었고, 전공의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역량(96%), 번아웃/자기관리(78%), 피드백역량(48%)을, 교원단계에서 의사소통역량(81%), 비전제시(62%), 갈등관리(52%), 조직의 장단계에서 비전제시(90%), 의사소통역량(70%), 갈등관리(65%), 역량이 제시되었다.

자문을 통하여서도 의사소통 능력과 팀워크는 학생, 전공의, 교원, 조의 장, 모든 위치에서도 공통적으로 길러져야 되는 역량으로 제시되었다.

리더십 역량 교육 방법으로 짧은 교육세션/워크샵, 온라인 자료제공, 모델링, 위원회 활동, 인문학적 소양, 벤치마킹 등이 제시되었다.

리더십에 치명적인 것으로 비윤리적 행동, 강압적 리더십, 피드백 부족, 소통 결여, 변화에 대한 저항, 독단과 준비 부족, 개인적 성취 우선, 과거의 성공 경험이 제시되었다.

결론: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 때부터 강조하며, 학생, 전공의, 교원 단계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갈등관리, 번아웃/자기관리 역량등을 워크샵 또는 강의로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학생의 경우 동아리 또는 팀 활동을 통해서 팀워크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을 익혀야 하며, 교원의 경우 조직운영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및 다양한 직종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또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조직의 장 및 조직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51

Required Training Experiences for Competency-Based Emergency Medicine Residency: A Delphi Consensus

Kyung Hye Park^{1,2}, Young-Min Kim^{2,3,4}

¹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²Quality Improvement in Residency Training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Seoul, Korea

³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목적 : Competency-based education (CBE) has recently been implemented to residency training in Korea. Required training experiences (RTE) for competency-based residency training depend on specialty and local contex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expert consensus on RTE and essential emergency procedures for competency-based emergency medicine (EM) residency curriculum to achieve specialty competencies and evaluate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 in Korea.

대상 및 방법 : Twenty-eight emergency physicians from various EM training programs were invited for two Delphi processes. We used a two-round modified Delphi method to achieve expert consensus as to what RTE and essential emergency procedures should be included in competency-based EM residency curriculum. Adult EM experience was not included in the first RTE survey. After the first round, discussion sessions were performed to reformulate the second-round questionnaire. Content validity ratio (CVR) concept was used for consensus decision.

결과 : Seventeen and eighteen experts participated in each modified Delphi process with two rounds of responses respectively. The RTE identified (CVR>0.529) were as follows: (1) pediatric EM, (2) trauma center, (3) critical care units, (4) simulation training for 12 topics. A total of 26 emergency procedures were identified (CVR>0.444) as essential procedures that must be experienced and assessed to achieve an EPA for procedural skills.

결론 : The modified Delphi processes yielded RTE and essential emergency procedures of a consensus core EM residency curriculum for CBE in Korea.

P-52

성찰적 학생 포트폴리오 평가의 신뢰성 분석: 교수 간 평가 경향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채수진¹, 권효진²

¹울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²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포트폴리오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학생에 대한 발달적 피드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성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과대학에서 시행되는 포트폴리오는 여러 평가자가 함께 검토하고 채점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는 평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찰적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나타나는 지도교수 간 평가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여 평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U 의과대학에서 5명의 지도교수가 평가한 학생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졸업역량 영역별(전문직업성, 교육과연구, 소통과협력, 자기개발) 평가 점수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과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그리고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A, B, C, D, E 교수 모두 자기개발 항목의 표준편차가 다른 항목들보다 높았으며 몇몇 교수는 자기개발 점수에서 극단적인 왜도 값을 보였다. C교수의 평균 점수(3.11)가 다른 교수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반면 D교수의 점수(3.96)는 높았다. E 교수는 모든 항목에서 다른 교수들과 부적 상관을 보여 평가 경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지도교수의 평가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평가의 신뢰성을 알아보았다. 성찰적 포트폴리오가 졸업역량 달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표준화 및 평가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P-53

라오스 국립치과대학 의학교육환경에 대한 학습자인식 중단연구

강은희¹, 김미엘², 김조은³, 권호범⁴, 임정준¹

¹서울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²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³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영상치학교실, ⁴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큰 취지 아래 라오스 치과대학의 장기적인 교육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및 방법: 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2020년, 2022년, 2024년에 라오스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 (DREEM)을 시행하였다. 각 연도별 설문조사에는 각각 213명, 314명, 13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연도 및 학생 집단 간 인식 차이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05$ 로 설정하였다.

결과: 다섯 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DREEM 점수는 전체적으로 2022년에 가장 낮았으며, 2024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년별 결과를 비교했을 때,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2022년에 점수가 증가한 반면, 3-4학년 및 5-6학년 학생들은 2022년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임상 교육 접근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P-54

대전, 세종, 충청남도(DSC) 지역에 종사하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경로 및 진로 선택 요인

이소영¹, 김정란²

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청남도(DSC)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의과대학 졸업생의 경력 경로를 파악하고, 각 단계별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과 진로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역 의료 인력 분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전·세종·충청남도(DSC)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봉직의, 개원의, 교수, 공직 등)에 종사 중이며 경력확립기 이후 즉, 의과대학 졸업 후 최소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보유한 졸업생 10인을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별하고, 이후 전문가 추천에 기반한 눈덩이표집을 병행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인터뷰는 2023년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질적 자료 분석은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개방코딩-범주화-주제화의 절차를 통해 주제와 범주를 도출하였다.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분석은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상호 교차 검토하였으며, 7년 이상 의료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의학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과: 경력 경로 단계는 '㉠ 의과대학 진학 결정, ㉡ 졸업 후 전공 선택(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대학원 포함), ㉢ 수련 이후 직장 선택'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 결정 요인은 '개인적 요인(흥미, 적성, 성격 등)', '사회적 요인(가족, 지인, 사회 분위기 등)', '직업 및 업무 환경 요인(수입, 근무환경, 진로 기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경력 경로 단계별 진로 선택 요인에는 차이를 보였다. 즉, 의대 진학 결정단계에서는 가족의 권유나 직업 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쳤고, 졸업 후 전공 선택에는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흥미와 적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수련 병원의 분위기나 선배의 조언이 중요했다. 수련 이후 직장 선택 단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성장 가능성, 수입 등이 결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졸업생들은 경력 성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대학과 병원을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경향 또한 나타났다.

결론: 의과대학 졸업생의 경력 결정은 단계별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 과정으로, 진로 교육은 BME, GME, CPD 각 단계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내 수련·취업 경로의 다양성은 의료 인력 유입에 기여하므로, 지역 중심의 진로 연계와 멘토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진로 교육의 방향성과 맞춤형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P-55

국내 의과대학 학생상담 조직 운영 현황 분석

이애화, 노재희, 김재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의과대학생은 높은 학업 강도와 정서적 긴장 속에서 학업 중단이나 번아웃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의 사회·정책 환경 변화는 학생들의 진로 불안과 정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서적 안정, 학업 적응,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는 학생상담 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또한 학생상담 체계의 마련과 지속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의 학생상담 조직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40개교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기준 각 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상담 조직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분석 항목은 상담 조직 설치 여부, 전담 인력 구성 및 운영 주체, 상담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식 및 접근성, 비밀 보장 체계 명시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서 4.학생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학업상담, 진로상담, 정신건강상담, 생활지도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상담 조직 및 운영 방식의 특성과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조사 대상 40개교 중 34개교(85%)에서 학생상담 조직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3개교(7.5%)는 대학 본부의 상담 조직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5개교 이상(12.5%)은 별도 조직 없이 보직교수가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다. 둘째, 상담 전공의 전문 인력이 배치된 대학은 7개교(17.5%)였으며, 대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나 학생 담당 보직 교수가 상담을 겸임하고 있었다. 셋째, 상담 프로그램은 학업상담이 18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상담 17건(42.5%), 진로상담과 생활지도 상담이 각각 15건(37.5%)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성개발, 성 관련, 재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학생상담 운영방식은 개인상담(9개교), 집단상담(4개교), 온라인 상담(2개교), 외부 연계 상담(2개교)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대학은 복수의 방식을 병행하고 있었다.

결론: 국내 의과대학 대부분이 학생상담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담 조직의 체계성과 인력 전문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상담은 제한된 방식과 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사회·정책 환경 속에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학업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상담 조직의 체계적 확립과 전문성 강화, 상담 주제의 다양화와 접근 방식의 유연성을 포함한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P-56

2024학년도 의정사태 기간 중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활동 참여 실태

신준성¹, 윤나래¹, 허연주¹, 윤현배^{1,2}, 명선정¹

¹서울의대 의학교육실, ²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2024년 의정사태로 인하여 대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일부 학생들은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2024년 중 학생들의 연구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을 활용한 단면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실태 조사 문항을 포함한 46문항의 설문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585명에게 문자메시지 링크로 발송하여 2025년 2월 25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답변을 수집하였다.

결과: 총 99명(대상 학생 수 585명, 응답률 16.9%)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25명(25.3%)의 학생이 연구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 동기는 향후 진로 발전, 경력 개발(44.0%), 연구에 대한 흥미(36.0%), 시간적 여유(20.0%) 순으로 나타남. 연구 참여 학생들은 연구 미참여 학생들에 비하여 임상교수, 기초교수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고, 개원의, 봉직의를 희망하는 경향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연구참여 프로그램 운영(32.0%), 연구실, 지도교수 안내(28.0%), 연구 관련 강좌(20.0%), 연구공간 제공(8.0%)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미참여 학생들은 연구실, 지도교수 안내(56.7%), 연구참여 프로그램 운영(31.1%), 연구 관련 강좌(6.8%) 순으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의정사태 기간 중 연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계발과 흥미를 주된 참여 동기로 응답하였으며, 학교 차원의 연구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실 안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저조한 응답률로 인하여 해석에 제한이 있었다. 연구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추후 갭이어 제도 등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정책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P-57

장기 학업 중단 상황에서 의과대학 동아리의 긍정적 기능

김수연¹, 박소정², 이영희³, 이영미¹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³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본부

목적: 의과대학에서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은 협력학습, 네트워킹, 공동체 의식 형성,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다. 2024년 의정사태로 인해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러한 학업 공백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연결의 매개체로서 어떻게 기능을 했는지를 탐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의정사태로 인해 휴학 중인 K의대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총 6개의 집단 초점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모집되었으며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기법을 병행하여 모집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학술, 운동, 음악, 응원 등 다양한 유형의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동아리별로 그룹화(2~3명/그룹당)하여 면담했다. 면담 자료는 전사 후, 자료에서 자주 등장한 표현이나 단어, 구절로부터 시작하여 소·중·대 범주를 분류하는 에믹(emic) 코딩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의학교육 및 교육학 전문가 4인이 독립 코딩하였고, 코더 간 신뢰도 및 연구 결과의 타당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연구참여자 검토(member check) 과정을 수차례 거쳐 최종 주제와 범주를 도출하였다.

결과: 첫째, 동아리 활동은 학년 간 경계를 넘는 선 후배 및 또래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촉진하며, 정서적 지지 환경을 형성하였다. 둘째, 이러한 소통은 위기로 인해 발생한 불안, 좌절, 무기력감 등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위기 상황 관련 토론과 지적 교류를 통해 의정 사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또래 학습자의 진로 고민을 관찰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자기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개인의 진로 탐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 의정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학업 중단 상황에서,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은 의대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 주도 비교과 활동의 교육적 기능, 즉 학생의 적응력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증진하는 매개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의과대학 동아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제도적 지원이 지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P-58

의과대학 대입전형 개선에 대한 교수 인식 분석

하충원,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적: 2025년 현재 의과대학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비율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등 교육과정의 개정 및 2028 대입 개편안과 같은 교육정책에 따라 모집전형 및 평가방법 변경 등을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대입 환경에서 Right Person 선발을 위해 의과대학이 개선해야 할 사항과, 정부에 개선 및 지원을 요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 교수 30명을 대상으로 GROW 모델을 활용하여 Consensus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 주제는 1. 의과대학에서 Right Person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실행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로 설정했다. 주제 1은 6명으로 구성된 각 조별 토론을 진행한 후 토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주제 2는 각 참여자의 개인 의견을 카드에 기술하였다. 각 주제에 대하여 조별로 발표한 내용과 각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결과: 조별 토론이 이루어진 주제 1. 의과대학에서 Right Person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 24개, 개인별 의견을 기술하게 한 주제 2. 실행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에 대하여 51개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주제 1에 대한 응답은 '전형 방법 개선', '의과대학 전임 입학사정관'과 같은 대학의 전형 운영 개선에 관한 내용과 '서류 블라인드 폐지',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효화', '수시전형 지원 가능 횟수 축소'와 같은 대입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 '대학 면접전형 운영 지원', '지역인재전형 졸업생 정착 방안 마련'과 같은 정부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주제 2에 대한 응답은 '면접위원 교육 강화', '면접문항 개발 과정 개선' 등의 면접평가 운영에 대한 내용, '의과대학의 독립적인 전형 운영', '코호트 분석' 등의 전형 운영에 관한 내용, '의과대학 전임 입학사정관 확보', '전임 입학사정관에 의한 전문 교육 체계 마련; 등의 평가 및 교육 인력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의과대학 대입 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과대학에서의 학생 선발은 예비 의사 선발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선발 과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과대학 학생 선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P-59

진료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 가상환자 프로그램 개발

한예진, 남재원, 이근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본 연구는 기존 임상실습교육 방법인 표준화환자 및 동료 역할극이 가진 시간적·공간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의환자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대상 및 방법: Multi-LLM 엔진을 활용하는 Voiceflow 플랫폼을 이용하여 임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기반 모의환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진, 검사결과 제공, 질환 추정의 상호작용을 구현하였다.

결과: 생성형 AI 기반 모의환자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환자 기본정보 및 활력징후를 제공하고, 실제 환자처럼 문진 응답과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생이 진단을 시도하면 정오답을 안내하였다.

결론: 생성형 AI 기반 모의환자 프로그램은 반복적이고 자율적인 임상실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및 교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습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P-60

동료 성찰 포트폴리오 수업 프로그램 개발

강은희, 박신영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목적: 보건 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이다. 많은 교육 기관에서는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 발달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개인의 학습 경험과 성과들의 수집을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 신념, 자신의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하도록 하며, 이 성찰의 기록은 종단적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발전을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포트폴리오가 교육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데, 훈련된 교수자와 체계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조 등의 부족 등의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우리는 보건 분야의 학생들이 동료 성찰을 통해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촉진하는 포트폴리오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2024년 11월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수업 후에는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수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다(N=53, 57.6%).

결과: 포트폴리오 수업 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원칙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그룹 과제와 동료 성찰, (2) Edu-tech와 교수적 도구 활용 (구글 프리젠테이션, 만다라트 등.), (3) 주기적 적용. 개발된 수업 활동은 다음의 4개 단계로 이루어졌다; (1)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분석: (전체 집단 활동) '나의 미래상' 선택하기, (소그룹 활동) 역량 추출, (2) (소그룹 활동) 과거 경험의 공유 및 분석, (3) (전체 집단 활동) 소집단 결과물 발표, (4) (개인 활동) 개인 글쓰기.

수업을 적용한 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4.24(±0.14), 수업 참여 정도에서 4.67(±0.08), 동료 사이의 상호작용 문항에서 4.67(±0.08), 동료 상호작용이 개인의 성찰에 도움되는 정도 문항에서 4.59(±0.09)로 나타났다.

결론: 이 수업 사례의 결과와 개인 글쓰기 자료는 4년의 교육과정 동안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적 정체성 변화를 추적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P-61

의료 인력 정책의 동적 프레이밍 패턴: 뉴스 미디어 담론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권영규¹, 정다운¹, 박송희³, 김미경⁴, 김찬웅^{1,2}

¹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²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³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⁴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2024년 2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미디어 기사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시간적 전개 과정에 따른 담론 구조의 변화 패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8일까지 9개 주요 한국 언론사의 11,971개 뉴스 기사를 분석하였다. 논의의 전개 과정을 '정부 정책 발표와 의료계 초기 대응'(P1), '학계 참여 및 확산기'(P2), '정부의 법적 대응과 확대기'(P3), '수련/교육 체계 위기기'(P4), '총체적 의료 위기와 장기 교착기'(P5)의 5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주요 토픽을 취합하여 '의료 인력 정책', '전공의 복귀 문제',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 '의학교육 중단', '정치권/법적 갈등'의 5개로 범주화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

결과: 의료 정책 관련 미디어 담론 구조는 시간에 따라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P1에서는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36%)과 의료 인력 정책(31%)이 주를 이루었다. P2에서는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40%)이 가장 두드러졌고, 정치권/법적 갈등(25%)과 의료 인력 정책(22%)이 뒤를 이었다. P3에서는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46%)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공의 복귀 문제(25%)가 중심이 되었다. P4에서는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25%)과 의료 인력 정책(24%), 정치권/법적 갈등(20%)이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P5에서는 의료 인력 정책(32%)과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22%), 의학교육 중단(20%)이 핵심 담론을 형성하였다.

특히, P1과 P5에서 모두 의료 인력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내용적으로는 '정책 발표'에서 '정책 재검토'로 변화하였다. 또한, 의학교육 중단 문제가 P2(13%)에서 P5(20%)로 증가하며 장기화 사태에 따른 의학교육 중단 우려가 주요 담론으로 점차 부각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의료 정책의 주요 담론이 시간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확인했다. 담론 구조는 초기에는 의료 서비스 중단과 인력 정책에 집중되었고, 중기에는 진료 현장의 위기가 심화되었으며, 후기에는 의학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재검토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담론 네트워크는 초기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상황에서의 진료 공백의 문제에서 점차 교육 과정, 전공의 수련 문제, 정책 실효성, 정치적 해결책으로 다차원적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 인력 정책이 교육의 질, 전공의 수련, 교수진의 역할, 의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상호 연결된 복합 시스템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의료 정책 수립 시 의학교육 시스템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P-62

의대생의 시스템 사고 및 다학제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조기 병원 노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박귀화¹, 임준², 경선영³, 강승희⁴, 윤소정⁵

¹가천대학교 의과대학, ²인하대학교 의과대학, ³가천대학교 의과대학, ⁴부경대학교 평생교육 및 상담학과, ⁵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보건의료 시스템의 복잡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의료 전문가들에게 시스템 사고 및 전문직 간 협업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학교육 방법은 경험적 학습과 학제 간 상호작용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는 데 제약이 있다. 최근 메타버스 기반 학습 환경은 몰입감 있고, 유연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및 전문직 간 협업 역량 향상을 목표로 개발된 메타버스 기반 조기 임상노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프로그램 개발은 ADDIE 교수설계 모형의 다섯 단계를 따라 이루어졌다. 총 48명의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효과성 평가는 사전-사후 설문을 통해 시스템 사고 척도 및 전문직 간 협업 역량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정성적 이해를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SPSS 27.0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 및 효과크기 분석(Cohen's d)을 실시하였다.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수집된 서술형 응답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는 내용분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와 패턴을 도출하였다. NVivo 소프트웨어는 정성적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의 전문직 간 교육 능력에 대한 인식($t = -5.478, p < 0.01, \text{Cohen's } d = 0.888$) 과 시스템 사고 능력($t = -5.606, p < 0.01, \text{Cohen's } d = 0.616$)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역량 변화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810에서 1.394 범위로 나타났으며, 다른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항목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t = -7.408, p < 0.01, \text{Cohen's } d = 1.394$)를 보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정성적 분석 결과, 메타버스 환경은 전통적인 교수법보다 더 몰입감 있는 상호작용적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상호작용 요소의 강화와 게임 기반 요소의 추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메타버스 기반 조기 병원 노출 프로그램이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및 다학제 협업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다른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경험했으며, 메타버스 환경이 몰입감과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보고하였다. 향후에는 상호작용과 게임적 요소를 강화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P-63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을 연결하는 생성형 AI 활용 수업

최효이, 정미현, 이동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목적: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교육에서 AI를 활용한 여러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연계하는 방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생리학 지식에서 시작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질병의 특성에 도달하도록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으며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블렌디드 러닝 기반에 오프라인에서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이 포함되도록 설계한 생리학 수업을 개발하였고, 시범 수업을 통해 이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반구조화 인터뷰로 조사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결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미니강의, 문제기반학습과 단계별 지식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탐색하도록 수업을 개발하였다. 이 활동은 연관된 질병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생성 수정해보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AI는 단계별로 수업의 주 대상이 되는 인체의 특정 부위와 그 기능 등과 연관된 질병을 탐색하고, 이어서 기능의 기전을 활용하여 탐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토의 이후 이를 토대로 연계된 진단 또는 치료를 탐색하였고 종합적으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내용을 검증하였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기초 의학의 지식이 직접 임상 의학과 연계되는 것을 AI를 활용하여 빠르게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론: 이 연구는 생성형 AI가 기초의학 과목의 교수학습 도구로서 가지는 기초-임상연계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며 향후 정량적 효과 분석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유관기관 프로그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학회

국립중앙의료원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그랜드볼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외국대 졸업자를 위한 의사 예비 시험 제도 고찰

연자 | 김미영 (한림의대)

김준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도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기관주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 목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예비시험 국가시험 현황에 대해 소개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16:00 ~ 17:30
- 장소: 여수 디오션 그랜드볼룸

3 주제

주제	세부 주제	발표자
외국대 졸업자를 위한 의사 예비 시험 제도 고찰	1)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김미영 교수 (한림대 의과대학)
	2) 의사 예비시험 평가 결과 보고	김준기 책임연구원 (국시원)

4 세부 일정

시간	세부 주제
16:00~17:00(60분)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17:00~17:20(20분)	의사 예비시험 평가 결과 보고
17:20~17:30(10분)	질의응답 및 토의

유관기관 프로그램

외국대 졸업자를 위한 의사 예비 시험 제도 고찰

김미영

한림대학교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4-1990	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석사	1992-1994	의학(생리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1995-1999	의학(생리학)

경력 사항

199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턴
1991-1993	서울 아산 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1994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임의
199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연구강사
1996-2022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2022-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유관기관 프로그램

외국대 졸업자를 위한 의사 예비 시험 제도 고찰

김준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력 정보

성균관대학교	졸업(학사)	2004-2011	심리학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석사)	2011-2014	심리학(심리측정 및 평가)

경력 사항

2014-202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원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에메랄드A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연자 | 강화선 (가톨릭의대)

제 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기관주관 MERCI 심포지엄

유형	심포지엄			
제목	한국의학교육학회 주관 MERCI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개최일정	2일차, 2025년 5월 16일(금) 16:00~17:30 (총 90분)			
목표 및 내용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이미 나타났거나 향후 예상되는 교육 운영의 변화 양상을 공유하고, 교수학습, 학생평가, 교수 확보, 학생지도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진행자	강화선(교육이사)			
	세션 명	시간	세부 내용	강사
	개회	5분		
세션 1 (50분)	학생 규모 변화에 따른 대학의 운영 전략과 실행 방향 좌장: 강화선 (교육이사)	10분	증원된 대학의 준비 사례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한 발제 주제 도출 예정	강예지(인하의대)
		10분	증원된 대학의 준비 사례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한 발제 주제 도출 예정	김유진(단국의대)
		30분	패널 토의	유숙원(강원의대) 이소영(충남의대) 이장훈(아주의대) 나승주(차의전원)
			마무리	좌장
세션 2 (30분)	학생의 적응과 지원을 위한 대학의 대응 방향 좌장: 윤현배 (교육간사)	25분	- 학생복귀 후의 대학의 학생 지도 방안 - 학년간 갈등 해소 방안 - 장기 휴학에 따른 학습 지도 방안	전체 논의
		5분	마무리	좌장
	마무리	5분	논의 정리와 향후 과제 제언	강화선(교육이사)

유관기관 프로그램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강 화 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1981. 3. 1-1985. 2. 28	생물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1985. 3. 1-1987. 8. 31	발생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1989. 3. 1-1996. 2. 28	발생학
Johns Hopki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Neuroscience	Research Fellow	1999. 3. 1-2000. 2.28	뇌신경과학

경력 사항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교수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제2 교육부학장
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LICE교수개발센터장
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겸무교수
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주임교수(2021. 8-2024. 2. 29)
6. 의학교육 연수;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12. 6-2013. 5)

유관기관 프로그램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윤 현 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2005년	의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2010년	의학교육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2017년	의학교육학

경력 사항

2016-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겸임조교수
2019-202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기금부교수
2024년-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WHO CC 센터장, 의학교육연수원 국제부장,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교육부장

유관기관 프로그램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유 숙 원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학력 정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91-1997	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1999-2002	임상병리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2003-2006	진단검사의학

경력 사항

1997-2004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전공의 및 전임의	진단검사의학
2005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연구팀장	
2006-현재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진단검사의학교실
2018-현재	강원대학교병원	과장	진단검사의학과
2017-2020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실장	
2023-현재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유관기관 프로그램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이 소 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학사	2007. 03-2009. 02	교육학
연세대학교	석사	2011. 03-2013. 08	인적자원개발
서울대학교	박사	2018. 03-2021. 02	교육학

경력 사항

2021. 09. 01-2025. 04. 22 (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2022. 07. 01-2025. 04. 22 (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
2024. 09. 01-2025. 04. 22 (현재)	한국 의학교육학회 연구위원회
2024. 08. 01-2025. 04. 22 (현재)	KAMC(의대협회) 전문위원(학술위원회)

유관기관 프로그램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이 장 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학력 정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91. 3-1997. 2	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1999. 9-2001. 8	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2001. 9-2007. 2	의학

경력 사항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주임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신생아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주산의학회 편집위원장

유관기관 프로그램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나 승 주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력 정보

성신여자대학교	학사	1999. 03-2003.02	교육학/사회교육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2003. 03-2005.02	교육학(교육과정및평가)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2014. 09-2023.02	교육학(교육측정및평가)

경력 사항

2024. 09-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위원회 간사
2024. 09-	KAMC 학생위원회 전문위원
2018. 03-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2016. 09-2018. 02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2005. 03-2016. 0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지원실 교육과정 코디네이터

유관기관 프로그램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강 예 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학사	2006~2011	영어영문학
연세대학교	석사	2011~2013	교육학
연세대학교	박사	2013~2017	교육학

경력 사항

2017. 09-2020. 02	성균관대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연구교수
2020. 03-2024. 08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육트랙 조교수
2024. 09-	인하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 (현)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위원회 위원
- (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획·질향상위원회 위원
- (현)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전문위원
- (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 학회 교육위원

유관기관 프로그램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과제와 실천 전략 모색

김유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력 정보

독학사	문학사	2010	영어영문학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2011 - 2014	영어교육학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2018 - 2021	교육공학과

경력 사항

2014-2016	서울여자대학교 교육혁신팀
2017-2021	건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2021-2024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2024-현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단국대병원 암관리기획실 초빙교수

KMEC 2025 Korean Medical Education Congress 2025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거문도A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

연자 | 허정식 (제주의대)

황지영 (동국의대)

김미경 (중앙의대)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기관주관 프로그램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제 : 주요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

일 시 : 2025. 5. 16.(금) 16:00~17:30

장 소 : 여수 디오션 거문도 A

프로그램(안)

16:00-16:20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경과	허정식 원장(제주의대)
16:20-16:50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 리뷰	황지영 인증제도위원장(동국의대)
16:50-17:10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계획	김미경 의학교육인증단장(중앙의대)
17:10-17:30	질의응답 및 토론	

유관기관 프로그램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경과

허정식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의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비뇨의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비뇨의학

경력 사항

경희의료원 비뇨기과 전공의
University of Colorado 연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교수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 암센터소장 역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의과대학장 역임

현 한국 의학교육평가원 원장
현 제주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 의료법학회 편집위원장
현 대한비뇨의학회 법제자문
현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감사
현 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회장

유관기관 프로그램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 리뷰

황 지 영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의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산부인과학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부인종양학

경력 사항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의료인문학교실 전담교수, 의료인문학 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의과대학 교육부학장

한국의학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대구·경북의학교육연구회 회원 (현)
 한국의학교육학회 정보이사(현), 총무이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인증제도위원회 위원장 (현)

KAMC 임상술기지침/진료수행지침 편찬위원회 위원 (현)
 KAMC LIC 교육과정 개발 컨소시엄 위원
 KAMC 사람과 사회 중심 학습성과 개발 위원
 KAMC 진료역량중심 학습성과 개발 TFT위원

대한의사학회 정회원 (현)

부인암 분과전문의, 대한부인종양학회 정회원, 산부인과 전문의,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
 미국 MD Anderson Gynecologic Oncology 연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공의 수료

유관기관 프로그램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계획

김미경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의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병리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병리학

경력 사항

2025. 3-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장
2020. 2-현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장
2011. 3-현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2013. 3-2025. 2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위원회 위원
2015. 7-2019. 11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
2015. 3-2017. 2	기본의학교육컨소시엄 운영위원장

MEMO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경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2024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항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가족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2024-02-06. 보건복지부 발표

- 2024.2.6. 보건복지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총 5,058명 확대 발표
- 2024.3.20 의대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결과발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82%—

경인 18% 배정,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 교육의 질 높여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용자 확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724&act=view



정원 증원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회의현황

No.	회의명	참석	일시	장소
1	최근 의학교육 현안 관련 의평원 위원 간담회	의평원 전 위원	2. 29.(목) 17:00	의평원-온라인
2	정원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한 제1차 원장단 긴급회의	원장단	3. 21.(목) 17:30	의평원-온라인
3	정원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한 제2차 원장단 긴급회의	원장단	3. 22.(금) 16:00	의평원
4	정원 증원에 대한 의평원 입장 발표 관련 제1차 위원장 회의	원장단, 이사장, 각 위원회 위원장	3. 23.(토) 14:00	의평원-온라인
4	정원 증원에 대한 의평원 입장 발표 관련 위원 미팅	의평원 전 위원	3. 23.(토) 17:00	의평원-온라인
6	정원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한 제3차 원장단 긴급회의	원장단	3. 24.(일) 14:00	의평원
7	정원 증원에 대한 의평원 입장 발표 관련 제2차 위원장 회의	원장단, 이사장, 각 위원회 위원장	3. 24.(일) 16:00	의평원-온라인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

- 제26조 (인증유지와 관리)** ① 대학은 인증유지를 위해 2년 마다 개선결과를 포함한 중간평가연구보고서를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9.3.1.>
- ② 대학은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변화계획서는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2.5., 2024.8.8.>
- ③ 인증단은 중간평가연구보고서와 주요변화계획서를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9.3.1., 2022.7.6., 2024.8.8.>
- ④ 인증단은 중간평가연구보고서 또는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3.1., 2024.8.8.>
- ⑤ 대학은 필요 시 자문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6.29.>, <개정 2017.2.8.>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5.>
- 제2조 (정의)**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요 교육병원 변경
 2.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3. 소유권 변경
 4.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이상 증원 <신설 2017.12.14.>
 5.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6.29.>
- 제3조 (작성 및 제출)** ① 대학은 제2조에서 정의한 주요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와 [표 1]의 주요변화 유형별 기술항목에 따라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조 제5호의 경우 [표 2]의 기술항목에 따른다. <개정 2024.9.5.>
- ② 인증단은 주요변화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가 서면평가에 부적합한 경우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5.>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

- 제4조 (절차)** ① 인증단은 주요변화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후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9.5.>
- ② 대상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단은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판정위원회를 통해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9.5.>
1.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9.5.>
 2. 주요변화가 기본의학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에 상당한 수준의 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9.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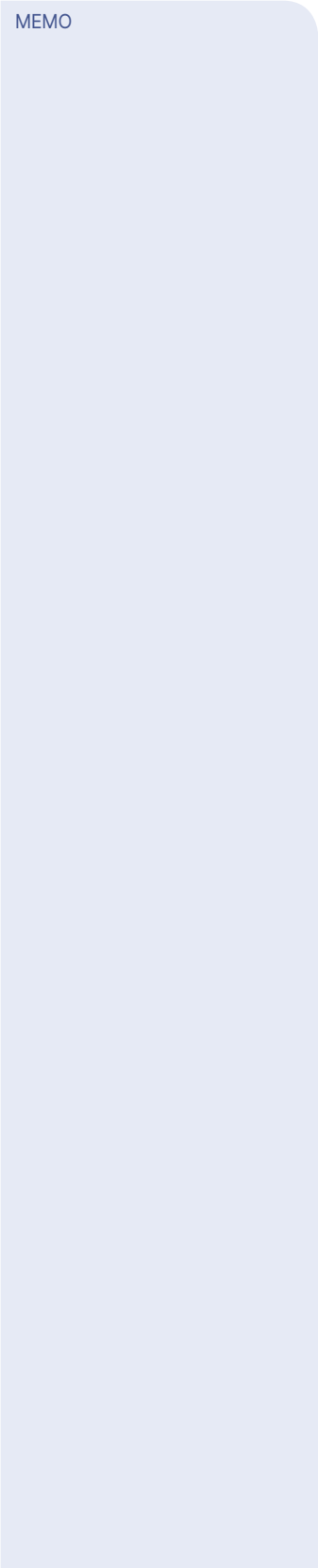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ASK2026

- 새로운 기준으로 피평가대학에 부담
- 2024.3.- 2026.2. 에 방문평가를 받는 피평가대학
- 외부관점: 새로운 기준으로 의도적으로 어렵게 평가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



평가기준을 일부 수정한 기준

- 기준위원회의 집중작업을 통해 기준마련
- 26개 기준과 가이드마련
- 외부관점: 새로운 기준으로 의도적으로 어렵게 평가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



주요 변화 평가: 연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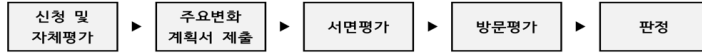
-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의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2024년도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시기	입학 전	1학년말 (예1)	2학년말 (예2)	3학년말 (본1)	4학년말 (본2)	5학년말 (본3)
실시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평가내용	전년도 실적		○	○	○	○
	차년도 준비사항	○	○	○	○	○



MEMO

주요변화 평가인증 절차



◎ 2024년도 주요변화평가 일정(안) - 1차년도

No.	일 경	내 용
1	2024. 9. 9.	주요변화평가 신청 안내
2	2024. 9. 20.	주요변화평가 신청서 접수
3	2024. 9. ~ 11.	대학별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4	2024. 11. 30.	주요변화계획서 접수
5	2024. 12. ~ 2025. 1.	주요변화계획서 서면 및 방문평가
6	2025. 1.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7	2025. 2.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



연차별 기준 항목사항(ASK2019)

- 기본기준: 49
 이 중 15개 기준은 각 학교의 개선변화에 따라 기술가능
- 연차별 기술도 수정하여 연차별로 줄어듦
- : 기본 기술 기준
- ▲ :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기술하는 기준

영역	부문	기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소 계		○	49	39	33	34	37	37
		▲	-	10	7	6	2	2
합 계			49	49	40	40	39	39



영역	부문	기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 사명과 성과	1.1 사명	K.1.1.1							
		K.1.1.2							
		K.1.1.3							
	1.2 대학의 자율성	K.1.2.1	○ ○						
		K.1.3.1	○ ▲						
	1.3 교육성과	K.1.3.2							
		K.1.3.3							
	1.4 사명과 교육성과 수렴	K.1.4.1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K.2.1.1						
			K.2.1.2	○ ○ ○ ○ ○ ○					
			K.2.1.3						
		2.2 과학적 방법	K.2.2.1						
			K.2.2.2						
			K.2.2.3						
2.3 기초의학		K.2.3.1	○ ▲ ▲ ▲ ▲ ▲						
		K.2.3.2	○ ▲ ▲ ▲ ▲ ▲						
2.4 의료인문학		K.2.4.1	○ ○ ○ ○ ○ ○						
		K.2.5.1	○ ▲ ▲ ○ ○ ○						
2.5 임상역학과 술기		K.2.5.2							
		K.2.5.3							
		K.2.5.4							
		K.2.5.4							
2.6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시간	K.2.6.1								
	K.2.6.2								
2.7 교육과정 관리	K.2.7.1								
	K.2.7.2								
2.8 의료행위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K.2.8.1								



영역	부문	기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3. 학생평가	3.1 평가방법	K.3.1.1	○	○	○	○	○	○	
		K.3.1.2	○	○	○	○	○	○	
		K.3.1.3	○	○	○	○	○	○	
	3.2 평가에 학습의 관계	K.3.2.1	○	○	○	○	○	○	
		K.3.2.2	○	○	○	○	○	○	
		K.3.2.3	○	○	○	○	○	○	
4. 학생	4.1 일반대학과 선발	K.4.1.1	○	○					
		K.4.2.1	○	○					
	4.3 학생성과 지원	K.4.3.1	○	○	○	○	○	○	
		K.4.3.2	○	○	○	○	○	○	
		K.4.3.3	○	○	○	○	○	○	
		K.4.3.4	○	○	○	○	○	○	
		K.4.3.5	○	○	○	○	○	○	
		K.4.3.6	○	○	○	○	○	○	
	4.4 학생비교	K.4.4.1	○	○	○	○	○	○	
		K.4.4.2	○	○	○	○	○	○	
	5. 교수	5.1 체질과 선발정책	K.5.1.1	○	○	○	○		
			K.5.1.2	○	○	○	○		
K.5.1.3			○	○	○	○	○	○	
5.2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K.5.1.4	○	○	○	○	○	○	
		K.5.1.5	○	○	○	○	○	○	
		K.5.1.6	○	○	○	○	○	○	
6. 교육자별	6.1 사별	K.6.1.1	○	○	○	○	○	○	
		K.6.1.2	○	○	○	○	○	○	
		K.6.1.3	○	○	○	○	○	○	
		K.6.1.4	○	○	○	○	○	○	
		K.6.1.5	○	○	○	○	○	○	
		K.6.1.6	○	○	○	○	○	○	
K.6.1.7	○	○	○	○	○	○			
K.6.1.8	○	○	○	○	○	○			

MEMO

영역	부문	기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6.2 임상실습 지원	6.2 임상실습 지원	K.6.2.1	○	▲	▲	▲	○	○	
		K.6.2.2	○	▲	▲	▲	○	○	
	6.3 정보기술	K.6.2.3	○	▲	▲	▲	○	○	
		K.6.3.1	○	○	○	○	○	○	
	6.4 의학연구와 의료학자 양성	6.4 의학연구와 의료학자 양성	K.6.4.1	○	○	○	○	○	○
			K.6.4.2	○	○	○	○	○	○
6.5 교육 전문성		K.6.4.3	○	○	○	○	○	○	
		K.6.5.1	○	○	○	○	○	○	
6.6 교육적 교류		K.6.5.2	○	○	○	○	○	○	
		K.6.6.1	○	○	○	○	○	○	
7. 교육평가	7.1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체계	K.7.1.1	○	○	○	○	○	○	
		K.7.1.2	○	○	○	○	○	○	
		K.7.1.3	○	○	○	○	○	○	
	7.2 교육자의 학생의 피드백	K.7.2.1	○	○	○	○	○	○	
		K.7.3.1	○	○	○	○	○	○	
	7.3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 능력	K.7.4.1	○	○	○	○	○	○	
K.7.4.1		○	○	○	○	○	○		
8. 대학운영 체계와 행정	8.1 대학운영체계	K.8.1.1	○	○	○	○	○	○	
		K.8.1.2	○	○	○	○	○	○	
		K.8.1.3	○	○	○	○	○	○	
	8.2 학생과 보좌자	K.8.1.4	○	▲	▲	▲	○	○	
		K.8.2.1	○	○	○	○	○	○	
	8.3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	K.8.3.1	○	○	○	○	○	○	
K.8.3.2		○	○	○	○	○	○		
8.4 행정지원과 관리	K.8.4.1	○	○	○	○	○	○		
	K.8.5.1	○	○	○	○	○	○		
9. 지속적 개선	9.0 지속적 개선	K.9.0.1	○	○	○	○	○	○	
		K.9.0.2	○	○	○	○	○	○	
		K.9.0.3	○	○	○	○	○	○	
소 계	○	49	39	33	34	37	37		
	▲	-	10	7	6	2	2		
합 계			49	49	40	40	39	39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

- 머리말
 -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기술
 - 평가를 위해 수요한 교직원과 기관에 대한 감사의 말 포함 가능
- 제1장 - 서론
 - 변화의 유형, 배경 기술
 -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을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 등을 기술
- 제2장 -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종합 기본 계획
 - 학생 수 변화와 입학정책, 교직원 수 변화,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계획, 교육영역별 변화 계획, 재정 확보 계획을 5년안에 걸쳐 연차별로 기술
- 제3장 - 평가인증 기준별 변화내용
 -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 (표 2) 주요변화 유형별 기술항목-2의 해당 기준별 작성 요령에 따라 종합기본계획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연구 결과 기술
 - 종합기본계획과 기본기준 (별표) 참조
- 제4장 - 종합 및 논의
 - 2025년 중원에 맞춘 신입생을 위한 준비 상황을 위주로 기술
 - 중원년 입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평가영역별 주요변화 자체평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
- 부록 : 평가인증 기준의 근거자료
 - 각 평가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첨부

- 머리말 - 학장(학장)
- 제1장 서론
- 제2장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종합 기본 계획
- 제3장 평가인증 기준별 변화내용
1. 사명과 성과
 2. 교육과정
 3. 학생평가
 4. 학생
 5. 교수
 6. 교육지원
 8.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9. 지속적 개선
- 제4장 종합 및 논의
- 부록 : 평가인증 기준 근거자료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MEMO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 (2024년 7월)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OT 워크숍 (2024년 11월)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방문평가단 워크숍 (2024년 12월)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방문평가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상, 2025년 1월)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방문평가 후
영역별 및 단장 회의 (2025년 1월)



판정위원회 (2025년 2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orea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MEMO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평가인증 결과 통보 (2025년 2월)

보도 자료	주 소 주 소 주 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 소 주 소 주 소

**2024년(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결과**

□ 대한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24학년도 입학전(2024년 11월)에 의학교육
인증기관 30개 대학별 학사운영계획을 확인하고 2024학년도 1차년도 의
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하였다.

□ 그 결과 27개 의과대학 학사운영계획은 인증 유지, 2개 대학은 3개
의과대학은 불인증 상태 판정되었다.

※ 대한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24학년도 입학전(2024년 11월)에 의학교육
인증기관 30개 대학별 학사운영계획을 확인하고 2024학년도 1차년도 의
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하였다.

□ 그 결과 27개 의과대학 학사운영계획은 인증 유지, 2개 대학은 3개
의과대학은 불인증 상태 판정되었다.

※ 주요변화평가는 해당 평가인증기관 운영 체제 및 관련 제도에 의해 인증
유지 또는 불인증 상태 판정된 대학의 3개 대학 중 1개 대학에 한
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여 불인증 대학은 2개 대학, 3개 대학은 3개 대학이다.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 (2025년 2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orea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의평원의 과제

- 2025학년도에 2차년도 평가부분
- 평가내용
- 서명평가와 방문평가여부
- 2025학년도 신입생과 복학생의 수업에 따른 주요변화계획
서 작성여부
- 피평가대학: 정기평가와 중간평가가 겹치는 경우의 부담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orea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오동도

한국치의학교육학회

AI 시대 치의학교육

연자 | 박신영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학)

이지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학)

한예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인문학교실)

김준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기관 주관 프로그램

1) 일시: 2025년 5월 16일 (금) 16:00-17:30

2) 프로그램 주제 및 세부일정

프로그램 주제 : AI 시대 치의학 교육

세부 일정

- 16:00-16:30 치의학교육의 technology 활용 사례 소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학 박신영)
- 16:30-17:00 AI 시대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 변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학 이지현)
- 17:00-17:30 AI 시대 의료인문학 교육 방향
(연세대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김준혁)

유관기관 프로그램

치의학교육에서 technology 활용 사례

박 신 영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학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1999. 3-2005. 2	치의학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2007. 3-2009. 2	치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사	2009. 3-2012. 2	치주과학교실

경력 사항

2005-2009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레지던트
2009-2013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 치주과 임상강사
2013-2014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임상교수
2014-2018	분당서울대학교 치주과 진료 전문의, 진료교수
2018-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학 조교수, 부교수
2022-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내생진료센터 센터장
2022-현재	한국치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 총무이사

치의학 분야는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 현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강의와 도제식 실습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을 활용한 학습 도구들을 이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실천하고 치의학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치의학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 활용 사례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대면하기 전, 정밀하게 설계된 3D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치아에 대한 침습적 치료를 실습하고, 실제 치아와 유사한 질감을 이용하여 환자와 대면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해볼 수 있다. 다양한 임상 상황을 경험하며 진단 및 시술 능력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실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개별 학습자의 숙련도에 맞춘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성과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덴티스리의 발달로 기존의 물리적인 치아에 대한 본뜨는 작업 역시 3D oral scanner를 활용하여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재현하고, 다양한 치료계획에 대한 논의와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임시치아 등을 직접 CAD/CAM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의 진단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사진 판독 교육에서 AI는 병변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가능성 있는 진단명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분석 능력과 임상적 사고를 유도한다. 이는 단순 반복 학습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임상 추론 능력을 기르는 데 유용하다.

이 외에도, 지식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튜터 및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학습,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연동된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음성 및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집중도 분석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교육의 보조 수단을 넘어, 교육 방식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술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거나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교육적 설계와 교수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치의학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 활용의 효과성과 한계, 그리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유관기관 프로그램

AI 시대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 및 교육의 변화

이지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학 전공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2005-2012	교육공학
Harvard University	교육학 석사	2003-2004	교육공학
연세대학교	학사	1993-1997	

경력 사항

교육공학으로 하버드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석박사 취득 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치의학교육학 전공의 교육과 연구 수행 중, 한국치의학교육학회 학술 이사, 한국 교육공학회 학술 이사, 서울대학교 교육부처장을 역임함.

유관기관 프로그램

AI 시대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 및 교육의 변화

한 예 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인문학교실

학력 정보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2019-2023	교육공학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2017-2019	교육공학
고려대학교	학사	2012-2017	

경력 사항

교육공학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석박사 취득 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인문학교실에서 교육과 연구 수행 중, 한국의학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 교육이사로 재임 중임.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의료 현장의 진단, 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및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비해 의료 교육 분야의 혁신은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AI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변화를 분석하고, 의료인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AI 역량을 분류하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의료계, 치의학계, AI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사용자(User), 개발자(Developer), 리더(Leader)의 세 가지 역할군을 중심으로 AI 관련 역량을 도출하였다. 사용자에게는 AI에 대한 기초 이해, 실무 활용 능력, 윤리 및 법적 이해, 그리고 AI가 사회경제 및 보건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개발자는 고급 수준의 AI 전문지식과 알고리즘 설계 및 평가 능력,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다. 리더는 AI 관련 윤리 및 제도 개선, 정책 수립, 의료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세 역할군에 특화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사용자 교육과정은 기초 개념 학습과 실제 활용 중심으로 구성되며, AI 솔루션의 종류와 사용법, 법적·윤리적 고려사항,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다룬다. 개발자 교육과정은 심화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설계, 사용자 요구 반영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개발과 성능 평가에 중점을 둔다. 리더 교육과정은 국내외 제도 분석, 정책 설계, 산업-학계-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병원 간 연계 네트워크 형성 등 전략적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의료인의 핵심 역량과 그에 맞는 교육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가치가 크며, 향후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보건 의료 직종과 실제 학습자 대상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 보다 정교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 프로그램

AI 시대 의료인문학 교육 방향

김준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2002. 3-2008. 2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	2009. 9-2012. 2	소아치과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ster	2017. 5-2018. 12	의료윤리학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사	2014. 3-2019. 8	의료인문학

경력 사항

2008-201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소아치과)
2016-201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펠로우
2020-현재	한국의철학회 편집이사
2021-현재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 편집위원, 윤리위원, 교육위원
2022-현재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이사
2024-현재	대한치의학교육학회 인문사회이사

AI의 급속한 성장은 의료인의 역할을 둘러싼 오래된 질문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3월, 빌 게이츠는 10년 내에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익숙한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일은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는 실제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만큼 숨 가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발언자인 빌 게이츠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의업(醫業)’이라는 영역을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의사의 행위 전체가 데이터로 완벽히 기술될 수 있다면, AI가 10년 안에 의사를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리 터무니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10년 전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CEO 비노드 코슬라가 비슷한 발언을 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데이터의 손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따라서 알고리즘으로 변환될 수 없고, 이는 곧 AI가 의사를 온전히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광의의 의료인문학이 이러한 영역을 예시한다. 의료윤리와 의료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의사의 수행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은 아직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 분야는 충분히 연구되지도 않았으며, 부족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탐구될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모순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이 애매한 영역은 환자와의 만남이라는 임상의 현실에서 의사가 의사답게 존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환자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한 번이라도 환자 앞에 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배운 적 없이 그저 선배의 그림자를 쫓았거나, 환자와 가족, 동료 의료진과의 부딪힘 속에서 어색하게나마 적응했을 뿐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의료인문학은 AI 시대에 ‘인간 의사’가 의사로 남기 위해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할 교육적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의료인문학이야말로 의사를 AI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나는 믿는다. 의학뿐 아니라 치의학 교육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의학 교육에서 의료인문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다뤄야 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본 발제는 지난 10년간 의·치과대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료인문학을 가르쳐 온 발제자의 관점에서 AI 시대 의료인문학의 필요성과 역할을 돌아보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인간 의사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문학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과대학 교수의 새로운 지평, 도전과 기회

Exploring New Horizons for Medical School Profess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AY 2 | 2025. 5. 16 (금)

오동도

국립중앙의료원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필수의료 의사 양성 : 성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

연자 | 장윤희 (국립중앙의료원)

김세진 (동아의대)

패널 | 김상식 (청주의료원)

강윤식 (경상국립대)

박찬병 (부안군보건소)

임준 (인하의대)

국립중앙의료원「제41차 의학교육 학술대회」 유관기관 프로그램 추진(안)

■ 유관기관 프로그램 개요

- (주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 (주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필수의료 의사 양성 : 성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
- (일시) 2025. 5. 16.(금), 16:00~17:30
- (장소) 여수 디오션 호텔 거문도 C홀
- (프로그램)

(진행: 국립중앙의료원 김미영 팀장)

시간	내용	발표자
16:00~16:20 (20)	공중보건장학제도 성과와 과제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요 및 성과 - 주요 도전 과제 및 향후 발전 방향	장윤희 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16:20~16:50 (30)	국외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양성 프로그램 사례 - 입학전형, 커리큘럼, 실습 환경 등 비교 -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김세진 교수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6:50~17:30 (40)	[패널토론]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참여 활성화 방안 - 주요 논점 ① (장학생) 장학생이 경험한 장학제도의 강점과 한계 ② (대학) 정부-의료기관-대학 간 협력 방안 ③ (현장)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경력 설계 지원 방안 ④ (정책) 제도적 인센티브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 - 질의응답 및 마무리	좌장: 오영아 센터장 패널 ① 김상식 전문의(청주의료원) ② 강윤식 교수(경상국립대학교) ③ 박찬병 소장(부안군보건소) ④ 임준 교수(인하대학교병원)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유관기관 프로그램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필수의료 의사 양성 : 성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

김 상 식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학력 정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졸업 2021.02 의학과

경력 사항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선정(2019년)

청주한국병원 인턴 수료

청주한국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료

現)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가정의학과 진료과장

유관기관 프로그램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필수의료 의사 양성 : 성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

강 윤 식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2000.8.	의학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1997.2.	의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91.2.	의학

경력 사항

2010. 3-2018. 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
2016. 1-2016. 12.	경상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2020. 1-2021. 12	경상남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장
2023. 2-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2011. 4-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교수
2019. 1-현재	경상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유관기관 프로그램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필수의료 의사 양성 : 성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

박 찬 병

부안군보건소

학력 정보

중앙대학교	학사	1977-1983	의학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1988-1990	보건학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1-1996	보건학(역학)

경력 사항

1993. 9-2000. 1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보건소장
2000. 1-2007. 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장
2007. 3-2013. 2	강원도 삼척의료원 원장
2014. 4-2015. 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2015. 11-2016. 1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보건소장
2016. 11-2022. 7	서울시 서북병원 병원장

유관기관 프로그램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필수의료 의사 양성 : 성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

임 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력 정보

고려대학교	의학사	1987-1995	의학
서울대학교	의학석사	1999-2001	의료관리학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2002-2005	예방의학

경력 사항

2014. 1-2017. 1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2018. 1-2023. 1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2018. 7-2022. 12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센터장
2023. 10-2024. 6	인천광역시 예방의학과 과장
2023. 7-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2023. 9-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관기관 프로그램

공중보건장학제도 성과와 과제

장 윤 희

국립중앙의료원

학력 정보

중앙대학교	학사	2005.3~2010.2	사회복지학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2010.3.~2012.2.	국제학

경력 사항

2014. 3-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연구원
2012-2017	국제건강증진병원네트워크 사무국 간사
2012. 6-2014. 3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교육보건부 연구원

더 건강한 미래, 함께
 More Healthy, Together, Together Tomorrow

제4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필수의료 의사 양성:
 성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

**공중보건장학제도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의료원 교육전략기획팀 장윤희 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교육훈련센터

MEMO

더 건강한 미래, 함께
 More Healthy, Together, Together Tomorrow

목차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 공중보건장학생 의견 조사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선 방향


2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교육훈련센터

더 건강한 미래, 함께
 More Healthy, Together, Together Tomorrow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교육훈련센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학생 단계에서부터 선발 및 양성하여 장기 정착 유도 필요
- 추진 근거**
 - (법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대책) 제2차 공중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 (국가대책)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및 규제 혁신 방안(국무총리실, 2023)
 - (국가대책)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2023)
 - (국가대책)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 사업 목적**
 -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 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
 - 졸업 후 지역 공중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확충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의료교육관리센터

MEMO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 단, 대한민국 국적을 조사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지원금액**
 - 의과대학생 1인당 1,020만원/학기
 - 간호대학생 1인당 820만원/학기
- 지원조건** 장학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 실시(최소 2년 ~ 최대 5년)
 - 장학금 지원 기간별 의무복무 기간

지원학기	1~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9학기	10~12학기
의무복무 기간	2년	2.5년	3년	3.5년	4년	4.5년	5년

 - 단,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의무, 면허자격 정지, 전문의 수련, 세브전공(펠로우) 수련, 배치 후 6개월 이내 본인 출산 사유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의무복무 유예 가능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의료교육관리센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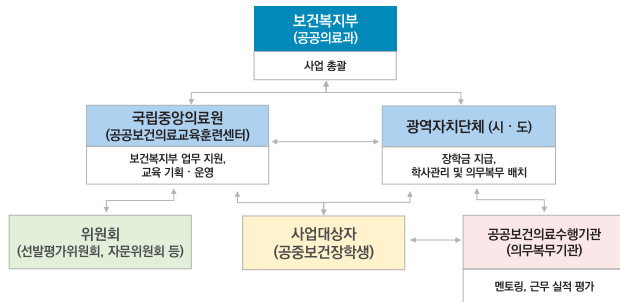
- 추진 경과**
- 197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
- 1977~1996 공중보건장학 의사 772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97명 등 총 1,519명 배출
- 1996 제도 시행 중단
 - * 1986년부터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료사 배치, 지원자 감소
- 2018 「공중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보건복지부, 2018)」에 따른 제도 재도입 논의
- 2019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시행(의과대학생 대상)」
- 2021 「지원 대상 확대(의과대학생 → 의과대학생 + 간호대학생)」
- 2023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제(국무총리실, 2023)」에 따른 제도 활성화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의료교육관리센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더 건강한
미래, 함께

수행 체계도



7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더 건강한
미래, 함께

업무 절차도



8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더 건강한
미래, 함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MEMO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더 건강한
미래, 함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도

연번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부산광역시			○	○			
2	인천광역시		○		○	○	○	○
3	울산광역시					○		
4	대전광역시						○	○
5	충청북도	○	○	○	○	○	○	○
6	충청남도			○				
7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8	경기도	○	○	○	○	○	○	○
9	전북특별자치도			○	○	○	○	○
10	전라남도			○	○	○		
11	경상북도	○		○	○			○
12	경상남도	○		○	○	○	○	○
13	제주특별자치도				○	○		○

* 연도별 신규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기준

* 미참여 시도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교육관리센터

MEMO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더 건강한
미래, 함께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의대생	8	6	3	2	2	1	22
간호대생	-	-	31	39	29	69	168
계	8	6	34	41	31	70	190



공중보건장학생 의료인(면허 취득자) 배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의대생	2	2	1	3	5	1	14
간호대생	-	-	4	13	25	35	77
계	2	2	5	16	30	36	91

* 2025년 3년 기준, 공중보건의로 수행기관 의무복무 배치 인원 총 78명(의사 4명, 간호사 74명)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교육관리센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더 건강한
미래, 함께

공공보건의로 인재 양성 사업으로서의 브랜드화



대상	단계	내용
재학생 (신규)	① 공공보건의로 입문 과정	· 공중보건장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 공공보건의로 개념 및 특성 · 공공보건의로 분야 선배 중사자와의 만남 · 공중보건장학생간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재학생 (입문 수료생)	② 공공보건의로 심화 과정	· 필수의료 분야별 대응 체계 이해 · 지역사회 주요 건강 이슈 탐색 · 자기이해를 통한 공중보건의로 분야 전문탐색 및 자기개발 전략 수립
의무복무 예정자	③ 현장실방 과정	·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 · 공공지역보건의로 현장 업무 특성 체험 · 공공보건의로 중사자 간담회
의무복무자	④ 멘토링/간담회	· 의무복무 배치 전 해당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맞춤형 심층 상담 · 공공의료기관 근무 관련 준비사항 인지
의무복무자	⑤ 동문 네트워크	·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경험 공유 · 사명감 재인식 및 비전 탐색 · 실질적 정보 교류 및 상호 지원체계 구축
공통	⑥ 이력서	· 우리나라 보건의로 체계 정책, 법률 · 직군별 전문 임상분야 지식 및 지지 기술 · 보건사업 및 행정 업무 수행 전략 · 통상 환자관리 및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더 건강한
미래, 함께

홍보 강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

숏폼 홍보 영상



FAQ 자료집



목차

1. 장학생 선발	
1.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14
2. 현재 대학 재학중인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14
3. 장학생 신청에 나가기전에 주의사항이 있나요?	14
4. 재학 중 학교 사정이나 인종학위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장학생으로 인종학위 출결 처리는 언제 끝나지 않을까요? 이 공과에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4
2. 장학금 지급	
5. 장학금 지급을 중단시키거나 휴학한 학생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학금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으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취소되어 학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
6. 대학 졸업 후 '학업중단'으로 하차한 장학생이 재학할 수 있는가요? 그 학업중단 사유로 인해 학업중단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 졸업한 대학교 장학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15
7. 장학생 신청 시 제출하는 장학금증서는 어떤 서류로 작성해야 하나요? 장학금 지급 시 제출하는 장학금증서는 어떤 서류로 작성해야 하나요? 장학금 지급 시 제출하는 장학금증서는 어떤 서류로 작성해야 하나요?	16
8.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는 장학금 지급 기간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장학금 지급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16
9. 장학금 지급 시 사서, 포 발송 신청이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16
10. 장학금 지급 신청서, 장학금증서 등에 개인정보보호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를 할까요?	16
11.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17

MEMO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더 건강한
미래, 함께

공공보건의로 현장 경험 확대 및 네트워킹 강화

- 의견조사 및 지역별 간담회 실시**
- 의대생 및 의무복무 유예 의사 대상
 - 공중보건장학제도 참여 경험 조사, 건의사항 수렴
 - 관심있는 전공 분야 전문의와의 간담회 및 질의응답

동문 네트워크 데이 신설 공공의료기관 근무 경험 공유 및 선배 특강

현장탐방 과정 신설 지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견학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더 건강한
미래, 함께

'25년 사업 지침 개정

의무복무 이행 기간 인정 기준 신설 공공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시 해당기간의 4분의 1을 의무복무로 인정

- 의무복무 유예 사유 확대**
-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 병역의무
 - 면허자격 정지
 - 전문의 수련
 - 세부전공(벨로우) 수련
 - 의무복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본인 출산

장학생 진로 선택권 확대 장학생이 공공병원에 개별 취업 시 의무복무로 인정(단, 시도 협의 필수)

성적 기준 신설 백분위 성적 70점 미만 시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

더 건강한 미래, 함께
More Healthy Tomorrow, Together Tomorrow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 의무복무 유예 의사) 의견 조사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교육훈련센터
National Central Medical Center | Education & Training Center for Public Health

MEMO

공중보건장학생(의대생, 의무복무 유예 의사) 의견 조사 **더 건강한 미래, 함께**
More Healthy Tomorrow, Together Tomorrow

조사기간 2024년 7월~10월 조사방법 온라인 인터뷰, 지역별 간담회

질문	답변
지원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이유 사회적 공헌을 통한 보람과 가치 실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건으로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커리어 축적 필요한 일을 한다는 보람 다소 여유있는 생활,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생활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음 본인 전공이나 역량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 과중한 업무, 낮은 급여, 공공기관의 규제 압박 및 경직성 일반의로서의 근무 가능 방안
의무복무 종료 이후 지속 근무를 위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보상, 주거 지원 가족과의 시간 보장 등 유연한 근무환경 보장 역량에 맞는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연구 등 경력개발 지원,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스스로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껴야 함

17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교육훈련센터
National Central Medical Center | Education & Training Center for Public Health

공중보건장학생(의대생, 의무복무 유예 의사) 의견 조사 **더 건강한 미래, 함께**
More Healthy Tomorrow, Together Tomorrow

질문	답변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보수 교육과 파견 근무(공공병원, 협력기관, 해외 등) 연구실적을 위한 환경 제공 및 학회 참가 지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건으로 분야 선배 강연 및 멘토링을 통한 공공성, 사명감 공공보건으로 체계 및 정책 지역사회 및 공공보건으로사업 공공의료기관 방문 환자 특성 및 상담 방법
홍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 공중보건과의와의 혼란 방지를 위한 사업명 변경 선배 의사들을 통한 홍보

18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교육훈련센터
National Central Medical Center | Education & Training Center for Public Health

더 건강한
미래, 함께
More Health, Together, Together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선 방향

국립중앙의료원 | 공중보건인력교육훈련센터
National Central Medical Center |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Health

MEMO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선 방향

더 건강한
미래, 함께
More Health, Together, Together



장학생의 전문성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경로 확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법률 전면 개정 및 정규 사업 전환 검토,
공중보건인력과의 혼란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명칭 변경

책임있는 장학생 선발 및 관리, 효과적인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 강화

유관기관 프로그램

해외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프로그램

김 세 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정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사(B.A.)	2002-2008	교육학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B.B.A.)	2002-2008	경영학(복수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M.Ed.)	2008-2010	평생교육
The Univ. of Georgia	박사(Ph.D.)	2013-2018	Learning, Design, & Technology

경력 사항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위원회 간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

(전) Research and Innovation in Learning (RAIL), The Univ. of Georgia, Researcher



MEMO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동기 부족

- 가족 및 사회생활 제약
- 미래 개발 불확실
- 근무 환경 등
- 교육 환경 등



전 세계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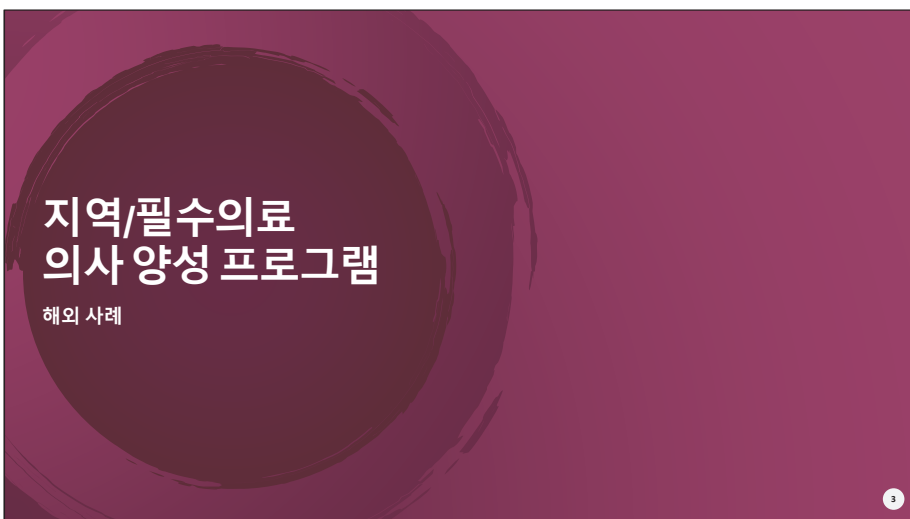
- 선진국 뿐만 아니라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서도 10-20%의 의사만이 지역/필수의료에 서 일하기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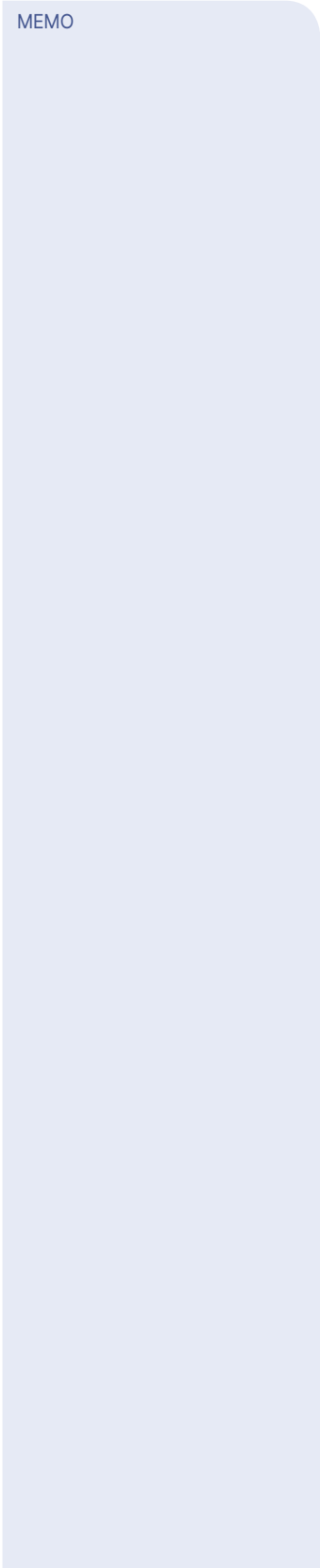
사전 경험의 중요성

- 지역(농어촌 등)에서 태어나 성장한 경험
- 임상실습 중 수련 경험
-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 재학 등

2




3



Rural Physician Associate Program (RPAP)

- **학교:** University of Minnesota Medical School
- **시작:** 1971년
- **목표:** 의과대학생이 농촌 지역에서 9개월간 일하면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
- **구성:**
 - 의과대학 3학년 학생 참여
 - 미네소타 전역의 약 30개 이상의 농촌 지역 병원에 배치
 - 임상 실습(Primary care 중심), 환자 진료에 대한 전 과정에 참여
- **성과:**
 - RPAP 수료생의 약 60%가 농촌 지역에서 개업 또는 근무
 - 75% 이상이 일차의료 의사 선택



UNIVERSITY OF MINNESOTA
Driven to Discover™

1700+
ALUMNI

900+
TEACHING PHYSICIANS

50+
PROGRAM YEARS


120+
COMMUNITIES HAVE BEEN RPAP SITES

4

Rural Physician Associate Program (RPAP)

“The part of RPAP I loved the most was the **continuity of care**. I have delivered babies and watched them grow to be nine months old. I have watched individuals go through the scariest, hardest medical problems and have a breakthrough. I've seen cancer be diagnosed and cured. I can't be more thankful for what I have been able to be part of.”

“RPAP is an incredibly **unique and rewarding experience**. You get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hysicians and help make important decisions. You get the unique opportunity to truly get to know patients, see them across different specialties, and understand their perspective. Lastly, you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ole the physician has in the community.**”




UNIVERSITY OF MINNESOTA
Driven to Discover™

5

Rural Physician Associate Program (RPAP)

- **혜택**
 - 지도교수와의 일대일 교육/멘토링
 - 임상 및 술기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 향상
 -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및 광범위한 실습 경험
 - 의료 경영 관련 경험
 -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환자군 진찰 및 치료
 - 리더십 및 의료 금융 지식 개발
 - \$16,000 장학금과 \$4,000 주거 비용 지원
- **자격 요건**
 - 동기부여가 되어있고, 독립적인 학습자
 - USMLE 1단계 보드 시험 합격자
 - 학업 성취도 상위권, 임상 경험을 위한 조건을 갖춘 자



UNIVERSITY OF MINNESOTA
Driven to Discover™

6

Rural Physician Associate Program (RPAP)



• 입학전형

- 의과대학 초기에 지원 가능
- 지원서, 에세이, 성적표, 이력서 제출 후 면접 실시

• 교육과정

- 총 40주로 구성되며, 이 중 36주는 현장 실습, 2주는 의과대학에서의 인터세션, 2주의 휴가
- 필수 임상 실습 과목
 - ✓ 가정의학: 4주 / 응급의학: 4주 / 외과: 4주 / 소아과: 4주(2주 캠퍼스 실습, 2주 현장 실습)
 - ✓ 정신과: 4주(2주 캠퍼스 실습, 2주 현장 실습) / 산부인과: 4주
 - ✓ 일차의료 인턴십: 8주 / 외과 추가 실습(advanced surgery and procedures): 4주 / 외래 선택과목: 4주
- 교육 방법
 - ✓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LIC):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사들과 협력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 관찰
 - ✓ 온라인 모듈: 예방의학, 지역사회 건강 평가, 근거기반의학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모듈 이수
 - ✓ 프로젝트 수행: 지역사회 건강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7

Physician Shortage Area Program (PSAP)



- 학교: Thomas Jefferson University (Sidney Kimmel Medical College)
- 시작: 1974년
- 목표: 농촌 및 의사 부족 지역에 일차의료 의사를 배출하고, 지역사회 출신 학생을 선발하여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유도
- 구성:
 - 입학 전형 단계에서 별도 PSAP 트랙으로 선발: 농촌 및 소도시에서 성장했거나 오래 거주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공의 수련 후 해당 지역에서 의료 제공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
 - 전통적인 의과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지역사회 중심 경험 추가
 - 멘토링, 지역사회 참여, 진로 상담 등 제공
- 성과:
 - PSAP 졸업생의 약 75%가 일차의료 선택, 그 중 약 65%가 농촌 또는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
 - 지역사회 가정의가 될 가능성이 8배 높게 나타남
 - 11-16년 의사 활동 이후에도 지역의료에서 79% 이상 유지
 - 미국 내 지역사회 의사 유지에 효과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음

8

Physician Shortage Area Program (PSAP)



“The idea behind the program was simple and remains the same to this day: recruit and selectively admit students from rural backgrounds who know they want to practice in a rural area someday and offer support and resources to these students throughout their medical school experience.”

“I realized how different it is and how a lot of progress happens in urban communities that communities like the one I grew up in don't benefit from. I learned the value of going and learning where you need to learn **but returning to a community that needs help.**”

“I want to work in a community like the one I grew up in because I know there's a need in these communities.”

9

MEMO



Physician Shortage Area Program (PSAP)

• 혜택

- 농촌 및 지역사회에서의 실습 기회 제공
- 진료 및 지역보건 관련 전문 멘토링(가정의학과 상담 교수, 4년)
- 입학 및 진료 선택에 대한 유연성
- 일부 장학금 지원

• 자격 요건

- 농촌 지역 출신 학생 또는 농촌 지역에서의 경험 보유
-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에 헌신 의지가 명확한 자
- MCAT/성적 외에 '지역사회 서비스 마인드' 평가

10



Physician Shortage Area Program (PSAP)

• 입학전형

- 일반 의대 전형과 병행하여 별도 PSAP 지원서 제출
- 지역사회 의료에 대한 진정성 중심의 에세이/면접 평가

• 교육과정

-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하며, PSAP 트랙에 참여하면서 특화된 농촌 및 일차의료 경험
- 기본의학교육과정 이수외 더불어 농촌 보건 세미나,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일차의료 분야 의사와의 정기적 멘토링 등 교육기회 제공
- 일반 의과대학 학생과 동일하게 필수 임상 실습 과목 이수, 가정의학, 일반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에 더 많은 임상 노출을 제공, 농촌 지역 또는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기반 진료, 진료의 연속성 경험
- 교육 방법
 - ✓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LIC):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사들과 협력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 관찰
 - ✓ 프로젝트 수행: 지역사회 건강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11

일본 지역정원제(地域枠, Chiikiwaku)

-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중 일부를 지역정원으로 배정하고 지방 거주자 또는 출신 학생을 선발
- 졸업 후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함(6-9년)
- 지역정원으로 별도 선발하여 경쟁률이 낮고, 장학금 및 등록금 면제와 생활비 지원 혜택이 있음

• 성과:

- 2020년 기준, 전국 82개 의과대학 중 78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의대 정원의 약 16%가 지역정원제로 운영

12

MEMO

MEMO

일본 자치의과대학(自治医科大学, Jichi Medical University)

- 1972년에 설립된 공공 지역의료 전문 의과대학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
-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 후 해당 지역으로 복귀하게 함

- **선발 방식:** 각 현에서 추천하여 개별시험 및 면접을 통해 선발
- **교육 특징:** 일차의료, 응급의료, 지역의료 중심. 농촌 실습과 지역보건 프로젝트 제공
- **지원 내용:** 수업료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 + 생활비 장학금
- **복무 조건:** 졸업 후 9년 간 지정 지역 복무, 위반 시 지원금 상환

- 졸업생의 약 80~90%가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여 필수의료 담당

13

Chib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ib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chool of Medicine

지역의료인재육성 특별전형(地域医療人育成特別入試)

- **도입 목적:** 치바현 내 농촌 및 의료취약지역에 종사할 일차의료 의사 양성
- **시행 시기:** 2009년부터 지역정원제 형태로 운영 중
- **선발 인원:** 매년 10명 내외
- **입학 전형:**
 - 일반 전형과 별도로 시행
 - 서류(배경 정보, 학생의 의지 등 에세이), 면접, 논술 포함
 - 현(県)과의 계약 체결 후 입학
- **지원 내용:** 치바현으로부터 장학금 지급(등록금+생활비)
- **복무 의무:** 졸업 후 치바현 내 지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복무(9년), 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 전액 반환

14

Chib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ib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chool of Medicine

지역의료인재육성 특별전형(地域医療人育成特別入試)

- **교육과정:**
 - 일반 학생과 동일한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 이수
 - 지역보건 특화 교육: 농촌 클리닉 실습(3-4학년 대상), 지역의료 세미나(다학제 팀진료, 고령자 진료), 지역 의료기관 견학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역 병원과 연계된 멘토링 프로그램
- **효과 및 운영 평가:**
 - 졸업생 다수가 지역 내 의료기관 정착
 - 지역 병원과 대학 간 인적 교류 형성 효과
 - 일부 학생이 복무 중 가정의학,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로 진출
 - 9년 복무의 부담감으로 중도 이탈자 발생

15



국내 지역/필수의료 임상실습의 한계

- 국내 의과대학 교육은 임상 의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임상실습은 90% 이상이 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 역시 부재
- 의과대학생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일부 관련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역시 제한된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상황

16

MEMO

**지역공공병원
임상실습 프로그램**

국내 사례 - 필수의료분야 의대생 실습사업

17

1. 공공병원 임상실습의 목적

- 의과대학생이 소도시, 농어촌 지역 공공병원에서 임상실습으로 환자 진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차진료의 역할 파악
-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요한 진료 역량 탐색
-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소도시 및 농어촌 공공병원 임상 경험의 유효성 평가
 -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공공병원 임상경험이 학생들의 진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 의과대학과 지역 공공의료병원을 연계한 임상실습 모형 개발하여 전국 권역별 확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QUESTIONS & FEED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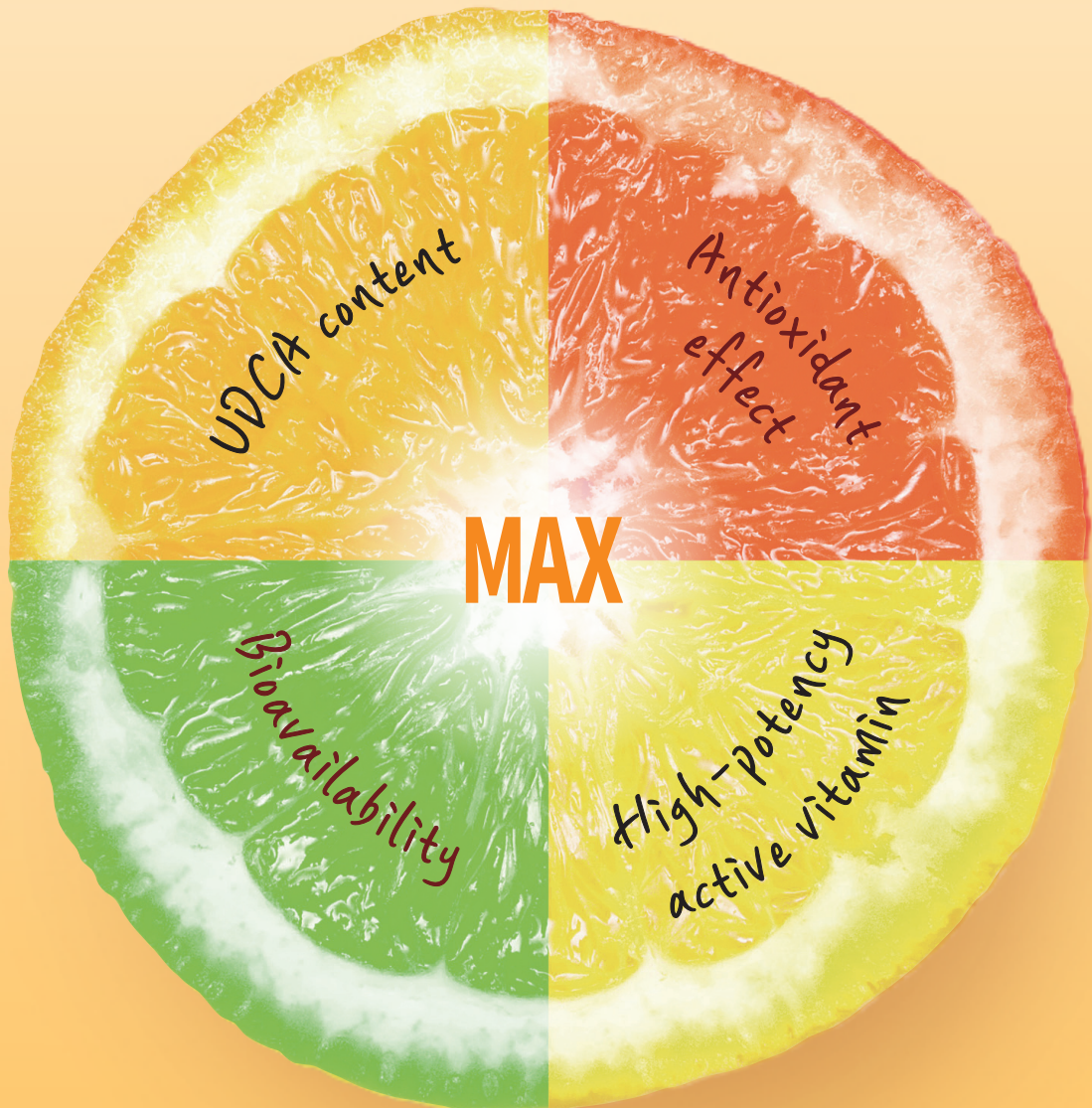
Sejin Kim 
sejintkim@dau.ac.kr 

19

MEMO

헤파코엔

액티브정





한국의학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